

성도의 빛 2

1977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앤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공키
엘 롬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고문

고든 비 힝클리
마빈 제이 애쉬튼
엘 롬 페리
매리온 디 행스
제임스 에이 컬러모어
로버트 디 헤일즈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7년 2월 1일

매월 1일 발행

제13권 제2호

통권 139호

발행인 겸 편집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4-6832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정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우표 서울 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수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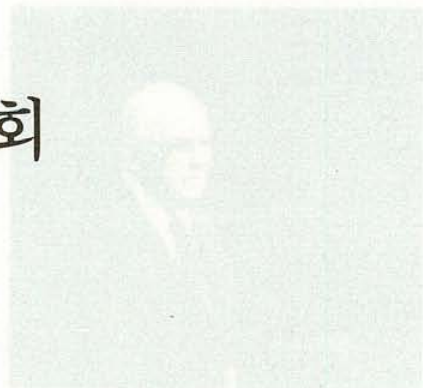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6 반연차 대회 보고	1
보고와 목표	2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2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재조직	7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7
교회 본부 역원 지지	8
앤 엘돈 태너 부대관장	8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9
딘 엘 라슨 장로	9
비록 내가 연약하나	10
닐 에이 맥스웰 장로	10
성도를 완전케 함	13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13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	16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16
영원한 가족	19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19
선교 사업	22
에이 디어더어 터틀 장로	22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죄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24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24
제방과 흐르는 물	27
조셉 비 워스틴 장로	27
완전은 우리의 목표	29
윌리엄 에이치 베넷 장로	29
더욱 큰 기쁨	32
매리온 디 행스 장로	32
우리는 정직을 믿습니다	34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34
선교 사업의 정신	37
칼로스 이 애시 장로	37
“빛이 보입니다”	40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40
훌륭한 죽음	42
스티얼링 더블류 실 장로	42
인간의 참된 맛	44
마크 이 피터슨 장로	44
어느 길로 따라 가렵니까?	47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47
따라 행하시오	50
폴 에이치 던 장로	50
여러분은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52
제이콥 디오거 장로	52
나와 구세주와의 관계	54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54
부모의 책임	57
오 레슬리 스톤튼 장로	57
경전을 연구하라	59
헨리 디 테일러 장로	59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진리	61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61
살아계신 예언자	64
렉스 디 피네가 장로	64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	67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67
더 오래 일할 준비를 갖춘 젊은이	71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71
우리의 리아호나	75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75
대회의 목적	78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78
합당한 자기 관리	82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82
선교사를 만듦	85
엘 러셀 벨라드 이세 장로	85
우리는 성약을 맺는 백성	88
조셉 앤더슨 장로	88
사도 바울의 가르침	91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91
모든 것을 얻을 뿐 잃는 것은 없음	95
고든 비 힝클리 장로	95
개종의 복음	97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	97
주님의 보조 조직	100
로버트 엘 심슨 장로	100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102
에스 딜위스 영 장로	102
영향력 있는 교사	103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	103
주님 안에서 죽은 자	106
브루스 알 맥공키 장로	106
내 생애 최고의 것	108
로버트 이 웰즈 장로	108
다시는 그와 같이 되지 못하리	109
제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	109
인간을 위한 사업	110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110
복지 사업의 기본 원리 감독의 참고	112
빅터 엘 브라운 감독	112
생산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함	114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114
복지의 원리	118
본 제이 페더스톤 감독	118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120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120
“내가 정한 방식대로”	122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22
가서 행하라	125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125
서로 사랑하라	126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126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128
대회 말씀과 교회 교과 과정	130
“귀를 기울이자”	130
최 옥환 형제	표 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6 반연차 대회

보고



1976년도 연차 대회는,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중요한 계시를 경전에 첨가하기로 승인한 4월 대회 그리고 “십이사도 보조 전원을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르고 “네 명의 새로운 회원을 정원회” 회원으로 부르며, “칠십인 제일 평의회”로 재조직하는 등 대폭적인 “칠십인 정원회의 재조직”을 단행한 10월 대회는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같은 조치로 계시로써 밝혀진 교회 내의 세 개의 관리 정원회 곧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주님의 계시에 따라 올바르게 조직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시대부터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범교회 단위로 관리하는 세 번째 “관리 정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본 대회는 교회의 관리 대제사인 김볼 대관장이 감리하셨다. 10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모임에서 총관리 역원의 변경에 대하여 발표되었고, 역원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이어서 금요일 오후 2시, 10월 2일 토요일 오전 7시(복지 모임), 오후 7시(신권회), 10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모임이 열렸다. 이상의 일반 총회 이외에 9월 30일 목요일에는 십이사도 지역 대표 세미나가 있었다.

모임은 템플 스퀘어의 태버나클에서 열렸으며,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 홀과 근처의 솔트 팰리스에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금요일 오전 모임에서는 지금까지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고 있던 27명이 그대로 그 직책에 다시 임명되었고, 4명의 총관리 역원 즉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3명(딘 엘 라슨 장로, 로이든 지 메릭 장로, 로버트 이 웬즈 장로)과 관리 감독단 제2보좌로 제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이 부름을 받는 등 모두 58명의 총관리 역원에 대한 지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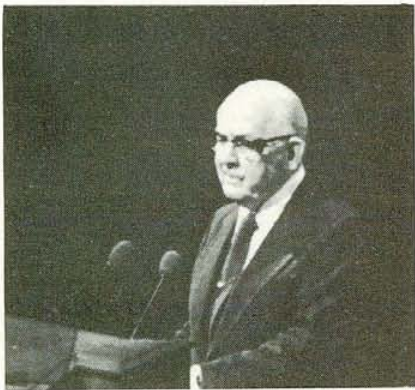
가 행하여졌다.

대회의 모든 모임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필리핀 등 여러 지역의 170 개 텔레비전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되었으며, 그 중 31 개는 녹화 방영되었다. 전파로 방송한 라디오 방송국은 미국과 캐나다에 61 개, 미국과 캐나다에 폐쇄 회로로 방송한 곳은 85 개, 멕시코와 중남미로 68 개, 호주로 45 개 등 여러 방송망을 통하여 30분 이상 방송되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에는 단파로 방송되었다. 또한 유럽에 위치한 100 개의 예배당에서는 대회 기간 중 개최된 두 모임의 실황을 직통 전화로 연결하여 소개되었는데, 한 모임은 영어로 다른 모임은 불어, 화란어, 독일어로 들을 수 있게 하였으며, 하와이,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호주의 33 개 지역, 뉴질랜드, 필리핀, 홍콩, 한국, 일본 등 1,101개의 지역에서는 신권회를 직통 전화로 연결하여 화성 장치를 통해서 청취하였다. —편집자. *

보고와 목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가정에 채소밭을 가꾸고, 외설 서적과 그림과 영화를 멀리하며, 낙태를 금하고, 정직하게 생활하여, 가정의 밤을 갖고,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도록 재강조하셨습니다.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반 연차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이 모임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8월부터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신권 역원을 위한 26 개의 모임을 가졌으며,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신권 역원의 책임과 특권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렸습니다. 26 개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약 28,000 명의 신권 지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지역 대회를 통하여 약 151,000 명의 교회 회원을 만났습니다. 지역 대회를 가지면서부터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거의 50 만 명 (446,691) 에게 복음과 그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64 개의 스테이크와 146 개의 선교부, 그리고 9,000 여

개의 와드와 지부를 조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은 분명히 주님의 축복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전세계의 새로 조직된 많은 스테이크에서는 새롭고 젊고 박력있는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이익을 구하도록 성임되고 성별되었습니다. 이들 지역 지도자들이 이 새로운 책임을 받아들인 것에 또한 기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 현재 선교사의 수는 25,000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소수의 자매 선교사와 노부부 선교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19세 내지 21세의 젊은 청년입니다. 그들의 노력의 결과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117,000 명의 개종자들이 출석부에 첨가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들은 새로운 영적인 가정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그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좀더 배우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새로운 책임을 알고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신학 연구원 중등부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는 183,000 명에 달하며 88,000여 명의 학생이 대학부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8,000여 명의 인디안과 그밖의 다른 레이멘인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청소년을 모두 합하면 25만여 명의 청소년이 신학 연구원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교회 회원의 수가 4백만에 달할 것입니다.

1백만의 회원 수를 확보하는데 1830년부터 1947년까지 117년이나 걸렸음

니다. 그리고 16년 후인 1963년에는 회원 수가 2백만에 달하게 되었으며, 다시 9년 후인 1972년에는 3백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4, 5년 후에 4백만을 육박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은 교회 회원들이 원소속 와드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개종자 수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게 될 것이며, 주님의 재림의 날이 빨리 다가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 수가 불어나고 교회 내에 영적인 발전이 이룩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찬식 참석율이 19퍼센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와 유아도 모두 교회 회원으로 포함된 숫자상의 통계였으나 아뭏든 매우 낮은 참석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찬식 참석율이 50퍼센트 내지 60퍼센트인 스테이크와 선교부가 많이 있으며, 이보다 더 높은 참석율을 보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대회 이후에 우리는 현 미주우리주의 크리스토퍼 에스 본드 주지사로부터 기쁜 메시지를 받았습니 다. 그분은 우리에게 138년 전 물몬들을 미주우리주로부터 추방하도록 물몬 근절령을 내렸던 릴빈 더블류 보그스 주지사의 행정 명령을 폐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본드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써 보냈습니다.

“미주우리주의 모든 주민을 대표하여 1838년에 내려진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본인은 1838년 10월 27일자로 릴빈 더블류 보그스 주지사가 내린 행정 명령 제44호를 폐지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부당한 행정 명령을 폐지하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과 미주우리주 주민과의 우정을 증진시키려는 본드 주지사와 미주우리주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미주우리주에는 51개의 지역에 스테이크 5개가 조직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약 15,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드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정 채소밭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가정에서 채소밭을 가꾸고 과수를 심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마음 든든함을 느낍니다. 채소밭을 가꾸어 많은 수확을 얻었다는 소식을 사방에서 듣고 있습니다. 엘라배마주에 살고 있는 어느 부부는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1년분의 채소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정 채소밭을 가꾸는 가정 수는 작년도의 3,250만에 비해 3,500만으로 늘었으며, 통조림 저장을 하는 가정은 작년도의 37퍼센트에 비해 금년에는 약 41퍼센트로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양동이나 큰 그릇에다 채소를 가꾸기도 하고 울타리를 이용하는 곳도 많으며 창틀에 상자를 놓고 채소를 가꾸기도 합니다.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주립 대학에서는 기혼 학생 부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240 개의 지역에 대지를 대어 주었으며, 롱아일랜드에서는 400 군데의 대지를 주민들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는 약 200,000 군데의 대지가 경작 중에 있습니다.

한 당국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채소밭을 갖고 있습니다. 격무에 지친 심신을 풀어 주는 곳으로 는 안성마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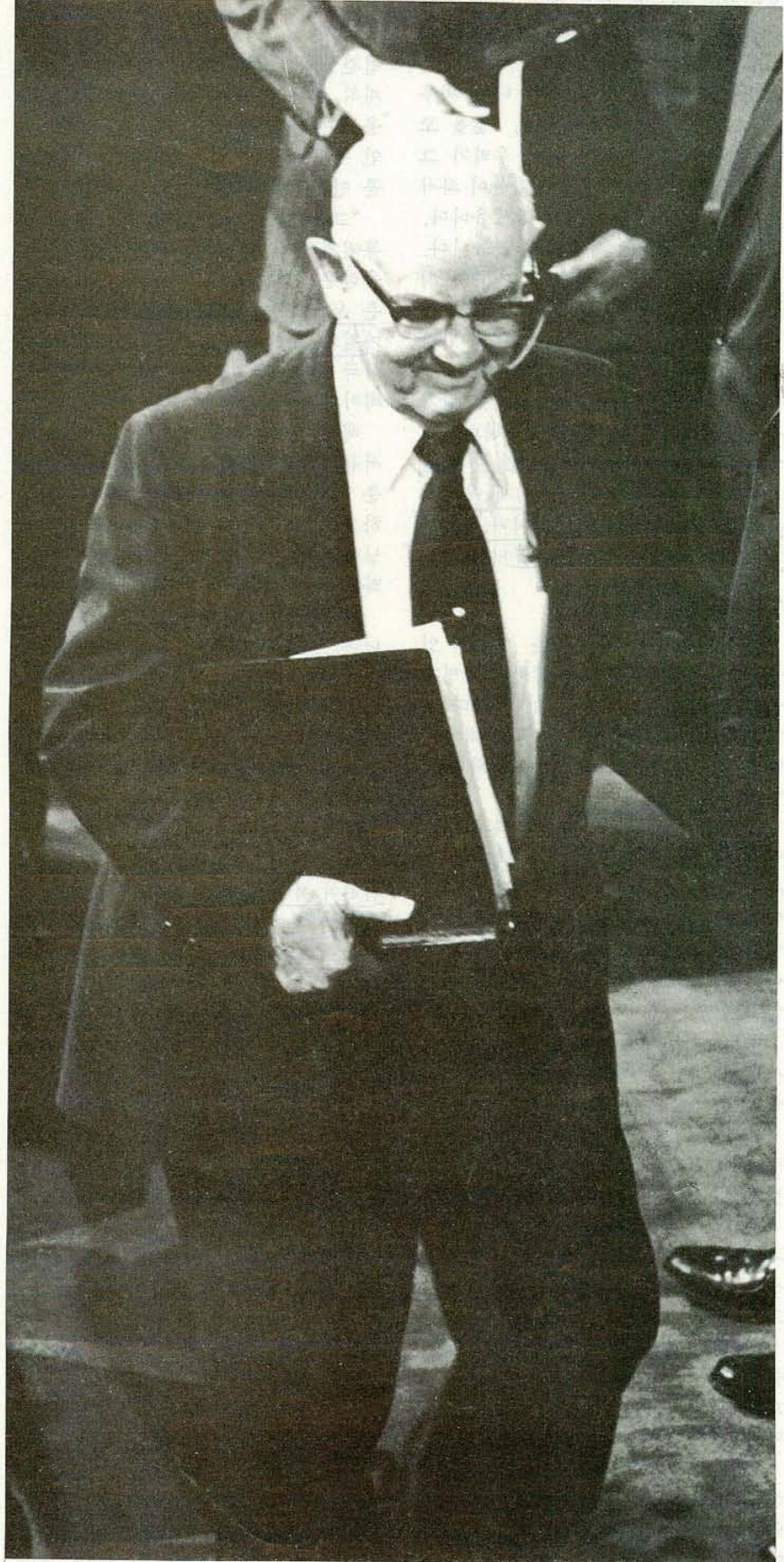
우리는 가정 채소밭 가꾸기와 과수원 프로그램에 덧붙여 가정과 주변 정리 사업을 권고합니다. 전에도 이미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서진 울타리와 헛간과 헐어 내고 다시 지어야 할 창고가 그대로 있으면, 더러운 채로 방치된 하수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고를 듣고 이행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프랑크푸르트 선교부에 있는 두 가족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채소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대도시에서 땅을 구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밭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하간 이 밭을 우리가 임대받았을 때, 이 밭에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들의 영접을 받으며 태버나클로 들어오시는 킵블 대관장님



는 부서진 울타리와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집 뿐, 온 땅은 유리 조각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는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오두막집을 수리했으며, 밭을 모두 갈았습니다. 봄이 되어 우리가 그곳에 씨앗을 심자 이웃 사람들이 와서 씨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시내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양동이를 자전거에 매달아 자전거를 타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밭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갖가지 종류의 채소가 재배되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보는 것은 여간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대로 밭에 가서 물을 줍니다. 밭을 갖고 있는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외설 서적, 그림, 영화

전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만연해 있는 외설 서적과 그림과 영화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해치는 이 무서운 적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그리고 냉혹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외설 영화와 책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돈의 액수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오염은 서점, 잡지 판매대, 영화관 그리고 불행하게도 백화점과 식료품 시장과 심지어는 약국에까지 물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여러분께 선량한 시민으로서 음란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권고합니다.

미국 내에서 널리 애독되고 있는 한 잡지에 나와 있는 기사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던 시기가 지나자 미국의 도시는 점차로 성 중심의 활동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기초를 둔 보다 강력한 법률이 이같은 외설물과 악을 퇴치하는 데에 적용되고 있다……

“고등 법원은…… 도시와 국가에서 성인 영화를 심사하고 규제하는 권한, 을 옹호하고 있다.”(“외설물 퇴치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됨”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1976년, 9월 13일자, 75페이지.)

“외설 서적과 그림과 영화는 성과 인간성을 타락시킨다. 성이란 인간 관계의 매우 미묘한 부분이다. 성을 남용하여 타락시키면, 스스로가 동물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인간성마저 타락시키고 만다.

“그와 같이 퍼져 나갈 때, 모든 인류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 음란은 문명에 역행되는 것이다. 음란은 우리의 기본되는 신앙을 해치며, 가정의 윤리를 해친다.”(래리 패리쉬, 미국 변호사, “외설물 퇴치 투쟁”, 76 페이지)

래쉬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종류의 간음, 매춘 행위, 동성 연애 등에 대하여 간결하고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 20장)

지금도 그러한 행위는 가증한 일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정신을 타락시키고, 자기 존중심을 말살시키며, 분노와 불행의 암흑으로 몰고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전염병과 같은 이 외설물을 멀리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선량한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서 음란한 풍조를 없애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십시오. 음란 행위를 퇴치한다는 것은 인간에게서 선택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외설물 제작자나 판매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음란 행위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시키지 말게 하십시오.

귀한 자녀들이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사랑스런 자녀들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외설 서적과 그림과 영화에서 비롯되는 죄는 불행하게도 낙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무서운 범죄 행위로 번져 가게 됩니다.

낙태

인생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심적인 타격을 초래하는 낙태는 그 수가 놀랄 정도로 점증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미국 내에서만해도, 합법적인 낙태 회수가 1백만이 넘는 것으로

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수효는 7년 전인 1969년도 통계 숫자의 거의 15 배나 되는 숫자입니다. 한 고위 당국자는 1980년대에는 1년에 240만 회의 낙태가 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여 버리는 낙태란 가장 무서운 죄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한다는 교회 입장을 여러 번 강조하여 왔습니다. 첫째, 강간을 당하여 임신한 경우이고 둘째, 임부의 건강이 위험하다고 권위있는 의사가 권고할 경우입니다.

성인 영화를 관람하고 외설 잡지를 뒤져 보다가 결국 낙태의 비극을 빚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혼전 성관계, 간음, 동성 연애 등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성을 주제로 다룬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의의 갑옷을 입고, 모든 사탄의 영향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이 분연히 나서서 사탄과 대적하여 주님의 길을 옹호해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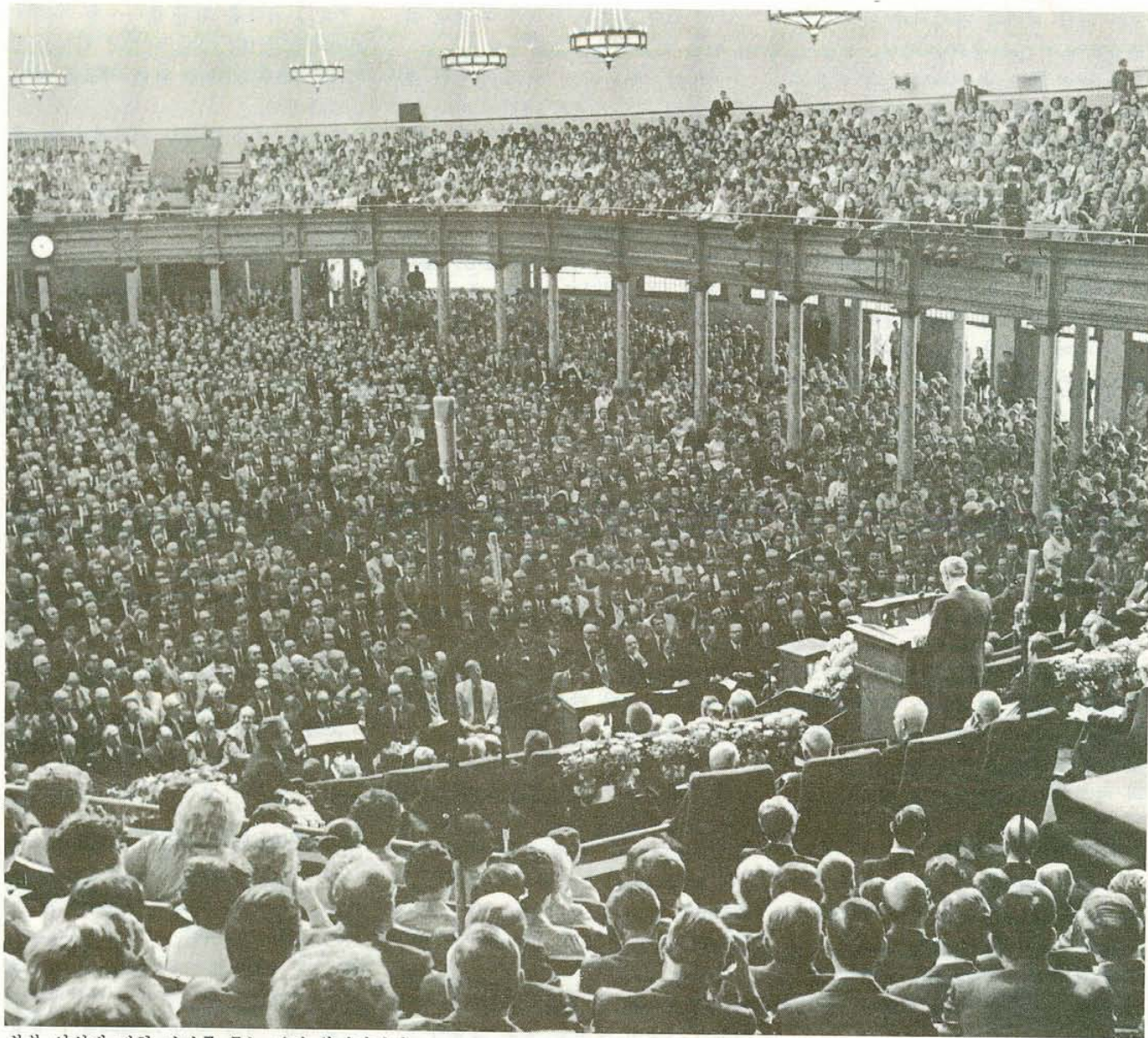
2백 주년

최근에 우리는 이 나라의 다른 선량한 국민들과 함께 독립 2백 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증진되었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 왔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을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바벨탑을 쌓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관한 일을 다루는 이 건물에서 우리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임스 파튼, 벤자민 프랭클린의 생애와 시대, 보스턴: 제임스 알 오스군 앤드 컴퍼니, 1864년, 2: 573-74)

혼란과 비극, 전쟁과 폭동, 살해와 음모로 가득찬 시대에서 미국인들은 1776년의 정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독립 전쟁에 참가한 건국 유공자들과 이민 선조들의 모습을 다시 보



본부 역원에 대한 지지를 묻는 태너 부대관장님

있습니다.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기회를 만끽하는 자유민의 비전은 원대하고 또한 위안이 됩니다.

2백 년에서 다시 전진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백악관 벽난로 대리석 위에 새겨진 존 아담즈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이 지붕 밑에서는 오직 정직하고 현명한 자만이 다스리기를 빕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계명을 무시하는 정부는 결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존속할 수 없습니다.

정직

오늘날은 정직과 고결한 성품을 가르치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

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직의 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13조)

창조주께서는 시내산에서 다음과 같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판에 새겨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또 다시 창조주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교성 59 : 6)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적인 사무실에서나 사생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질하지 말

라……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교성 59 : 6).

우리는 상점의 물건을 들치기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정직한 행동을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야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정직한 행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비행기 납치, 가증스런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랑의 유희, 고용주의 물건을 훔치거나 현금을 훔치는 일, 회계 장부 위조, 공금 횡령, 우당치 못하게 파산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부채를 갚지 않으려는 행위, 노상 강도, 금전이냐 금품을 앗아 가는 도둑질, 하루분의 임금을 받

고도 노동 시간을 정직하게 지키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훔치는 행위, 공공 요금을 내지 않고 공공 교통편을 이용하려는 행위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동이 도처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온갖 도둑질과 부정적인 행위에 대하여 주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한 두 마디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의 도둑질, 거짓 증거, 남을 이용하는 것 등을 길게 나열하기를 꺼려 하시어 그러한 모든 옳지 못한 일을 한 마디로 뚝뚝그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걸”이라는 핑계를 흔히 뱉니다. 어떠한 사회도 정직, 신뢰, 자제 없이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가정 생활에서 남자는 아내를 극진히 보살펴야 합니다. 자녀를 임신할 때만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때에도 아내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반드시 보호받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살피는 일을 첫번째 임무로 여겨야 하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면 항상 자제와 극기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가정의 밤

가정의 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중요한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쏟아야 하며, 가정의 밤을 충실히 가져야 합니다.

가정의 밤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 가정이 인도합니다. 노래와 기도와 공과를 통하여 확고하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족에게 심어 줍니다.

신앙과 회개의 복음, 정직, 고결한 성품, 순결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제명대로 생활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지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때, 이혼의 수는 크게 줄어든 것이며, 기타 온갖 죄악이나 오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가정은 덕을 배우는 기본 학교입니다.

한 성직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을 것입니다.

“진실로, 가정이 약하면,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 붕괴되면 도덕적인 타락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인간은 훌륭한 조직 즉 가정, 학교, 교회,

그리고 친구 등등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약한 피조물입니다.

“가정이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면, 그 가정의 파탄에 이어 사회가 붕괴되고 마는 법입니다.”

한 미국인 작가는 다음과 같이 썼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볼 때, 국가는 질병, 침략, 기근, 지진, 전염병, 불경기 등의 와중에서도 견뎌 낼 수 있었으나, 가정이 붕괴되었을 때는 결코 국가가 존속할 수 없었다.

“가정이란 경제적인 기술, 돈을 쓰는 습관, 일에 대한 태도, 재정적인 독립심 등을 기르는 온상이다.

“가정이란 학교보다 더 훌륭하게 가르치고, 교회보다 더 영향력있게 종교 훈련을 쌓게 하는 강한 조직이다.

“가정이 강화되었을 때에 사회가 강화되었다.

“가정이 흔들릴 때, 생활이 흔들리게 된다.”

1977년 1월에 미국 대통령 직에 앉게 될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상력과 용기가 기대됩니다.

“미래를 향하여 밀고 나가는 세계의 강한 추진력과 기본 덕성을 융화시키는 세대가 등장할 것이다. 우리는 1976년은 국가가 이를 완성시키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의 정신이 고조되다”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1976년 8월 23일, 25—27페이지)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국의 많은 교회와 단체와 개인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결코 가정의 밤을 소홀히 하셔서 가족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 애호 협회

형제 자매 여러분, 매년 특별히 한 주간을 “동물 애호 주간”으로 제정한 동물 애호 협회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은 갑자기 멈춰 서서 나아가지 않는 말을 때리거나, 개를 발로 차거나, 동물에게 밥을 주지 않는 사람을 보면 몹시 역경을 내시던 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현명하게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잠 12:10)

“저가 가축을 위한 풀……을 자라게 하시며”(시 104:14) 이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도울 가축을 위한 사료를 마련 하셨습니다.

동물을 위하여 쉬는 시간까지도 제정 되었습니다.

“너는 육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 칠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니”(출 23:12)

말이 울지 않고 개도 짖지 않는 도시에 살지 말라는 옛 히브리 속담도 있습니다.

정치

예비 선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본 선거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선거에 참여하셔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가장 잘 수호해 줄 가장 강하고 훌륭한 분을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정한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여 좋은 성품을 가진 건실한 사람에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이나 교회 조직을 선거 유세나 입후보자를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레이맨인에 대한 사업

레이맨인에 대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과 그 밖의 다른 레이맨인, 중남미와 멕시코와 다른 섬에 있는 6천여 만의 레이맨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디안 학생 배치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어 수 많은 인디안 학생들이 훌륭한 가정에 유하면서 훌륭한 교육의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 과정까지 밟고 있습니다.

약 36 개의 선교부가 주로 레이맨인에게 주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레이맨인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스테이크의 수는 60여 개에 달하며, 현재 여러 스테이크가 조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크와 선교부에 속해 있는 레이맨인의 수는 수만을 넘고 있습니다.

기술자, 화학 연구원, 의사, 법률가 등 여러 부문의 전문가들이 레이맨인 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맨인을 위하여 “아버지를 돌보고 어머니를 돌보”라는 물몬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1만 내지 1만 5

천 명의 인디언 학생들이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많은 성인 학생들이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등 교육 기관 중에서 레이먼드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관이 바로 이곳일 것입니다. 이들은 교육을 받은 후에 다시 교사직, 연구원, 은행 등의 다른 봉사 기관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이먼드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 회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소수 집단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이고 도와 주기 바랍니다.

재해

지난 몇 달 동안 크나큰 재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우리의 깊은 사랑과 동정심을 전합니다. 티튼 댐이 무너지면서 일어난 홍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재난을 당하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큰 홍수는 거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릭스 대학이 홍수 지역을 바로 벗어난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집을 잃은 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으며, 그러한 와중에서 많은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참극에서 보여 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사랑, 성실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또한 콜로라도주에서 일어난 톱슨 강 홍수로 인한 많은 희생자와 재해에 대하여 깊은 동정의 마음을 금하지 못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필리핀 군도의 지진, 그리고 파테말라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역시 동정의 뜻을 표합니다. 이러한 모든 재난에 대하여 동정의 마음을 금하지 못하며, 주께서 피해자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그릇을 지닌 너희여 깨끗하라”(교성 38 : 42)고 권고합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생활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회에서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재조직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오늘 우리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 네 분의 형제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지지를 묻겠습니다.

1941년, 다섯 분의 대제사가 십이사도의 막중한 일을 돕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일은 계시로 밝혀진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임무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요구되었던 일의 범위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를 조직할 만큼 크지 않았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십이사도 보조가 늘어났으며 현재 21 명이 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 칠십인 제일 평의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을 받아 현재 제일 평의회를 포함하여 정원회는 14 명의 형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이사도 보조의 기능과 책임이 칠십인의 그것과 흡사하며,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본부 단위에서의 행정상의 단합이 필요하게 되자,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십이사도 보조와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의 동의를 얻어 십이사도 보조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르고, 네 명의 다른 형제를 정원회 회원으로 불러, 칠십인 제일 정원회를 새로이 조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앤 엘돈 태너 부대관장님이 총관리 역원 명단을 발표하실 때 아시겠지만, 이로써 칠십인 제일 정원회는 39명으로 구성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원회의 사업이 활발히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계시로써 밝혀진 교회 내의 세 개의 관리 정원회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주님의 계시에 따라 올바르게 조직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무거운 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업을 보다 확장시키고 촉진시켜 나감으로써 주님이 오셔서 그의 교회와 왕국을 직접 통치하실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대관장단 제1보좌이신 앤 엘돈 태너 부대관장님이 나오셔서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 그리고 교회 본부 보조 조직 역원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역원을 지지하는 총관리 역원의 모습



교회 본부 역원 지지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방금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칠십인 제일 평의회에서 수고하신 에스 딜워스 영, 에이 디어도어 터틀, 폴 에이치 던, 하트만 텍터 이세, 로렌 시던, 텍스 더 피네가, 진 알 쿡 장로들의 훌륭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들을 그 직에서 해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 해임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서의 그들의 부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보이신 훌륭한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오른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 감독단 제2보좌로 성실하게 봉사하신 본 제이 페더스토운 감독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그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페더스토운 감독이 보이신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오른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을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그리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 엘돈 태너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에스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멜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

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쿱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헤이트 형제들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 축복사로 엘드리드 지 스미스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대관장단의 두 보좌와 십이사도와 교회 축복사를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회장으로, 그리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프랭클린 디 리차즈, 제임즈 이 파우스트,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에이 디어도어 터틀, 닐 에

이 맥스웰, 매리온 디 행스, 폴 에이치 던 형제들을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엘마 소니, 스티얼링 더블류 실, 헨리 더 테일러, 엘빈 알 다이어, 디어도어 엠 버튼, 버나드 피 브룩뱅크, 제임즈 에이 켈리도어, 조셉 앤더슨, 윌리엄 에이치 베넷, 존 에이치 반덴버그, 로버트 엘 심슨, 오 레슬리 스톤,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로버트 디 헤일즈, 애드니 와이 고마즈, 조셉 비 위스틴, 에스 딜워스 영, 하트만 텍터 이세, 로렌 시던, 텍스 더 피네가, 진 알 쿡, 찰즈 에이 디메이,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칼로스 이애시, 엠 러셀 벨라드 이세,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이콥 디 오거, 본 제이 페더스토운, 딘 엘 라슨, 로이든 지메릭, 로버트 이 웰즈, 이상 여러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터 엘 브라운 형제를 관리 감독으로, 에이치 버크 피터슨 형제를 제1보좌로, 제이 리차드 클라크 형제를 제2보좌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십이사도 정원회 지역 대표 전원.

빅터 엘 브라운 관리감독, 에이치

본부 역원에 대한 지지를 묻는 태너 부대관장님



버크 피터슨 감독, 제이 리처드 클라크 감독으로 구성되는 판리 감독단의 지시를 받는 아론 신권 위원회 전원.

청녀회장으로 루스 하디 핑크, 제1보좌로 호텐스 에이치 차일드, 제2보좌로 아메스 지 켈, 기타 현재 구성된 위원회 전원.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바바라 브래드 쇼우 스미스, 교육 담당 보좌로 제베스 러셀 캐넌, 가사 담당 보좌로 매리언 리처즈 보이어, 기타 현재 구성된 위원회 전원.

주일학교 회장으로 러셀 엠 벨슨, 제1보좌로 비 로이드 포울먼, 제2보좌로 조 제이 크리스턴슨, 기타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초등학교 회장으로 나오미 맥스필드 셜웨이, 제1보좌로 사라 델리사 브로드벤트 폴슨, 제2보좌로 콜린 부쉬먼 레몬, 기타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교회 교육 기구 임원으로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롭니,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행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퍼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매리온 더 행스, 폴 에이치 던, 빅터 엘 브라운, 바바라 비 스미스,

이상의 여러 형제 자매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정 위원회 위원으로 윌포드 지 에드링, 헤롤드 에이치 베넷, 웨스턴 이 해밀튼, 데이비드 엠 케베디, 워렌 이 퓨.

태버나클 합창단 단장으로 오클리에스 이반스, 지휘자에 제들드 디 옐리, 보조 지휘자에 도날드 에이치 리플링거, 정 율겐 반주자로 알렉산더 슈라이너, 율겐 반주자로 로버트 쿨딕과 로이 엠 달리.

이상의 여러분을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킴블 대관장님, 이상의 본부 역원과 총관리 역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지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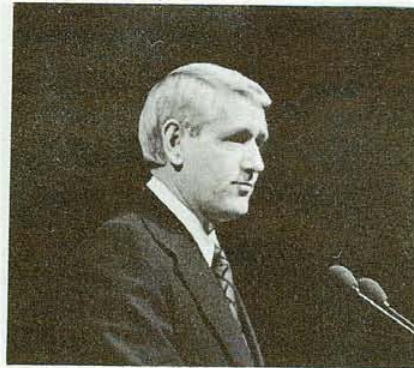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일원으로 지지 받으신 로이든 지 테릭 장로는 현재 아일랜드 더블린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딘 엘 라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의 말씀



“선교사의 첫번째 방문”

머칠 전, 킴블 대관장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 나는 마음의 평정을 지킬 양으로 모든 일이 예전이나 꼭 같을 것이라고 가장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꼭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 임무를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도움이 있기를 간구하며, 여러분이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하여 주실 것을 마음을 다하여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내가 주님에게 속한 자이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일을 시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킴블 대관장님에게도 약속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훌륭한 가족이 나를 지지하고 도와 줍니다. 나는 주님께 초기의 그의 종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서 큰 위안을 받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요한복음 15 :

지난 주에 엔사인 잡지를 읽다가 어떤 말일성도 선교사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 어느 가정 주부가 그때의 심정을 표현한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양은 빛나고 있었고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때 역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진리가 그곳에서 있을 때 나는 빵과 부엌을 생각해야 했다.

그대가 이야기할 때,

나의 기억은 되살아 났고

어두운 창문을 통해

나는 그토록 갈망했던 것과

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대가 떠난 후에도 알지 못할

무언가가 집안을 맴돌았다.

고통을 달래는 평안이라 할까.

나는 홀이불을 집어 든다.

마치 모든 것이

예전이나 꼭 같기를 바라는 듯이.

제넷 캐더리—컷처,

3-5, 7-8)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이 사업은 그분의 사업이고, 킴벌 대관장님은 참으로 이 지상에 살아계신 주님의 예언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합당한 자로서 끝까지 견딜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오늘 내내 이곳에 임하기를 결손히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비록 내가 연약하나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칠십인 제일 평의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 제언



형제 자매 여러분, 우선 저에게 이와같은 부름을 주신 예언자와 그분의 두 보좌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월회 역사 기록의 한 페이지에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교회를 다스리는 데 온 생애를 바쳤다고 분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대관장단과 리차즈 장로님과 모든 칠십인 제일 정월회 여러분 앞에서 굳게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아 봉사한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30년 전 딜위스 영 회장께서 저를 칠십인으로 성임하셨습니다. 저는 여생을 바쳐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미치는 훌륭한 영향력을 따르기란 마치 내가 고층 건물에서 뛰어 내리라는 명을 받았을 때 느꼈던 심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이기심 없이 희생하는 칠십인 회장이신 영 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저는 왕국의 게으른 자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집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짓된 안일한 생활에 빠져 있는 자에게가 아니라 왕국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더라도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불안해 하는 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던 초기의 제자들도 궁금하여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 보았습니다(막 10:26)

이와 같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느낌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야 할 곳과 행해야 할 바를 솔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현재의 교통난에 허덕이면서 영원한 세계의 신호등을 따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 집에 가는 것이 아니며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는 왕국에는 각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필요 사항이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드로는 이를 알아 그의 사위 모세에게 권고하였습니다(출 18장 참조). 예언자들도 자신의 약점을 압니다. 니파이는 “비록 연약하나”(니이 33:11) 큰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다른 니파이인 예언자, 아팜은 자기가 이야기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사

람들에 대하여 “넘치는 열려”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였읍니다(야 4:18). 우리의 살아 계신 예언자께서도 목표를 성취시키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두 성취시키셨읍니다.

그러므로 부족하다는 느낌은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느낌입니다. 피곤의 느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지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교성 64:33).

“...마련된 힘... 이상으로 급히 서둘거나 일하지 말라”(교성 10:4)는 경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지구를 지으실 때 일곱 단계를 차례대로 행하신 것과 같이 모든 일은 단계적으로 발전된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힘써 노력하는 것”과 “지나치게 열려하여 노력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못하는 우리 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잔혹한 심판자로 삼아 행복한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정당한 과정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건설적인 비평가는 자신을 포함하여 그가 비판하는 대상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겸양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연민의 일종이며, 이것은 다른 모든 관심까지도 없애게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경전은 이와 같은 중요한 교훈과 함께 점진적인 발전을 볼 수 있는 진열장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방향이 제시되면 그 후에 가속도가 붙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의 백성은 “때가 지나매”(모세서 7:21) 발전되어 갔읍니다. 예수는 “처음에는 그가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으시”(교성 93:12)였으며,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눅 2:52)갔읍니다.

경전이라는 진열장에서 우리는 리하

이가 근심하며 떨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 1:14)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끼리 반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우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투쟁이 모두 비극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전의 진열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깊은 유대를 맺고 있는 사람 사이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예언자가 사울 왕에게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삼상 15:17)가 있으리라고 솔직하게 상기시켜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완전했던 인류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가, 첫째 지체를 지키는 동안에 형성된 특성을 갖고 지상에 온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인류의 최초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에만 치우쳐 있었으나 후에는 다른 무엇과도 필적할 수 없도록 훌륭한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한 바울을 우리는 경전의 진열장에서 볼 수

방문자 센터에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는 방문자들



있습니다. (고전 14장) 옥에 갇힌 침례 요한 “보다 큰 이가” (마 11:11) 없다는 사실은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마 11:2-4 참조), 물 위를 걸다가 예수께 손을 내밀어 구해 달라고 하던 베드로(마 14:25-31 참조), 그러던 그가 그의 강한 손을 내밀어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 9:36-46 참조)

그릇된 소식으로 오해하여 다른 지도자가 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을 지어버렸던 지도자로는 모로나이가 첫번째 사람이 아니었으며 (앨 60장 참조), “사랑하는 형제” 모로나에게 보낸 페이호텐의 부드럽고 사랑에 찬 편지가 마지막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앨 61장 참조)

그러면 이와 같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언해 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불만족과 악마의 불화,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자신에 대한 혐오를 분명하게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첫번째 것을 취하고 두 번째 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완전에 이르는 길에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가 “무익한 중”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눅 17:10)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이와같은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 오게 됩니다.

3. 우리는 도움을 기쁘게 주고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 군대 장관은 동료 장군으로부터가 아니라 그의 전령으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왕하 5:1-14 참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섭리에 따라 세미한 소리로 죽할 때에는 천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제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언자를 시켜 행하게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4. 우리는 자신의 합당성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우리의 자녀를 포함하여)의 자유의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최선을 다해 한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5. 우리는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해야 할 일을 정하고, 그것을 기록하여 자주 검토하면서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할 일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6. 우리는 만일 자신이 오늘 죽는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우 아쉬워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의회가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지는 모르나, 인간사회는 다른 집단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7. 우리는 뒤나 옆을 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우리의 손으로 땅을 갈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나 기회는 다른 사람의 것과 다릅니다. 더 눈에 잘 나타나 보이는 것도 있고 더 영향을 잘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역사가인 모로나이는 힘있게 기록한 마흔리 모리엔쿠에 비해 자신이 부족할 기록자임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적어도 한 가지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의 은사” (교성 46:8)를 구하여야 합니다.

8.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조용히 좀더 정직하게 조사하여 목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 정직하지 못한 장부 제원이므로 장부를 확인하는 회계 검사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체를 지키지 못한 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하시킬 때 기뻐합니다. 자기 경멸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늘에는 이러한 속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자신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실수를 항상 거듭하는 것이 인생의 경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9. 넘어진 자를 부축해 일으켜 세워야 하듯이 십리를 동행하여 지쳐 있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보다 자주 자상하게 칭찬의 말을 해 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다 높이 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 또한 우리는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십자가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에베레스트산 기슭에서 정상을 바라다 보고 경탄만 하고 있음으로 해서가 아니라 배낭을 어깨에 짊어지고 한 발 한 발을 앞으로 옮겨 놓음으로 해서 결국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은 앞으로



전진하도록 지어졌지 뒤로 후퇴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11. 우리가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바칠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요구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데나리온을 바친 과부는 수줍어하지 않았으며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구하지도 않았읍니다.

12. 하나님께서는 지리보다는 성장에 더욱 크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진영에서 행진한 사람들은 미주우리주 변방을 탐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가능성을 탐지하였읍니다.

13. 우리는 자유의지로 우리가 처하게 될 모든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강건한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할 경우가 흔합니다. 영은 육신이 다달을 수 있는 곳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14.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부터 진저 주실 수 있으며, 근심으로부터 달래 주실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고립이나 인색함에 대하여 아무 것도 말할 수 없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낙담은 능력의 결여가 아니라 용기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낙담을 버릴 때 우리의 개인적인 발전은 놀라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생활할 때, 우리도 이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곧 나의 휴식의 처소로 떠나니, 나의 구속주가 계신 곳이라…… 그때에 내가 기쁨으로 주를 대할 것이요”(이노 27절) 그때에 “주의 면전에서” 우리의 “심일이 두터워”(교성 121: 45)될 것이며, 거짓말할 수 없는 주님은 “잘하였도다”라는 따뜻한 말로써 우리의 합당성과 능력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아멘. *

성도를 완전케 함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칠십인 제일 평의회

수련 장로로 부름받은 형제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킴블 대관장님과 여러 총관리 역원들의 권고와 아름다운 음악과 개회 기도가 이 모임을 더욱 더 영적인 모임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부름을 받은 나는 새삼 하나님 아버지와 총관리 역원 여러분이 신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왕국 건설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이 부름 받은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딜워스 영 회장과 방금 해임된 칠십인 제일 평의회 여러분에게 저의 사랑과 감사를 전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려운 시대이지만 때가 찬 경륜의 시대요,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이 특별한 시대에 나의 영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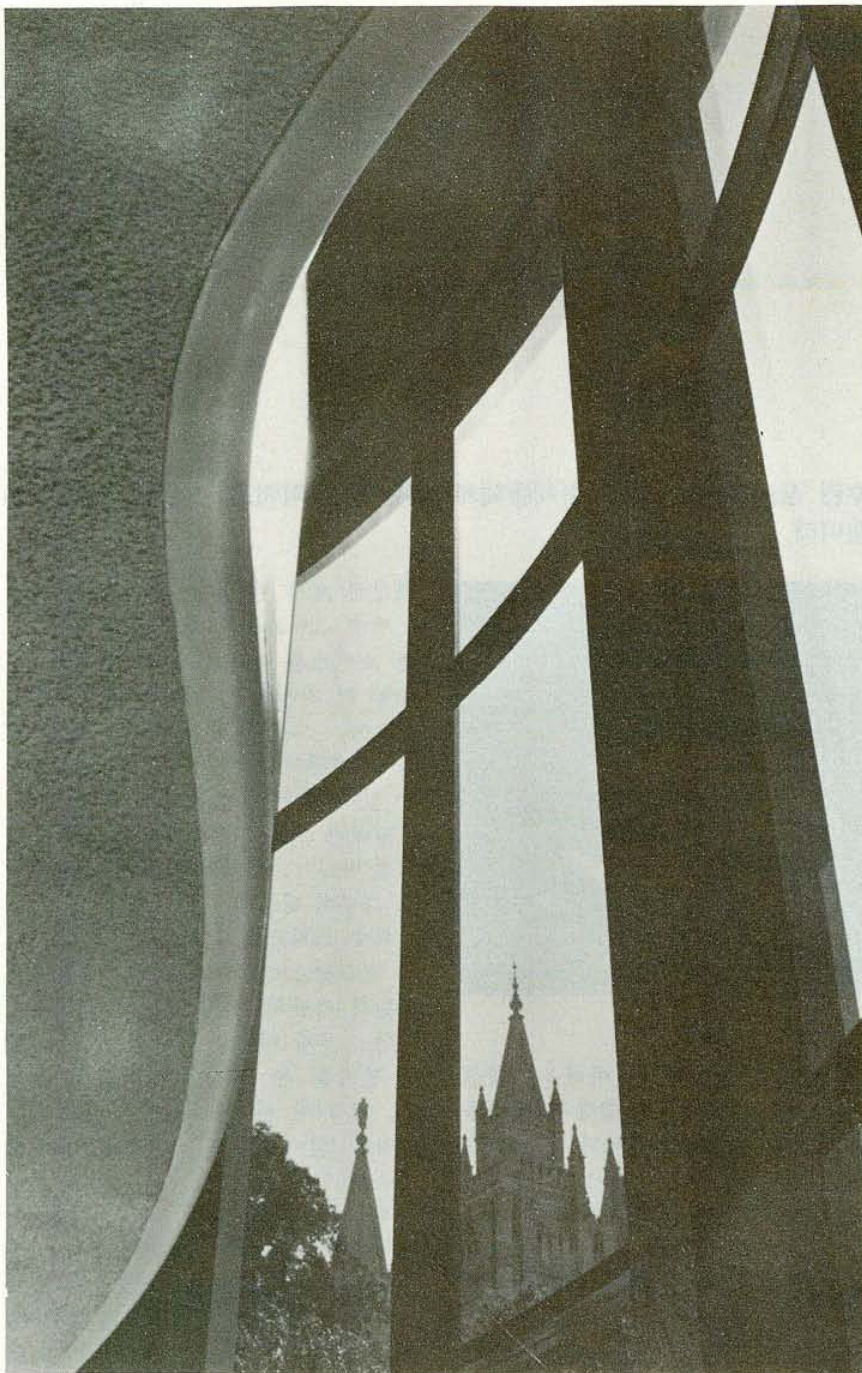
세상에 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되었으며, 오늘날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으며, 그분이 곧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이시라는 사실을 간증드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갖고 그분의 권고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절정의 시대에 세워졌으며, 두 가지의 목적으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다시 세워졌읍니다. 첫째 이유는 인류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요, 또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게 전파한다는 첫번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약 150 개의 선교부와 25,000 명의 선교사로 선교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수많은 스테이크 선교사와 지방부 선교사를 비롯하여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회의 발전은 박차를 더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완전케 하는 것에 관하여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마 5: 48참조).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같이 권고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고 성역을 베푸시는 천사와도 머물 수 없도다. 그러므로 너



방문자 센터 현관 창문을 통해서 본 솔트레이크 신전탑

회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참
고 견디라.”(교성 67 : 13)

성도를 완전케 한다는 두 번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회원들에게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케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이 현재 완전케 이르게 하는 교회 활동에 활동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방법으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멘기세택 신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비활동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같이 장차 지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지도자를 가리켜 수련 장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형제들을 활동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걸음의 폭을 넓히라는 목표를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활동과 무관심의 주기가 아버지 대에서 아들 대로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동시에 두 가지 점에서 이 주기를 깨뜨려야 합니다. 아론 신권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주어 신앙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며 선교사로 나가고 신전에서 결혼할 수 있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가장되시는 분들과 수련 장로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멘기세택 신권 정원회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청소년 소녀들의 아버지되시는 수련 장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걸음의 폭을 넓히자” 십이사도 지역 대표 세미나, 1974년 10월 3일)

이 커다란 목표는 신권 정원회에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부여된 목표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들이 비활동화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그들이 교회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축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가 되었어도 장로 직분에 성임되지 못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 제언과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아론 신권 프로그램과 보조 조직 프로그램이 이들 청소년을 훈련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부모, 가족 그리고 우리들 모두도 그들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력을 줍니다.

부모의 산 모범은 자녀들에게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흡수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 : 6).

최근에 나는 9살짜리 아들을 둔 어느 스테이크 부장의 집에 유하였읍니다. 그 소년의 침실에서 자려고 할 때 나는 소년의 책상 위에 조그마한 저금통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그 저금통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하나는 십일조, 하나는 선교사

기금, 하나는 용돈을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에게 선교사로 나가겠느냐고 묻자 소년은 “그래서 저축을 하고 있는걸요”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하고 있는 이 소년은 분명코 장로직에 성임되어 선교사로 나가기에 합당한 자로 성장할 것을 확신합니다.

어느 주말에 또 다른 스테이크 부장의 집에서 역시 아들의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 방의 벽에는 교회의 모든 신전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선교사 준비는 물론 신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우에게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몇 주일 전, 어느 예비 선교사와 접전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왜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까?”라는 나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남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정신입니까!

이제 아직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여 수련 장로라고 불리우고 있는 수많은 훌륭한 형제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크 부장, 감독, 고등 평의원, 정원회 지도자, 기타 다른 지도자들 중에는 한때 비활동 회원으로 수련 장로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다시 완전히 향하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개심에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중요한 이유를 말해 주는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활동 축진을 통하여 활동회원이 된 장로 한 사람은 금식 간증회에서 첫 아기로 인하여 그의 가정이 변화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이 어린 영혼의 일생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게 되자, 저는 제가 되고자 원하는 아빠가 되려면 지금까지 소홀히 여겨 왔던 신권을 존중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근에 나는 과거에 수련 장로였던 사람으로부터 장로 정원회 회장이 그에게 장로 정원회 회장단 보조 서기로 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음으로써 변

화된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임무를 받아들여야 할지에 관하여 1주일을 두고 생각하다가 마침내 받아들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그와 같이 결정했을 때 그의 생활에 온 변화에 몹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그들이 나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노년의 모임이나 복음 토론회 모임에서 수련 장로 그룹과 함께 일함으로써 절음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훌륭한 이들은 연령, 교육 수준, 취미 등등에 따라 그룹을 만들고 아내와 함께 그룹을 지어 줄 때 보다 속히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제사와 칠십인의 협조를 얻어 비슷한 연령층의 이들을 가르치고 그룹과의 우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장로 정원회에서는 신전 계획 그룹을 가르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이러한 신전 계획 그룹에 속하게 된 이웃 부부는 그 결과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수련 장로는 전에는 마지못해 응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가족을 신전으로 데려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가르치는 형제 자매들이 보이는 사랑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수련 장로가 비회원 여성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와드 선교 책임자와 합의하여, 스테이크 선교사나 복음 선교사로 하여금 비활동 회원 남편의 협조를 받아 비회원 아내에게 복음을 가르치도록 지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는 공부해야 하듯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선교 사업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활동부터 일지라도 수련 장로를 교회 활동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나는 매일 예배당에 국기를 게양하고 내리는 일, 또는 찬송가를 정돈하는 일, 정원회 역원을 돕는 일등의 임무를 맡아 행했던 수련 장로나 새로운 개종자로부터 듣는 보고를 기억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매우 기쁘게 행하였으며, 그와 같은 기

회를 매우 귀중한 경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최근에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수련 장로의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가는 것은 많은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께서 저의 집에 오셔서 ‘로저형제님, 다음 주 일요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두 쌍의 부부를 우리 집에 초대하여 복음을 토론했려고 합니다. 형제님과 자매님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말해 주셨던 저녁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초대하시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교회 활동으로 돌아오도록 부탁받은 최초의 부탁이었습니다. 그 노년의 모임에서 저와 아내는 전에 결코 이해하지 못하였던 복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오랫동안 가져 보지 못했던 영적인 느낌을 다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 기도를 갖기 시작하자 우리 가정에도 특별한 영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곧 저는 복음에 대하여 알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었으며, 직장에 가고 오는 길에서 경전을 읽고 심지어는 점심 시간에도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와 아내가 신전에 갔을 때 기쁨을 느꼈다고 썼습니다. 신전에서 그들과 자녀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세 아들을 선교사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활동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권과 복음의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기 완전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화평과 행복과 기쁨과 함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세주와 같이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가 완전히 향하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오만, 유행, 허영, 부귀, 권세 등에 이끌리려는 마음을 억제하도록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역경에 처하여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구세주의 일생은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큰 위안과 교훈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침례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지나면서 바야흐로 시작하려는 성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성취될 가장 위대한 사업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영이 주는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 광야에 머무는 40일 동안 금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 40 일간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굶주림과 신체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그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그가 성역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유혹자가 노리는 때는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나 신체적으로 지쳐있고 피곤하고, 약하여, 교활한 음모를 이겨 낼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가 참으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교묘한 꾀임에 빠져 들기 쉽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인간 신체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망인 식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이 인간의 기본 욕구인 식욕에 대한 유혹을 하는 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 여러 날 동안 한적한 곳에 계시면서 명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안, 구세주의 영은 고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고취되어 있었으므로 육체적인 식욕은 억제될 수 있었으나 육체의 욕구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단순히 예수께 먹으라고 유혹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사탄이, “이 광야로부터 나아가 떡방앗간에 가서 떡을 얻어 먹으라”고 했더라면 그것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금식을 마치시면서 음식을 잡수시려 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을 교묘한 방법 곧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의 신성한 권세를 이용하여 그를 잡수시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육체적인 만족을 채우기를 지체하거나 연기하지 않고 즉시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이에 사탄은 그의 두 번째 시험을 시도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도록 유혹했으나 예수는 자신을 아버지의 뜻이나 영에 전적으로 맡겨 버렸으므로 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깨닫고 사탄은 또 다시 예수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방자하게 몸을 맡겨 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많은 건물과 사람들을 내려다 보게 하였습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마 4:6, 시편 91:11-12 참조).

이것도 인간의 또 다른 면에서의 욕구를 이용하는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유혹은 놀라운 묘기를 보이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아연해질 정도로 놀라운 묘기의 유혹이었습니다. 까마득하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전혀 다치지 않고 뛰어내리는 일은 대단한 묘기가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초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명성은 유대 전역에 삽시간에 퍼지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메시야가 오셨다고 믿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이 기적을 낳는 법이지, 기적이 신앙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시 경전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마 4:7, 신 6:16 참조) 사탄의 목적이 또 한번 좌절되었고 그리스도는 또 다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혹에서 사탄은 온갖 교묘한 방법과 경전과 기만과 가증함을 내던지고 이번에는 솔직하고 과감한 제언을 하였습니다. 마귀는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에게 천하 만

국과 그 영광 즉 많은 도시와 평야와 가축들과 모든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사탄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곧, 마을의 목수로서 가난하게 생활하는 그에게 주겠노라고 제의하였습니다.

그 앞에 놓인 부귀, 영광, 지상의 영화를 가리키면서 사탄은 예수께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만일 내게 오히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 4:9) 이 마지막 제의에서 사탄은 그의 거짓되고 근본적인 제안에 의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제한으로 사탄은 천군의 삼분지 일이 그를 따르게 하였으며 지금까지 지상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비참한 영향을 미치게 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제안은 돈으로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으며 결국 물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아버지께 충실하고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킬진대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요 17:3)을 상속으로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다른 자녀도 이렇게 할진대 그와 똑같은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현세와 영원한 세상의 축복을 잃는 가장 확실한 길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후에 다음과 같이 설파한 자가 바로 예수였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막 8:36-37)

예수께서는 위엄과 권세로써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이에 패배 당한 사탄은 물러가버렸습니다. 누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눅 4:13) 마귀는 이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마 4:11)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시험과 시험을 이겨낼 때 평안이 것들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

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한 ‘만일’이라는 단어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의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마 4:6) 이러한 말은 삼년 후에 있을 마지막 시험 곧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마 27:40)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때가 오면 모든 자가 자기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며 모든 허가 고백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시험 역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 특히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앞에는 승리의 빛이 분명하였으며, 루시퍼의 운명은 압당과 비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담

대하고 비웃는 듯이 시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호소하는 듯이 약하고 절망적이었다가 결국은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요? 사탄은 예수에게서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서도 실패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 없이 시험하고 조롱하면서 우리의 충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로부터 힘을 얻어 이 싸움에 이겨야 하겠습니까.

예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었고, 사탄에게 굴복할 수도 있었으며, 생명과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도 있었으나 그는 끝까지 진실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굴할

방문자 센터 창문을 통해 본 태버나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면 참된 의미의 시험이 될 수도 없고,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자신의 자유의지 역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수호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그 분이십니다. 만일 그가 하고자 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히 5:8)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예수는 완전하시고 죄없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와 같이 되고자 하여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혹을 받으셨으나 개의치 아니하셨고”(교성 20:22)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유혹이 만연한 세계, 아마도 노아 시대 이후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유혹이

숨막힐 듯이 엄습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충실하게 유혹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회원은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하여 맥케이 대관장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분류해 봅시다. 그러면 비록 작은 시험일지라도 우리를 더럽히려는 모든 시험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 식욕, (2)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오만, 유행, 허영 등에 대한 굴복, (3) 감정의 만족 즉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탐하는 것, 이상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시험은 사교 모임에서, 결혼식에서, 정치에서, 사업 관계에서, 농장에서, 상거래에서, 모든 인생사에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홍익한 세력을 어느 곳에서나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양심에 이와 같은 세력이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회 보고, 1911년 10월, 59페이지)

강한 신앙과 기도와 겸손함과 영원한 세계로부터 나오는 힘을 지닐 때, 우리는 유혹이 만연한 이 세계에서 홀로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시편 23편 4-6절)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가장과 아들을 위한 신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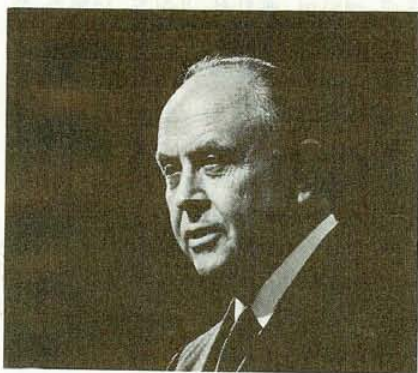


영원한 가족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교회에서의 우정 증진을 할 가족을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교회 회원에게 주는 권고



오늘 태너 부대관장님께서 발표하시고 여러분께서 지지하신 교회 조직상의 변경에서 본인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의 교회의 모든 일을 지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지상의 방방곡곡에 전파하기 위하여 대관장단이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거나 때때로 그분들과 함께 계획할 때, 나 자신이 영적으로 고취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업은 성공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왔고 지금도 그의 뜻을 행하느니라.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교성 19: 24, 23)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그의 거룩한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아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교성 20: 25 참조) 오늘날 교회는 모든 인류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원한 성약이 세워졌으며, 그것이 그의 백성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의 앞에 서는 사자가 될 것입니다. (교성 45: 2, 9 참조) 지상에 사는 주민은 하나님의 왕국이 오리라는 복음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 (우리들을 의미함)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산에서나 모든 높은 곳에서나 또 만나기로 허락될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라”

“...회개와...침례에 의한 죄 사함을 선포하라” (교성 19: 29, 31)

침례는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들어가야 할 관문입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게 될 가정의 밤 교재의 첫과는 매우 영적인 공과입니다. 그 공과의 제목은 “영원한 가족”으로, 가족은 책상 위에 결혼 증서, 신전 추천서, 신전 사진, 침례 증서 등을 올려 놓고, 그와 같은 것들과 가족과의 관계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책상 위에 놓인 이러한 것들이 모두 신전 결혼과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기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책상 위에 놓일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침례 증서 한 가지를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는 침례 증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신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여야 하

고, 영원한 결혼을 했다는 증서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침례를 받는다면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현재 복음 선교사들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많은 영혼을 물의 침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의 열성적인 협조가 따를 때 그들의 성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회원이 친구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교회의 성장이나 선교 사업의 성공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말하지마는 결코 친구나 이웃과 우정 증진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귀환하는 선교부장에게 “형제님의 선교부에서는 어떻게 했을 때 좀더 많은 개종자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원들이 좀더 그들의 친구나 이웃을 선교사들에게 소개해 주었다면 더 많은 개종자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잊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경고하게 하노니,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느니라.” (교성 88: 81)

“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장로, 제사, 교사, 그리고 회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힘을 다하여...내가 명한 일을 준비하며 완수하라.

“이웃 각 사람에게 전하는 너희 말은 온유하고 겸허한 경고의 말이 되게 하라.” (교성 38: 40—41)

선교사로 봉사하는 여러분의 자녀는 복음을 조리있고 영적인 감흥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서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선교사에게는 일 순간이 귀중합니다. 시간을 생산적인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할 때, 1,000 가정에 한 사람 비율로 침례를 주게 된다는 회원의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경우는 1,000 명에 600 명 비율로 침례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회원이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선교 사업에 협조해

줄 때 600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여러분의 와드와 지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보다 잘 훈련받고 준비되었으며, 보다 높은 희망이나 포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모든 가족은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에 오르도록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우리는 얼마나 높이 오를지 전혀 모른다/우리가 계획에 따라 충실히 살 때/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다. (인용집 존 바트렛, 보스턴: 리틀 브라운 앤드 컴퍼니, 1968년, 737페이지)

선교사에게 이웃을 가르치도록 소개해 주기를 꺼려하는 자는 자신의 품성 한 축복을 거절하는 자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광장님의 권고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킴블 대광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모든 사람은 선교사]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전에도 이것에 대하여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깨에 총을 메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안목을 바꾸고 목표들을 높여야 할 줄로 압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블, “세상이 돌이킬 때” 지역 대표 세미나, 1974년 4월 4일)

예언자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들이 행한 행위 곧 시련의 날에 육신을 입고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임에,”(니일 15:32)

몇 주일 전 비행기 속에서 나의 친구 한 사람은 한 부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친구는 그 부인에게 자기는 조상에 대해서 알기 위해 팔촌을 찾아 남 캐롤라이나, 앤더슨으로 여행하는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왜 오래 전에 돌아가신 선조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니까?”

“예 알고 싶어요”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신전에서 어떤 의식을 행하여 드리고 싶어서 선조들

에 관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그가 어디에 계셨는지 아십니까?”

“아뇨. 어디에 계셨나요?”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노아 시대의 불신앙에 빠졌던 자들이 갇혀 있는 영옥에서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습니다. “영옥에 갇힌 사람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도 구세주께서 사흘 동안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라고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다음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고전 15:29)

“부인께서 결혼하셨을 때 ‘죽음이 그대를 가를 때까지’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겠지요? 부인의 결혼 계약은 부인이나 남편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끝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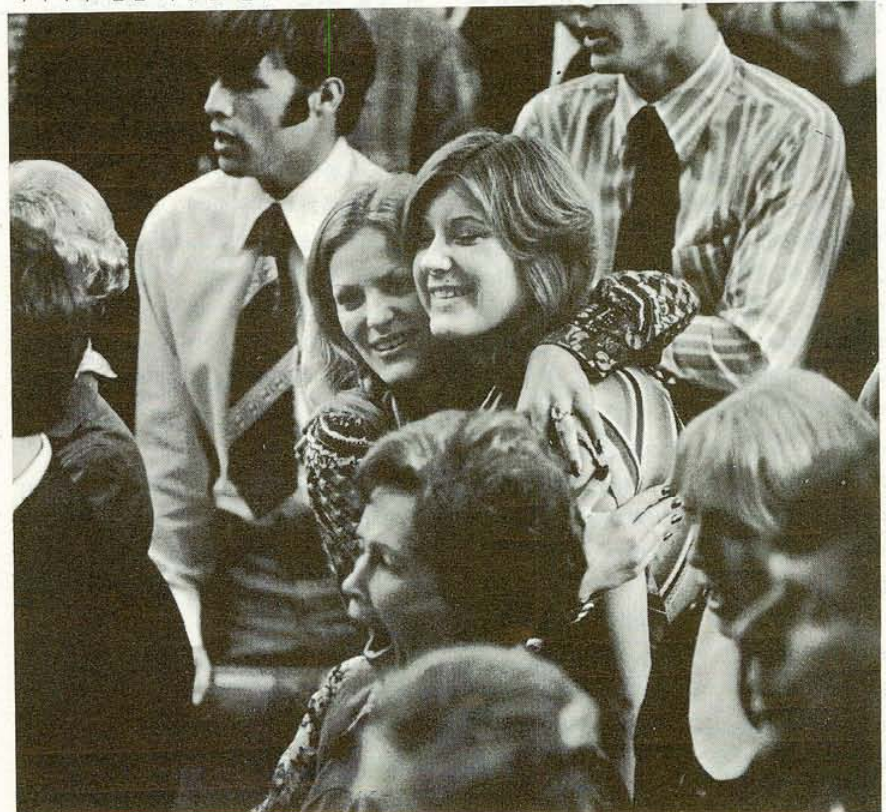
“그런 셈이죠. 현재 저는 여지껏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내 아내는 지난 달 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는 영원히 내 아내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행한 것을 하늘에서 뱌 수 있는 신권 권능을 소유한 사람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자녀들도 영원히 우리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륙하기 바로 전에 그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만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부인도 복음에 대하여 배워서 부인도 남편과 자녀와 또 먼저 가신 이들과 함께 인봉되어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곧 그는 리그랜드 리처즈 장로의 기이한 업적을 그 부인의 가족에게 보내면서 그의 명함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 부인은 결국 펜실베이니아주의 그녀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수고하는 자매 선교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부인을 처

대회에서 만난 다정한 친구



음 방문한 다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테비스 부인은 참으로 기쁨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났을 때 그 부인의 눈은 광채로 빛났습니다. 커밍스 형제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이 내세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확신과 간증과 함께 아주 비옥한 땅에 씨앗을 뿌리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서 우리는 매우 흐뭇했습니다. 이 가족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침례 증서, 신전 추천서, 결혼 증서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먼저 여러분의 친지나 이웃은 침례 증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커밍스 형제가 비행기 안에서 부인에게 한 이야기는 이 침례 증서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는 오늘이 경고하는 날이요, 많은 말을 하는 날임이니라. 또한 나 주는 마지막 날에 우롱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교성 63:58)

“또 너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산에서...공포하라.

“너는 나를 신뢰하며...지극히 겸손하게 전파하라”(교성 19:29-30)

지난 1월 선교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오하이오 스테이크에서는 “물문을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은?”이라는 제목의 지혜의 말씀에 관한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친지와 이웃을 초대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한 사람은 이웃이 분명히 거절하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알면서도 그는 이웃이 자기의 제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미루어 나갔습니다.

그는 다소 난처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이 의무를 미루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이웃이 자기의 말과 자기의 요청을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 8살된 딸의 손을 잡고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이웃집에서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이 가족에게 그는 세



이번 대회에서 지지된 네 명의 신임 총판리 직원 중 세 분. 좌, 딘 엘라스 장로, 중, 로버트 이 웰즈 장로, 우, 제이 리처드 클라크 판리 감독 제2보좌, 신임 총판리 직원인 로이든 지 데릭 장로는 아일랜드 더블린 선교부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계적인 지도자이시며 하나님의 예언자이신 분의 말씀을 들으려 와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그 가족은 쾌히 승락하였습니다.

이에 힘을 입어 그는 다른 이웃, 친지, 딸 아이의 피아노 선생님, 그밖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새로 갖게 된 용기로써 보다 쉽고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초대에 사십여 명이 응해 주었습니다. 이들을 모임에 초대하기 위하여 버스 한 대를 빌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초대한 첫 번째 이웃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교회 회원이 되어 “영원한 가족”으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침례받기 전에 이 고등 평의원은 이러한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만일 내가 그때 복음을 나누기를 주저하였다면 이 훌륭한 가족이 결코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을 느낍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이 이와 같은 경험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 이웃이 교회에 관하여 알고 싶어했는지 아십니까? 이웃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다른 가족이 와서 교회에 가자고 청했다면 아마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님의 가족에게서 늘 크게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제님의 가족은 항상 정결하고, 행동이 올바르고 항상 친절하고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이른 아침부터 형제님은 마당을 쓸고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형제님과 교회에 대하여 좀더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침례를 받아야 함이니...”

“나는 너희 손을 빌어 인간의 자녀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여 저희의 많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며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오게 하리라”(교성 18:42, 44)

가족과 힘을 합하여, 기도으로써 성공을 간구하고, 우정 증진 활동의 대상 가족을 선택하십시오. 적합하다고 느끼는 활동은 무엇이든지 행하신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금식하십시오. 그리할진대, 여러분의 경고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때는 거두워 들이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웃이 물의 침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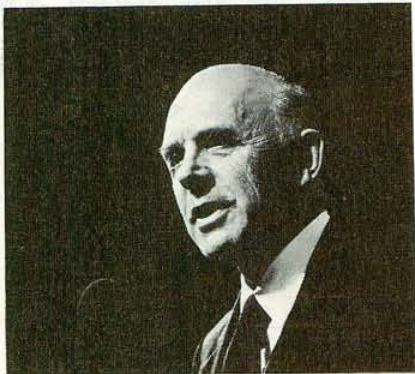
여러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말했든가는 잊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느낌을 느끼게 하였는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은 영원한 관계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증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선교 사업

에이 디어도어 터틀 장로

칠십인 제일 평의회

경제적인 곤란으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없는, 능력있는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라는 권고의 말씀



칠십인 제일 평의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부름을 주신 대관장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받은 이 부름을 나의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대관장님께서 과거에 남미 지역을 관리하셨습니다. 그 지역을 여행할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사랑을 킴벌 대관장님께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대관장님, 저는, 그들의 “살루도스 이 그랑 아모르”라는 인사를 전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지역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대관장님의 권고에 따라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치 못한 기금, 어려운 생활고, 자원의 부족, 악성 인플레이션 등으로 심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을 얻을 수는 있으나 급료가 적습니다. 가족

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청년의 경우라면 스스로 충분한 자금을 벌게 될 때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으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 책임자를 잃게 된다는 것은 가족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크나큰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 중에서 혼자만 교회 회원으로서 부모의 후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들을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돕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교회가 뿌리를 박은 지 얼마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있는 여덟 개 선교부 중에서 다섯 개 선교부가 12년이 아직 되지 않은 선교부이며, 나머지 세 개의 선교부도 아직 20년을 넘지 못한 선교부로서 최근에 와서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상, 최근에 교회에 입교한 가족에게는 교회는 새로운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직 말일성도의 전통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선교 사업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래에는 이들도 보다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가족이 재정적인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지는 않는 것이 교회의 정책입니다. 막

대한 희생을 치루어도 겨우 선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만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문자 그대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불붙는 결의를 지도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간증면에서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언어 면에서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은 참으로 큼니다.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고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관장단이 교회 선교사 기금을 제정하신 사실을 여러분은 물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이 기금은 점차로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단에서 공공연하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금을 기부하라고 부탁하지는 않겠으나, 선교사 기금으로 우송해 보내 주시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교사 기금을 마련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내가 아는 청년 몇 사람에게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이러한 청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줄로 압니다. 어느 어머니가 선교부장에게 찾아 와서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어떻게 제 아들을 선교사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그 애는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불행히도 애 아버지의 수입으로는 집안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가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수입은 형편없는데 아이들은 8남매나 되기 때문에 하루에 겨우 두끼로 연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선교 사업을 몹시 하고 싶어 해요. 저희가 생활비를 줄이고 줄이면 한 달에 겨우 몇 푼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애가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대도시 근교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양철로 적당히 맞추어 지어진 조그마한 가게 겸 살림집인 이 집에는 전기도 수도도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가족과 함께 의논한 후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등록하였으며, 그 청년은 학구열이 대단했습니

다. 피나는 노력 끝에 그는 대학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는 책을 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욕망에 불타서 그는 전보다 배로 일했습니다. 그는 한 팔에는 책을 들고 한 손에는 걸레, 왁스, 스폰지 등이 담긴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수업 중 휴식 시간에는 밖에 나가 자동차를 세차해 주고는 또 수업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수입은 점차로 증가해서 결국 선교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기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이밖에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경우는 우리에게 순종과 희생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선교 사업을 몹시 하고 싶어 하던 한 자매는 과자를 만들어 학교 점심 시간에 팔라는 제언을 듣고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점차 그녀는 매일 더 많은 밀가루를 사

서 더 많은 과자를 만들게 되었고 매일 매일 소액의 돈을 저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이와 같은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풍요로움을 나누어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이 이 년간의 봉사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수천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할 때 여러분은 이 약속받은 자녀들에게 “양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같이 질문하였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

리요”(롬 10:14-15) 오늘날 물질적으로 충분한 수단이 없이 어찌 그들이 보내심을 받겠느냐고 나는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물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권고하셨다는 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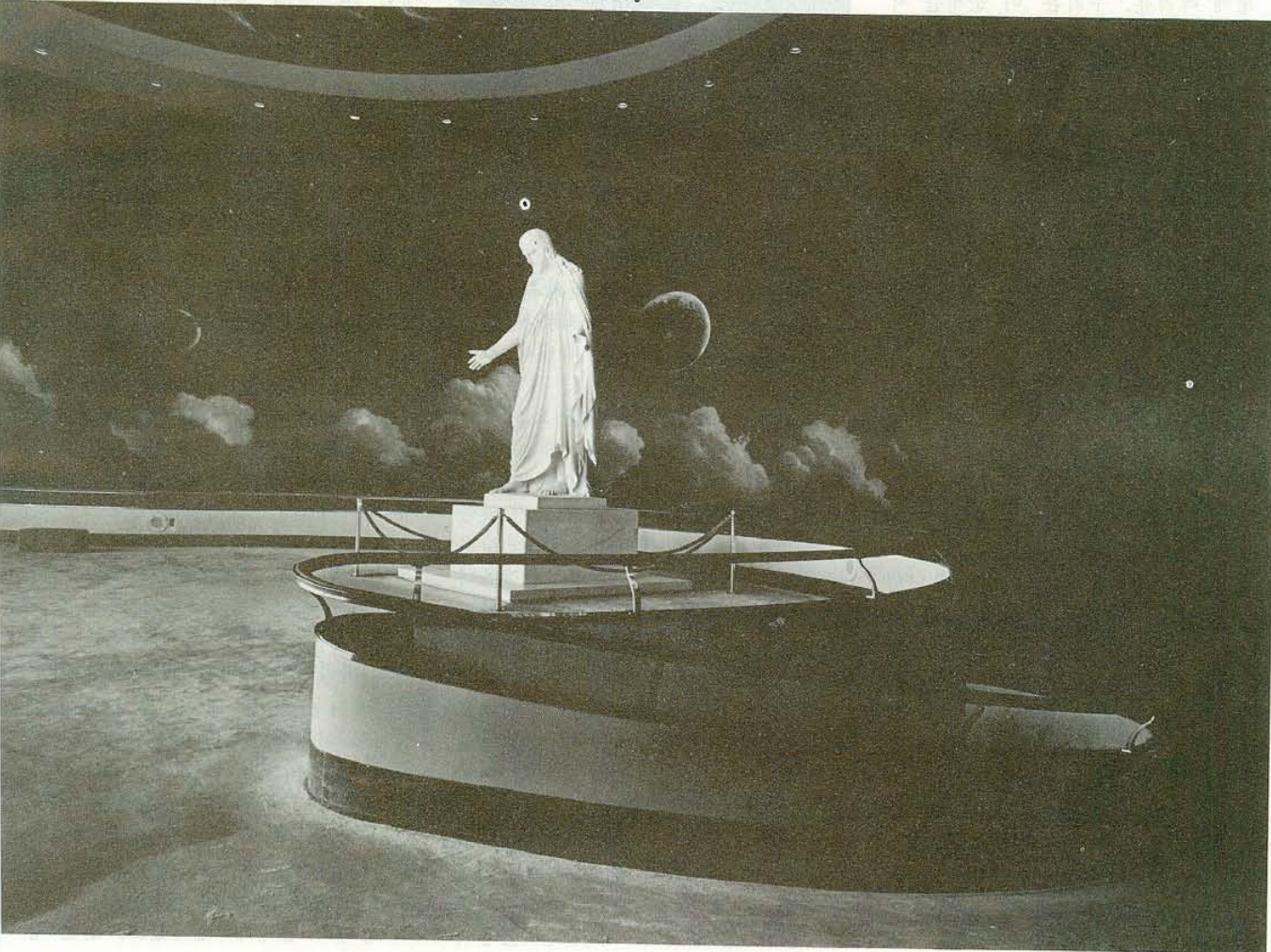
야곱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너희 형제 생각하기를 네 몸같이 하며, 만민에게 친절하며, 너희 재물을 값 없이 나누어 저들로 너희같이 부하게 하되,

“너희는 세상의 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라야 너희가 구하는 바 부를 얻을 것이요,혈뱃은 자를 입히며

베르델 투어발손이 조각한 템플 스퀘어 방문자 센터의 그리스도상



굶주린 자를 먹이며 구속된 자를 놓아 주며, 병들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살려 구제하게 되리라”(야곱서 2:17-19)

엘마가 설명한 니파이인과 같이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변영하면서 험벗고 굶주리며 혹은 목마르고 혹은 병들고 또 잘 먹지 못한 자들은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험된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아니 하였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들이 늙었거나 젊었거나, 속박된 사람이거나, 자유로운 사람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교회에 속한 사람이거나 속하지 않은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조금도 치우침 없이 가져 나누어 주었느니라.”(엘마서 1:30)

오늘날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또다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네 자신의 재산을 탐하지 말고...아낌 없이 내어 놓으라”(교성 19:26)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까지 너무도 소홀히 다루어 왔습니다. 우리는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의 도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타인을 위한 봉사의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업을 돕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재산을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 기금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지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을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과 서로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교성 59:2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죄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개는 인생의 길고도 암담한 여로의 끝인 절망의 구렁텅이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어 줍니다.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제일 평의회와 십이사도 정원회를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며, 우리에게 맡겨지는 모든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나는 복음이 우리를 보호해 주며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의 복음 원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는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다. 그녀는 참으로 오랜 암흑의 여정을 간 후에 결국 도덕적인 범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회개에 따르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참다운 회개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개인 경험을 나눔으로써 다른 여성들도 자기와 같은 길을 밟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공개하도록 부탁하였습다.

다. 그녀의 편지를 발췌하여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기 위하여 집을 떠났을 때부터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부모님의 의로운 보호 밑에서만 자라왔던 저는 저의 친구들의 부패한 도덕관에 말려들지는 않았습다.

“아마 저의 부모님이 제게 심어 주셨던 신앙의 감옥에 첫 번째 구멍이 뚫어졌던 것은 ‘훌륭한 귀한 선교사’라고 해서 모두가 반드시 선량하지는 않으며 그들도 페팅이나 네킹을 한다는 낭설을 듣게 된 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점차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관계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사귀는 사람과 보다 가까운 관계를 갖게 해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참으로 교활합니다. 사탄은 나를 의로운 생활 태도에서 멀어지게 하여 점점 큰 죄를 짓도록 이끌어 가다가 결국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날 수 없게 하더군요.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점점 진리로 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도덕적 기준이 해이해지게 되어 술과 담배를 하는 비활동 회원 친구와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결코 가보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 저는 그 친구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교회에 발길을 끊었고, 기도조차도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항상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갑자기 떨어졌고, 같은 방

친구하고도 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만 있었습니
다.

“이제는 교회나 교회가 가르치는 모
든 것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었어요. 저
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
다. 정말 저는 ‘키없는 배’와도 같았
지요.

“저는 아무 곳에서나 안정감과 보호
감 비슷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너무도 먼 곳에 떨어져 계셨
어요. 그러나 그토록 먼 곳에 계시면
서도 저의 심중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눈치채시고는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역시 비활동 회원인 청
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죠. 그
때 쯤에 저는 어떤 사람을 진실로 사
랑한다면 사랑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
했었지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했고,

성스러운 몸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청년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저나
아기에게 전혀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낙태 비용을 대
주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기절
을 했어요.

“처음에는 낙태는 하고 싶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서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두 주간
에 걸쳐 혼자 깊이 생각하다가 결국
낙태시키기로 결정하고는 낙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후 얼마 안되어 저는 아주 훌륭
한 청년을 만나 결혼할 수 있는 행운
을 얻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활동하
지는 않는 분이였으나, 과거나 지금이
나 변함없이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정
직하며, 성품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다시 활동하
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 그 목표에
따라 노력하고 생활하였습니다.

“몇달 전, 저는 저의 워드 감독님을
찾아 가 제가 저질렀던 무서운 죄를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죄가 주님 앞에서 너무도 끔찍스럽고
무서운 죄였기 때문에 회원 자격 정지
나 파문을 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
면서 저는 죄를 고백하기로 결정하였
습니다. 때가 와서 저의 생명이 주님
의 손에 놓이게 될 때 저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져 심판의 날에 흠없이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저는 역시 알
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일요일 오후에 감독님과
접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감독님께
서는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저의
무서운 고백을 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접견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
절히 기도했습니다. 감독님은 무척 친
절한 분이셨어요. 감독님께서서는 용기
를 갖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하
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는 저의
범법에 대해서 단지 언급하는 정도로
가볍게 지나치려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게 할 수가 없더군요! 목구멍과 가슴
에서 무엇인가가 억누르는 것 같아
결코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구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아버
지의 영은 저로 하여금 완전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분명
히 저는 성령이 저로 하여금 진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간
증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는 우리 자신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조차도 저의 죄를 인정하기 어렵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독님이 이
를 받아들이기란 더욱 어려웠겠지
요. 그 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기 조
차도 싫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자 감독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제언해 주셨으며, 제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
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를 알
려 주셨습니다. 감독님께서서는 자기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주님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강
조해 주셨습니다. 감독님은 제가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께서는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과,

템플 스페어를 돌아본 후 안내자와 면담을 하는 방문자



저 자신에 대하여 경멸하고 자학함으로써 영원한 발전을 막지 말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지라는 희망을 일깨워 주려 하셨습니다. 제게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용서가 남는 기적을 읽어 보라고 권해 주셨습니다. 그 책은 저에게 참다운 회개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독님과 저는 여러 차례 접견을 가지면서 교회에서 훌륭한 위치를 다시 이룩할 수 있게 도와 주셨습니다.

“감독님과 접견을 가지면서 저는 제가 정말 용서를 받아 화평한 마음 가짐을 갖게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좌절감으로부터 헤어나오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요

하는 것입니다.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께 가까와졌습니다. 제가 더욱 더 노력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저를 용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굽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에 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 멈추어서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세상적인 도덕 기준으로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도덕 기준은 사탄의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그러한 것에는 영원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사

탄은 우리를 영원한 가족의 유대로부터 이탈시키려 유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입니다. 이 성스러운 생득권을 성실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비탄과 고뇌에 찬 생의 여로를 밟았던 저의 전철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두고 후회할 일을 결코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생을 행복으로 이끄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의로운 자로서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부터 나와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한 젊은 부인의 실화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길고 어두운 여로를 걷고 있을 때, 아무리 깊은 계곡이나 아무리 어두운 동굴도 우리를 숨겨 주지는 못한다고 킴볼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길고도 어두운 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으며, 혹 우리가 지금 어두운 여로의 마지막에 와 있다 하더라도 회개의 복음 원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단계가 경전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잘못을 인정합니다.
2. 우리가 일단 회개한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님과 굳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 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성 58:43)
3. 복음의 모든 면에서 전보다 더 훌륭한 삶을 영위할 것을 자신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4. 범한 잘못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ㄱ.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 ㄴ. 성임된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이며 와드 관리 대제사이신 감독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 ㄷ. 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과합니다.
5. 회개의 정도는 범한 죄의 정도와 같이 깊어야 합니다.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씻어 줍니다.
6. 회개와 보상의 다음 요소는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에서 온 테니스 실바와 그의 딸 멜러니가 다음 모임을 기다리며 쉬고 있다.



제방과 흐르는 물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7. 새로운 생활을 하겠노라고 자신에게 약속했던 바를 실천한다는 것을 오랜 시간을 두고 자기 자신과 주님과 동료에게 증명하여야 합니다.

8. 오랜 시간을 두고 경전을 공부하고, 우리가 배운 계명에 따라 생활하여 행복과 즐거움에 가득찬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7.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전혀 감정을 갖지 않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마지막으로 오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용서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절망과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자신과 온 인류에 대한 사랑, 즐거움, 소망으로써 앞날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 하느니라”(교성 58 : 42)

“그러나 이 일을 배울지니, 곧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교성 59 : 23)

간증을 드리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둡고 긴 인생의 여로를 걷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회원이든 회원이 아니든 회개의 복음 원리는 우리를 절망의 심연에서 신적내 줄 수 있고, 우리의 여행이 길고 어두울지언정 이것은 이 세상에서 화평을,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을 가져다 줄 힘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이 복음 원리는 회개와 침례를 통하여 죄 사유함을 받은 비회원이나 그들의 죄를 회개한 회원이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릇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을 주님께 헌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용감하게 생활하고 끝까지 전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말씀하신 물을 끊임없이 마신다면 우리의 힘은 쇠하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칠십인 평의회원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성스러운 모임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지지합니다.

아내와 나는 다시 고향에 돌아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유럽 지역을 축복하셔서 지난 두 주 동안에 독일에 세계의 스테이크가 새로이 조직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 연방 공화국과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미국 독립 200주년을 축하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곳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개인을 존중해 온 고귀한 자유의 원리와 위엄에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여러 국가의 국민적인 감정은 이 나라에서 대사로서 그 임무를 탁월하게 근 20여 년 동안 수행한 카를로스 로물로 장군이 우리 나라를 떠나면서 한 말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이 곳을 떠나면서 남기고 싶은 말은 찬사도 되고 경고도 됩니다. 미국인들이여 여러분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 적극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도 여러 공장과 높은 건물과 병기 창고를 보고 경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그 역사를 시작했으며 개개인에게 신의 섭광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다른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 없는 나라가 되게 한 것은 인간의 위엄을 존중해 온 때문인 것입니다.”

나 역시 이와 같이 미국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건이나 물질이 안전과 힘과 사랑하는 우리 국가의 자유의 실재와 원천이 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거룩한 영감을 받으신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과 그 외의 몇몇 총관리 역원이 유럽의 다섯 지역에서 지역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지역 대회는 우리에게 간증을 더하게 하고 영감을 부여 주는 참으로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취되었고 풍족한 영의 양식을 섭취하였으며 그와같이 간증이 크게 된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암스테르담에 함께 체류하면서 몇몇 회원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 나라에서 유익하게 볼 수 있는 것, 즉 제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네델란드의 많은 지역이 수면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제방을 쌓고 제방 안의 물을 펌프로 퍼내어, 네델란드는 문자 그대로 바다에서 생겨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잔 바닷물을 퍼낸 뒤 그곳을 기름지고 고귀한 땅으로 만드는 데는 700년이 넘는 긴 세월이 걸렸으며, 그 투쟁은 조금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제방, 즉 바다의 벽은 그 높이가 60피트나 되며 두께는 자동차가 지나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독의 안쪽은 대개 경사가 져 있으며 잔디가 덮혀 있습니다. 경사진 제방은 푸른 풀밭으로 연결됩니다. 제방 위에서는 웅기종기 모여 있는 집들의 굴뚝을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제방의 바깥 쪽에는 바다의 물고기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새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헤엄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화제는 안전에 관한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모두들 인간이 영적인 면에서 본능적으로 바라고 구하고 열심히 찾는 안정을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큼 높고 넓고 깊고 튼튼한 제방은 어느 곳에도 없다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1953년 2월 9일자 “타임”지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 새벽 4시에 교회의 종소리와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네델란드 사람들은 잠에서 깨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파도는 마치 불도저와도 같이 밀려 들어와 역사적인 제방을 70여 군데나 무너뜨리고 수백 년간에 걸쳐 바닷물을 퍼내어 만든 화란인의 전 유물을 다시 바다로 돌려 달라는 듯했다. ...북쪽으로는 홍수가 30피트나 되는 높이로 물려왔다. ...불과 수 시간 내에 백만의 네델란드인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전 영토의 6분의 1이 황폐해 지고 말았다.” 이 재난으로 그곳과 인근 국가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500명이 넘습니다.

바로 그 해에 테튼 계곡에 있는 아메리카 마운틴 웨스트와 빅 톰슨 리버 캐년에서 우리는 이 급작스럽고 비극적인 사태를 듣고 크게 놀랐으며, 인

간이란 기껏해야 순간적이며 덧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구는 인간이 만든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어떤 힘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파괴되고 위험하게 되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힘이란 지구에 있는 온갖 형태의 생활을 위협하는 무수한 요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협은 이곳에서 네델란드에든 이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산재해 있습니다.

제방을 경영하는 사람은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책이 평화와 행복을 다루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인류가 갖고 있는 정서적, 심리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으므로 결음의 폭을 넓혀 외롭고 굶주리고 심령이 메마른 사람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일을 급선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약 7년 전에 있었던 교통 사고로 허리 아랫부분이 불구가 된 잭 로버트슨이라는 한 미국인 청년의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나의 말슴의 요점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리조나주 스코즈데일에 있는 어느 국민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그는 영국 해협을 수영하여 건너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었으므로 힘과 인내력을 기르기 위해 어떠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매일 먼 거리를 수영하여 오가는 힘든 훈련을 2년간이나 계속했습니다. 하반신 불구의 몸으로 해협을 건너려고 시도해 보기는 이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해협을 건너 건너편 언덕에 이르기에는 거센 역류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더 먼 거리를 헤엄쳐 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영웅적으로 시도해 보고자 하는 날이 왔습니다. 잠수복과 오리발 그리고 산소통을 메고 그의 사촌인 톰과 돈 필라바움에 의해 도버에 있는 해변까지 실려와 그곳에서부터 헤엄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따라온 톰과 존은 매시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잭은 프랑스 해변까지 열 다섯 시간에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열 두 시간 동안은 무난히 헤엄쳐 갔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수에 내가 밀려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변은 눈 앞에 보였지만 상황이 바뀌고 말았습니

템플 스케이 방문자 센터의 정면 일부



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톰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탄서에 다 와 있는데도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몇 마일이 완전히 나를 지치게 하였으며 조수 때문에 나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힘은 그가 나아가야 할 길에 놓인 큰 장애를 극복하는 데 다 소비되었습니다.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에서)

생명은 투쟁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승영이나 승리와 성공은 결코 값싸게 얻어지거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조수가 우리를 분발케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니파이서 2장에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으면서 신앙과 이해와 용기를 간직해야 합니다. “법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합이 마땅하니”(나이 2:11)

나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유지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삶의 시련과 폭풍과 조수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도록 한 가지를 제언하고 싶습니다. 이 제언은 곧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인간이 것처럼 끊임없이 영양을 섭취하여 회복한다면, 어떻게 힘이 말라 없어지겠습니까? 생명이란 최대의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진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영적인 자아는 결코 허거나 병들거나 죽게 되어서는 안되며, 영양을 취하고 새로운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하며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나의 간증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것과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께서는 우리 구세주의 참된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언자요, 계시자요, 선견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완전은 우리의 목표

윌리엄 에이치 베넷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미덕은 각 계명을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은 다시 영생에 필요한 영혼의 미덕으로 연결됩니다.



축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느 시인의 짓궂고 나쁜 생각에 봅시다.

하늘은 한 번에 뛰어 오를 수 없네.

그러나 사다리를 만들어 오르면 땅에서부터 둥근 하늘 끝까지 오를 수 있지.

요시아 길버트 홀랜드, “개다툼”, 종교시의 걸작 중에서, 제임스 달튼 모리스 편, 뉴욕: 하퍼 앤드 브라더스, 1948년, 443페이지

구세주께서는 그의 위대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완전케 이르도록 노력하며 무엇보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라고 하셨습니다.

미덕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별로 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해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즉흥적인 기분으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면에서 완전해 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특별한 활동 분야에서 완전해 질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기회는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위대한 영생의

방금 읽어드린 시를 근거로 하여 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주일 전에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열 네 살된 나디아 코마네치라는 루마니아의 소녀가 네 번의 경기에서 모두 만점인 10점을 얻고, 또 다른 소녀 하나도 그렇게 한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육상 경기에 달리기, 높이 뛰기 등과 들어올리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수영과 다이빙 경기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신 분은 위대한 솜씨를 보신 것입니다. 선수들은 코우치와 트레이너의 도움으로 심신이 하나가 되어, 능력을 다해서 자신이 지닌 능력의 정점에 이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었을 것입니다. 단체 경기를 하는 선수들일 경우에는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릴레이 경

주 시에는 네 명이 한 조를 이루었습니다. 릴레이 경주의 의의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한 주자가 다른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 주는 데 있습니다. 네 사람이 가장 비슷하게 이것을 이루었을 때 대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태도와 지식과 기술에 크게 좌우됩니다. 타고난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수년 전에 상향회에서 실시한 “스스로 정직하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탁월한 운동 선수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영감적인 기록을 남겨 놓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러한 기록에는 미국의

뛰어난 봉고도 선수인 로버트 리차즈도 들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위대한 운동 선수가 지닌 특성은 욕망이라고 말하며, 1932년 올림픽 경기에서 만난 어느 화란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유명한 수영 선수가 되고 싶어 했으나 소아마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진보는 빠르지 않았으나 어느 날 결국 그녀는 수영장을 전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야말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후 수영장을 몇 번씩 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1932년 올림픽

에서 세계의 대 선수들을 물리치게 될 때까지 그녀는 매일매일을 수영장에서 붙어 살았습니다.

리차즈는 또 해롤드 코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 서부터 한 쪽 팔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한 팔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16파운드 투해머 선수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운동 선수는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이를 수 없는 별을 향하여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고 말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해내는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

대회 말씀을 경청하고 계신 대관장단 좌,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중,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우, 엔 엘돈 테너 부대관장



다. 이 불굴의 정신은 전쟁으로, 사고로 혹은 다른 원인으로 불구가 되어 그들에게는 성취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을 성취케 했습니다.

최근 뉴 이라지에는 유타주 니파이에 사는 어느 담대한 젊은 여성에 관한 기사가 실린 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교통 사고로 심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캐슬 클락, “햇빛이 비치는 동안 경기장을 만듭”, 뉴 이라, 1975년, 9월, 44-47 페이지 참조) 그것을 읽어 보시면,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의 한 면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이나, 우리의 생활의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 시인, 작가, 음악가, 기술자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좋은 예의 하나로는 우리의 자랑인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과 올겐 반주자와 “진리의 말씀”을 담당했던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와 더욱 최근의 스펜서 키나드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합창단원과 수년간 이 훌륭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도달할 수 없는 완전의 별에 도달했음을 느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이 생에서도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생에서 십일조를 바치고,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대하고, 개인 및 가족 기도를 드리고 술, 담배, 마약을 금하고, 가정의 밤을 가지며, 매일 경전을 읽는 일에 완전해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정말 원하지만 한다면 완전해 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완전해 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인생의 여행길에서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넘어지게 되면 1960년의 미국 올림픽 선수였던 클리프 쿠쉬만의 권고를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는 400미터 허들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1964년에는 금메달의 우수 후보로 뽑혔으나 국내 경기에서 장애물을 넘어뜨려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위로의 글이 쏟아져 들었습니다. 그는 고향인 노오드다코타 주의 그랜드 포크스에 있는 젊은이들



철심인 제일 정원회의 버나드 피 브룩뱅크 장로

에게 이런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15년 전에 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올림픽 경기에서 일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것을 얻기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에 나는 거의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곳까지 갔었습니다. 금년에 나는 탈락되어 4년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훈련과 고통과, 땀과 물집과 고뇌가 찰라와 같은 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노력했습니다. 나는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 보다는 정직하게 노력했음을 알고 실패하는 편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나는 내가 탈락한 사실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다시 일어서서 상처의 딱지를 떼어 버리고 한 발 한 발 성공을 향해 이어지는 긴 여정을 밟는 것 뿐입니다.

“난 어쩌면 다시는 올림픽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승산은 없습니 다만 나에게는 욕망과 신념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표에 미치지 못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얻을 수 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며 자유를 향유하고 있으며,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자동차를 몰고 다닙니다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스포츠에서 최선을 다할 때의 만족이나, 반에서 우등을 했을 때의 기쁨, 일을 마쳤을 때의 시원하고 대견스러운 감정, 그리고 어떤 일이든 성취해

놓은 것을 회상할 때의 즐거움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땅을 내려다 볼 것이 아니라 별을 바라보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 위로 시선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꼭대기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지만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한 치의 틈도 없습니다.

“누가 압니까? 여러분은 진지한 노력으로써 자신이 성취하는 것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일어나십시오. 상처에서 딱지를 떼어내고 한 걸음 더 내딛어 보십시오.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클리프 쿠쉬만에 대해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가 월남 전투에서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회원이 그의 의무를 알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 모두가 협의된 방법대로 기능을 발휘하여 교회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사업을 돕는 데 모든 능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케 이르는 것입니다. 이 완전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책임, 즉 완전케 이르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더욱 큰 기쁨

매리온 디 행스 장로

칠십인 제일 평의회

우리는 바쁘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어느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오늘의 내 이야기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인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우리 언제나 찾아 나가리, 최후의 끝까지 찾아 나가면,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와, 새삼 그곳을 알게 되리”

나는 다시 칠십인의 위치로 돌아와 주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특별한 증인”(교성 107:25)으로서의 부름이 지니는 중요성과 신성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보다 더 거룩한 소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의 훌륭한 말씀에서 헌터 장로는 예수께서 이미 그 당시에도 고대 기록으로 알려진 경전을 인용하여, 루시퍼에게 대답하신 내용을 말해 주셨습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마 5:21-22)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전개하셨습니다. 그는 그

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고없이 형제에게 노한 일은 없었습니까? “또 간음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마 5:27) 그러나 마음 속으로 이러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마 5:38-39) 예전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습시다만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선을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마 5:43-44 참조)

세상에는 분명히 악한 행동이 있으며 기독교인은 이에 조금도 가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마 5:47)고 그는 질문하셨습니다. 나는 한 여인이 분노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결국 잘못된 일을 저지른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죄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으며 무죄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다시 원상 복구한다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였습니다. 누우치고 용서를 빌어 그녀는 완전한 용서의 길을 따랐으며 결국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느끼는 마음의 달콤한 평화와 영혼의 온화함

은 나로 하여금 잃어버린 양과 동전과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했으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눅 15:7) 하늘에서 기뻐할 기쁨에 관한 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하늘에서의 기쁨을 정말로 이해하실 수 있으시지요?”

“네” 그녀는 따뜻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비난도 아니요, 책망의 말투도 아닌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스 형제님, 그런데 왜 내가 나가는 와드에서는 더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없지요?”

나는 마음 속 깊이 그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너희는...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고후 2:7-8)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회와 계명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는 더욱 겸손할 것과, 더욱 경청할 것과 더 회개하고 더 큰 자비와 용서와 신앙을 갖고 더욱 희생과 봉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제십니다.

그는 교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모르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는 개인적으로 도와 줄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을 필요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의 이웃입니다.(눅 10:30-37 참조)

또 다른 비유에서 떨시당한 세리는 독선적인 바리새인이 기꺼이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참으로 겸손해지고 그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승영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과 겸손이 하나님보다 관중을 더 의식하거나, 구세주가 아니라 자신의 승영을 더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 수 없으며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눅 18:10-14 참조)

나는 지난 어느 날 저녁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들과 그들의 부모

및 친구가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신앙을 불구자를 돕는 데 기울어셨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병자, 장애인, 절름발이, 문둥이, 정서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은 그리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보내신 모든 영혼과 정신 능력을 얼마든지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54페이지)

하나님께서 불구가 된 그의 자녀들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시며, 그의 제자들이 그들을 돌볼 책임을 받아 들일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너희가...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전을 통해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한 말씀의 요지는 회개와 믿음과 의식을 지키는 것과 영의 빛으로 걸으며 신앙으로 견디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중함과 관대함과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과 염려와 인내와 벌하지 않음과 용서와 자비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십시오.

로마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는 자들도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단정히 행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 13 참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찌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롬 1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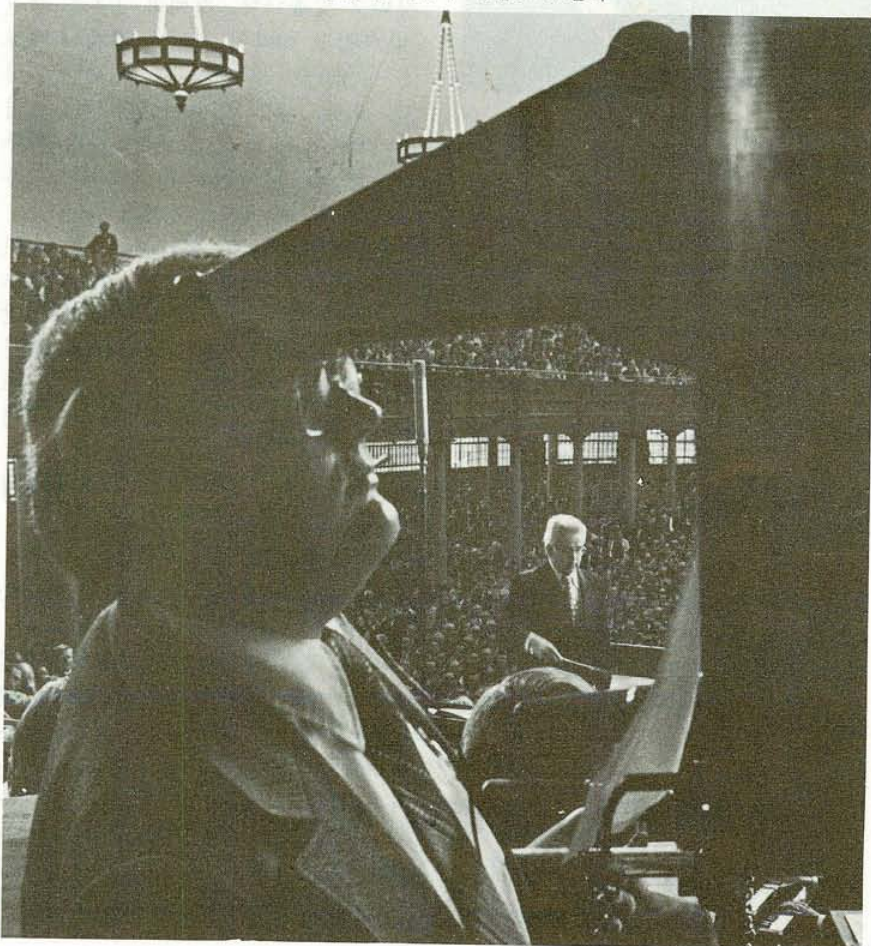
우리를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참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훌륭한 사랑의 정신으로 불구가 된 다른 사람을 위해 특별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어렸을 때의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한 어느 여인이 있습니다. 소꿉 친구들이 불구가 된 그녀의 상태에 관계되는 별명을 불러 괴롭히며 눈물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무릎에 앉히고 힘센 팔로 그녀를 안고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예감했으며, 그것은 그녀에게 쓰라린 아픔일 것이나, 그러한 것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해 주는 교훈을 배울 수도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면서 그녀와 함께 울었습니다. “애야, 아이들이 너한테 한 이야기는 사실이란다. 그러나 그것은 친절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말이지. 물론 네가 등이 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네 잘못은 아니지 않니? 그것은 네 부모의 잘못도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란다. 그것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하나일 뿐이야, 애들이 너한테 하는 말은 사실이지만 결코 정당하거나 친절한 말은 아니야 네가 만일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이 너에게 대해 주는 것보다 더 친절하고 공평하게 다른 사람을 대해 주면 너는 행복을 느끼고 네 생애는 값진 것이 될 수 있단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려 한 일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때때로 내게 해 준 것보다 더 친절하고 정당하게 다른 사람을 대해 주는 것입니다.”

피에르 드샤르맹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람이든 조수든 인력이든 인간이 그것을 이용한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의 에너지를 사용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인간은 인류 역사에서 두 번째의 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미래를 향해서에서)

알프레드 노이스의 저서인 “하늘의 파수꾼”이라는 책에 보면, 타이코 브라흐라는 박식한 천문학자의 친구와 이제 겨우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텔레비전 카메라맨과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자 제롤드 오토리



안 어느 왕 사이에 벌어진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습니다. “지구가 그렇게 가법게 움직인다면 도대체 내 영토는 어떻게 되느냐? 아! 지금 확실히 서 있는 것은 무엇이겠고?”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 이외에 확고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환영과 같아서 잠시 후면 없어지고 맙니다.”(알프레드 노이스, 하늘의 파수꾼 뉴욕: 프레드릭 에이스톡스 컴퍼니, 1922년, 75페이지)

모든 율법,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작품 줄리어스 시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글이 있습니다. 죽음을 눈 앞에 둔 브루투스가 캐시어스의 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그대가 나를 위해 흘리게 될 눈물보다 나는 이 죽는 사람을 위해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오.” 그런 뒤, “나는 시간을 찾겠오, 캐시어스, 나는 시간을 찾겠오.”(5막, 3장)

나는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릴 시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표준에 좀더 가까이에 서서 이웃에 대한 염려와 사랑을 베풀지 못했으며, 우리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득 받은 일이 전혀 없으며 주님께 진정한 제자가 되어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야기할 때 느끼는 슬픔과 한탄에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권고와 훈계 가운데서, 또 참된 것을 구하려 동서로 분주히 오가는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어 우리가 서로를 더욱 염려하고 더욱 용서하고 위로하고 슬픈 영혼을 위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욱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보다 정당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와드에서 아들 딸과 함께 더욱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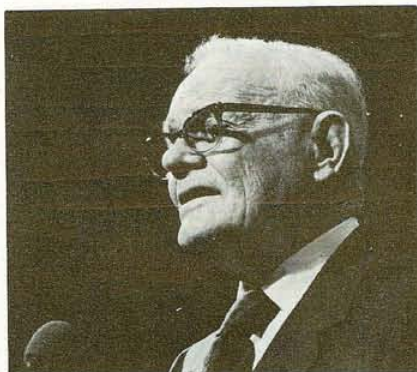
1976년 10월 2일, 토요일, 아침 모임

“우리는 정직을 믿습니다”

매리온 지 름니 부대관장

대관단장 제 2 보좌

거짓말하는 자는 중대한 범법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번민하게 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사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친구 여러분, 나는 오늘 아침 정직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나는 1973년 4월 23일에 있었던 브리감 영 대학교의 101회 졸업식에서, 록포드 대학의 존 에이 하워드 학장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끔찍스러운 범죄율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한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의 증가 추세는 부정적 법람과 발맞추어 나아가고 있다는 말은 그대로 꼭 맞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범죄의 추세는 정치인들에 있어서도 그들이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약속을 하며 또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서 사업을 이룰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믿게 하려는 부정적 만연과 발을 맞추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 개인이 자신의 이익에 급급해 좁은 편견을 갖고 있을 때는, 사회의 복지에 대한 생각을 저

버리게 됩니다. 사리사욕으로 인해 원칙이 무시당하게 됩니다…….

“……너무도 많은 곳에서 믿어지고 있는 ‘파괴’ 행위는 오늘날 속임수의 행위보다 훨씬 더 온당치 못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예로운 사람들이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었던 여러 곳의 명예 조직도 이제는 버림받고 있습니다. 명예의 근본을 성실에 두었던 예전의 개념은 명예의 새로운 규범을……부정적에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덕 사회의 의리는 사실상, 파괴라는 말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존 에이 하워드, 록포드 대학, 록포드, 일리노이스)

1842년 봄에 존 웨트위스씨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와 교리에 관한 말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요청에 응해서, 예언자는 현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신앙 개조”로 알려져 있는 십 삼 개조를 써 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조항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 다…….”

이 말에는 인간의 전반적인 행동 범위를 포함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모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나는 이 구절의 첫 마디, 즉 “우리는 정직…을 믿는다”고 한 이 정직에 관해 말씀을 한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직과 부정적에도 그 한계가 무한하기 때문에, 정직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이 정의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직은 거짓말, 도적질, 속임,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거짓말과 거짓 증거 또는 도적질과 속임수를 구별지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 시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꾀사한 혀에 석 내 생명을 건지소서”(시 120 : 2)

율리버 웬델 홈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많은 도구를 갖고 있으나, 거짓말은 그 도구를 적절히 맞추는 손잡이이다.” (더 챔버드 노틸러스에서)

윌리엄 펜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거든 사실을 말하십시오. 모호한 이야기는 반거짓말이며 거짓말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의 열매에서)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처럼 야비하고 비겁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남 아프리카 선교부 공보, 1971년 1월 19일)

이 지상에서 거짓말이 시작된 것은 사탄이 에벤 동산에서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 먹어도 그 결과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된다고 한 때부터였습니다.

사실상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탄이 모반하여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미 부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하려 하였고, 나의 권능을 자기에게 줄 것을 구하였으므로 저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써 던지움을 받게 하였더라.”

“이에 제가 사탄이 되었나니,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버지라. 인간을 미혹케 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 (모세서 4 : 3-4)

니파이의 동생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옥에 던져질 것임이라.” (니이 9 : 34) 그 지옥에서는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버지”(니이 2 : 18)와 함께 살게 됩니다.

거짓말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을 만큼 비난받을만한 것입니다. 오

래 전 큰 탐으로 해서 언어가 혼동되었을 때 야렛의 형제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야렛 형제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보여 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이외에 무엇을 더 보았느냐.”

“저가 대답하되, 아니오니다, 주여 당신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이에 주가 저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가 이를 말을 믿겠느냐?”

“저가 대답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줄 제가 아는 것은, 당신은 진리의 하나님이니라 거짓말을 하시지 아니 하십시니이다.” (이더 3 : 9~12)

약 2,000년 후에 야곱의 아들 이노스도 같은 진리를 증거하였습니다. 밤이 깊도록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나자, “한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시기를, 이노스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복되리로다 하시니라.”

이에 이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는 거짓

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나의 죄가 씻겨졌음을 알아.” (이노 5, 6)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거짓말 하는 것을 몹시 싫어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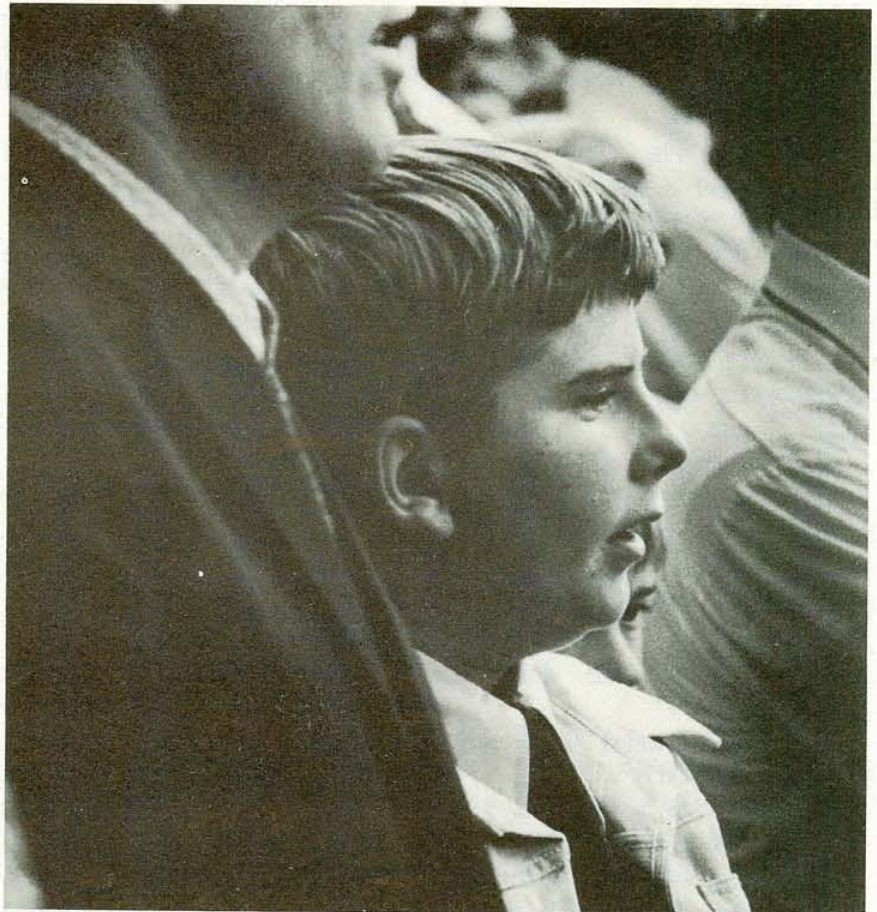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욕 칠 가지니” 그 가운데 두 가지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잠 6 : 16-17)

경전 어느 곳엘 보아도 거짓은 중대한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주님께서 유대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다섯 가지 죄악과 함께 거짓말을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 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금요일 오후 모임에서 합창을 한 상호부조회 합창단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호 4: 1-3)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에서 주님은 초대 교회 회원들에게 거짓말에 대한 징벌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들 초기 성도에게 재산을 다 팔아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써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 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 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에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행 4: 35, 5: 1-11)

제시자 요한은 즉각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서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

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주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의 운명이 설명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 1-8)

지금까지 우리는 거짓말의 여러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1. 사탄은 모든 거짓의 아버지이며 예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지상에 거짓말이 시작되게 하였읍니다.

2.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으십니다.

3.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4. 거짓말하는 자는 큰 죄인으로 간주됩니다.

5. 그들은 이 세상에서 번민합니다.

6.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 8)

교리와 성약 42편 21 절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교회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하고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어 쫓기리라.” 즉 교회에서 파문당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편 27 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네 이웃을 욕하거나 해치지 말라.”

형제 자매 여러분 클라크 부대 관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진리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가식 없고 단순한 진리와 같이 질투와 증오와 악의와 그 외의 커다란 죄악의 화살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남 아프리카 선교부 공보, 1971년 1월 19일)

우리는 정직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믿는 바를 행할 수 있기를 믿습니다.

속이고 흠치는 죄악도 거짓말 하는 것보다 조금 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도 경전에서 똑같이 강조되어 질책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으며,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출 20 : 15-16)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교회의 율법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하고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어 쫓기리라.”(교성 42 : 20)

이것은 도적질하고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파문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계명을 범하는 비율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놀라울 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상점 진열품만 보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예언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적질과 속임수의 일종으로 미국 내에서 그로 인해 없어지는 돈은 매년 십억 불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시큐어리티 키, 1976년 5월)

다른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잃어버리는 물건은 70퍼센트가 고용인에 의해서이며 고용인 가운데 76퍼센트가 그들이 일하는 직장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피저렛 뉴스, 1976년 1월 29일)

“우리는 정직을 믿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내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교리가 참되며 전능하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말일에 우리가 번성하고 완전해질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에서 구속주께서 세상에 다시 오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원리를 알려 주셨습니다. 나는 이 진리와 우리에게 제시되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선교 사업의 정신

칼로스 이 애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는 타인과 복음을 나눌때 자신과 타인을 교화시키는 아름다운 영의 실재를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제 해임된 칠십인 제일 평의회 회원 여러분께 사랑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난 육 개월 동안 이 형제님들의 지도와 협조에 감사드려 왔습니다. 나는 새로운 회원과 제일 평의회 의 회장을 지지하여 힘껏 협조할 것을 다짐합니다.

수년 전 어느 선교 부장 세미나에서 휴 비 브라운 장로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한 가지 내 소원을 들어 주신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모든 선교사가 그의 부름의 영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선교사가 이 영을 느끼는 축복을 받는다면 세상에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브라운 장로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복음 선교사의 경우에만 아니라 교회의 전 회원에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용솟음치는 욕망 하나는 모든 회

원이 젊은 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수반되는 특별한 영에 영향을 받고 감동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일성도가 끊임없이 선교사의 영을 느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모사이아의 아들들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의 기록을 읽음으로써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형제인 레이맨인에게 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했나를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만인 중에 하나라도 멸망됨은 참아 내지 못할 괴로운 일이요, 사람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이 몹서리를 치게 하는지라, 저들은 만인에게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하였으니,주의 영이 역사하시어 저들로 이 같이 행하게 하시었고.....” (모 28 : 3-4)

이 구절과 또 다른 구절에 보면 복음의 빛이 이들의 생활에 비쳐 왔을 때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났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즉시로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누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향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선한 것으로 가득찰 때 우리는 다른 사람,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느꼈으면 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은 리하이의 꿈을 잘 기억하

실것입니다. 그는, “죽히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만큼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를 보아” 나아가서 그 열매를 따 먹고 기쁨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런 다음 기록에 의하면 그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열매를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가 다른 어느 열매보다도 먹음만 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열매는 리하이로 하여금 가족을 “큰 소리로” 불러 그들에게 와서 과일을 따먹으라고 하게 하였습니다. (니일 8 : 10—12, 15 참조)

얼마 전에 나는 새로 개종한 어느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영에 의해 감동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바랐던 것은 회복된 복음을 가족과 친구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들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그들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 것을 그들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영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복리를 염려케 하는 것입니다, 영예롭게 선교사역을 마쳤거나, 친구의 개종을 도왔거나, 선교 지역에 나가 있는 아들이나 딸을 뒷받침해 주었거나 선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영의 진실함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전파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모두 영을 느끼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된 바와 같습니다. “전파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는 서로 이해하니, 둘은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교성 50 : 22)

여기 어느 선교사가 영의 권능으로 가르치고 간증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금요일 저녁에 나는 어느 나이 든 부부와 그 아들에게 간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숲 속에서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의 가슴은 뜨겁게 불타는 듯 했습니다. 토론 계획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간증을 하고 구도자로 하여금 영을 느끼게 하는 것은 더 큰 일입니다.”

이렇듯 교화하는 과정을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몇몇 선교사가 나에게 그들이 복음을 가르치던 어떤 훌륭한 부부를 소개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선교사와 함께 복음 토론도 여러 번 하고 교회에도 몇 번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증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드린 후에 나는 그 남편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를 만나기 전에 기도는 선생님께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최근에 몇 번 기도하기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하십니까?”

“물론이죠, 요즘은 늘 기도를 드립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사업에 대해서도 기도를 드리지요.” 하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런 습관을 갖게 된 것을 칭찬해 주고는, 다음 성구를 함께 읽어 보자고 권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영에게 귀 기울였던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리라. 악령은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니이 32 : 8)

그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영에 귀 기울였다는 사실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구도자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한 지식에 대해 묻자, 그 자리에서 그는 선교사를 만나기 전에 그에 대하여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선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와 딸



사가 자기에게 구원의 계획을 위시하여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에게 다음 구절을 읽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씨에 비유하려 하노라. 너희가 씨앗 하나를 너희 마음에 심었다고 하여 그것이 참된 씨, 곧 좋은 씨앗이며 너희의 불신앙으로 이를 던져 버려 주의 영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면, 보라 씨앗은 너희 가슴 속에 부풀어 오르리니, 너희가 이 부풀어 오름을 느낄 때에 이제 이 씨앗이 나의 영혼을 키우며 나의 이해를 밝혀주며, 참으로 내게 감사함을 주기 시작했으니, 이 씨앗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임에 틀림없느니라 너희가 너희들 자신에게 말하라.”(엘 32 : 28)

이 사람은 말씀이 참되고 선하다는 사실을 아는 데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으며 분명 주님의 영을 느꼈습니다.

나는 세 번째 질문을 그의 부인에게 하였습니다. “선교사를 만나기 이전의 남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부인은 약간 마지못한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좀 더 좋은 남편일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분은 내가 부인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아이들에게 소홀히 하는 편이었어요”

나는 솔직히 대답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고는 함께 다음 구절을 읽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른 바를 믿는 자에게 나의 영이 임하게 할 것임에 나의 영으로 인하여 이것들이 참됨을 알지니, 이는 나의 영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가르침이라.”(이더 4 : 11)

그 부인도 그들의 가정에 새로운 영이 임하였으며 바로 이 영이 남편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간증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선교사를 만나기 전에는 신앙이 극히 약했으며 구세주에 관해서도 큰 의심을 품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선교사를 알고 난 뒤에 그들의 가르침과 간증으로 자신의 믿음이 굳어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시 다음 구절을 읽어 보자고 하였습니다.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리라. 무엇이랴도 선한 곳으로 인도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모로 7 : 16)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귀한 영으로 인해 생활이 변화되었다는 구도자의 확신에 찬 간증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기도의 영향, 더욱 큰 지식, 선을 향하게 된 취향, 그리고 새로 발견된 신앙은 그들에게 긍정적이고도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서의 선교사와 같이, 나도 그 일로 해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영이 인용해야 할 성구를 알려 주고 해야 할 말을 알려 주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선교 사업에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간증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회원 친구와 더불어 엠미오를 향해 걸어갈 때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 경전의 이해가 넓어지며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문가에 앉아 있는 영과 육의 절름발이에게 오른 손을 내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워 좀 더 곧은 길을 나아가 더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러한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우물가로 우리의 친구를 불러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할 때, 우리의 갈증은 해소되며, 세상에서 구세주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지난 주에 동부에서 열린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탄 일이 있습니다. 나는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가방을 열고 해야 할 일거리를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빈 자리로 그대로 갔으면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의 문이 닫히기 바로 전에 털이 털수룩하고 머리가 헝클어진 청년 하나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유일하게 남아 있는 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 옆자리였습니다. 나는 귀찮은 여행이 되리라는 것을 작오해야 했습니다. 그는 복장도

지저분하고 냄새도 풍기고 있었으며,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내 일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반갑지 않은 이 청년은 드디어 내게 말을 걸어 왔습니다. “내가 옆에 동석한 것이 선생님께 폐가 되는 것 같군요.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캐나다인데, 유타에서 있었던 기사 세미나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에 실습이 들어 있었는데 온통 기쁨을 묻히면서 일을 마치고는 췌고 옷을 갈아 입을 틈이 없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납니다만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이기적인 나 자신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알아 보지도 않고 편견을 갖고 있던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런 나의 태도를 뉘우치고 사과했습니다. 간단히 나 자신을 소개한 뒤 훌륭한 복음에 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시카고에 착륙하기 전에,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이기라도 하듯이 경전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정하게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는 헤어지면서 선교사를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도 교회 밖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 즉, 열렬한 간증과 경전 읽기와 인간의 영혼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영을 느낀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선교사든 친구든 다 함께 선교사의 영을 느끼고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엘마가 느꼈던 것을 느끼고, 그가 외쳤듯이, “오 내가 천사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앞에 나아가 주의 나팔로 땅이 흔들릴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엘 29 : 1)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빛이 보입니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생의 역경이 아무리 견디기 힘든 것일지라도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현재와 후세에서의 행복에 이르는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영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오랜 경험으로 보아 오직 그러한 영에 의해서만 말씀하는 내용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이해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그것을 우리의 시대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근 20여 년 전에 남태평양의 어느 작은 촌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그때 얻은 교훈은 시대적인 것을 넘어서 날로 그 의미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인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젊은 선교사로 나는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열 다섯 개의 섬에서 교회 일을 관리하는 지방부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면서, 배를 타는 것이 바람이나 잔잔한 바다 물결 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뱃멀미와 이상한 언어와 음식과 풍습에 익숙해 져야 하는 이국에서의 생활은 영광스럽기까지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것은 일시적인 나의 고통과 문제를 감싸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과 감사에 접근하는 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한번은 꽤 먼 섬에 있는 어느 선교사가 몹시 아프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날씨가 무척 나빴지만,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 기도를 드린 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그 섬으로 떠났습니다. 거친 바다 물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우리는 오후 늦게서야 도착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과연 심하게 앓았습니다. 병자 축복에 이어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며, 기도를 드리는 동안

큰 섬에 있는 병원으로 이 선교사를 즉시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날씨는 더욱 험해져 바람은 더욱 세차게 되었습니다. 파도는 거칠고, 짙은 구름이 덮혀 있었으며 바람은 세차게 불고 시간은 늦어 있었습니다. 해도 다 저물어 길고 어두운 밤이 곧 다가올 듯했습니다. 그러나 “곧 돌아가라”는 느낌은 강렬한 것이었으며 주님의 속삭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둠과 폭풍과 우리가 찾아 가려는 항구에 이르는 좁은 뱃길에 보이지 않게 잠겨 있는 무서운 암초에 대해 우리는 많은 걱정을 했으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날에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만 곧 아픈 선교사를 위시하여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선장과 다소 걱정을 감추지 못한 지방부장 몇 여덟 명이 영의 속삭임에 좇아 병원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배를 띄우자 폭풍우가 일곱 배 정도나 더 거세어진 듯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어져서 폭풍이 되었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잠겨, 어두움이 닥치자, 나의 마음도 의심과 공포의 어둠 속으로 가라 앉는 듯했습니다. 검은 구름과 몰아치는 빗발은 별도, 달도, 휴식도 없이 오로지 흉흉한 바다에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불안이 가득한, 이미 어두어진 우주의 그 어두움을 더욱 짙게 하였습니다. 그 두려운 밤에 공포와 싸우면서 나는 나 자신이 신약전서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막 9:24)하고 외친, 어느 병든 아이를 둔 아버지의 심정과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주셨으며, 또 그렇게 해 주고 계시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배가 섬에 가까이 오자 암초 사이를 통해 무사히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항로를 비쳐 주는 불빛을 찾기에 모두 혈안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불빛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밤의 어두움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격렬한 파도는 그 위치를 분간할 수 없게 하는 듯했습니다. 빗발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려 헛되이 생명의 불빛을 찾는 우리의 눈 앞을 흐

리게 했습니다.

그때 나는 파도가 암초에 부딪혀 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배는 너무나 가까이에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빛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항로를 올바르게 찾아 들어서지 못한다면 배는 수천 개의 이빨처럼 솟아 물에 잠겨있는 암초에 부딪쳐 산산조각이 나고 찢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난 자연은 잔인스럽게 우리의 파멸을 재촉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눈을 치켜 들고 어둠 속을 살폈습니다만 불빛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홀쭉거리며 울기 시작하였고 깊은 신음과 더불어 큰 소리로 우는가 하면, 심지어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소망을 앗아가는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좌로 혹은 우로 뱃머리를 돌리라고 외치는 극도에 이른 공포 가운데서 내가 선장을 쳐다보니 그는 침착하고 경험과 영원한 지혜를 발하는 얼굴로 어둠을 꿰뚫고 건너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 곳을 응시한채 배의 방향을 바꾸면서 그는 조용히 햇볕에 탄 입을 열더니 생명을 주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코에 마아마에”(빛이 보입니다)

내게는 불빛이 보이지 않았으나 선장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나는 그가 불빛을 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해의 경험이 풍부한 그 노련한 눈은 미칠듯이 날뛰는 폭풍우 때문에 초점을 잃지 않았으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배의 방향을 돌리라고 외치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의 아우성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위대한 한 마디와 더불어 우리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암초에 부딪쳐 깨어지는 파도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소리는 이제 우리의 뒤에서 들려 왔으며 우리를 파멸시키려던 무모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항구에 무사히 기항하여 제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어둠 가운데로 희미한 불빛을, 선장이 보았다고 한 그 위치에 있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불빛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우리는 불신의 암초에 받혀 산산이 부

서지고 찢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련한 선장의 눈을 믿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다년간의 경험과 훈련으로, 그리고 특별하고도 신성한 부름에 의해 더 멀리 더 분명히 실수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자신이 볼 수 있으리라는 것만 믿는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 이전에 커다란 부상을 입거나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근 20여 년 전에 있었던 항해의 경우와 그 상황이 매우 흡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도덕적인 가치가 문란한,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소위 인구 과잉이 초래할 미래의 공포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의 사실과 인물이 개입되어 그에 대한 주장과 반대 주장을 듣는가 하면 소위 “가족 계획”이라든가, “낙태의 자유”, 또는 여러 방면에서의 개인의 향상 등을 요구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자를 도와 줄 때 우리는 이 학자 혹은 저 교수가 추정하는 계획에 귀를 기울이거나, 어떤 무죄한 애원하는 소리를 듣거나 신경질적인 외침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말하는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내 주시는 영을 받아 들이십시오.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늘 서로를 염려하십시오. 유산이라는 죄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안정이 깃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 나는 내 생명과 내가 책임을 맡고 있던 선교사의 생명을 구해준 폴리네시아의 훌륭한 선장을 보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선장이 행한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장의 지혜에, 그의 눈에, 그 상

황에 동요되지 않고 꾸준히 안전한 항로를 유지해 간 그 선장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때 나는 그 선장이 선장 이상의 인물이었으며 그가 쌓은 모든 경험을 능가하는 지혜를 지닌 인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에게는 폴리네시아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믿음 항해하는 백성들에게 대대로 물려오는 힘과 용기가 놀랍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나는 그 선장과 조상 리하이의 신앙심 깊은 후손을 한없이 칭찬하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뜻깊게 나는 오늘날 위대한 예언자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 때에 주님께서서는 여러모로 단련되고 가르침받고 신성한 권능으로 무장된 예언자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든 경험만 해도 훌륭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위에 신앙심 강한 세대의 힘뿐만이 아니라 천사의 권세까지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압니다. 나는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그가 우리의 개별적인 구세주요 친구임을 알며,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시대에 살아계신 스벤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은 우리와 온 세상 사람을 구해 주는 불빛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어둠과 공포와 절망에 잠길 때, 파멸이 눈 앞에 있는 듯이 보이고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가운데서 사람들의 격렬한 분노가 우리를 잃어떨 때 조용히 말하는 예언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 보십시오. “저기 빛이 보입니다. 이 길이 바로 참된 길입니다.” 나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훌륭한 죽음

스터얼링 더블류 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죽음이란 졸업과도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룩한 것을 평가하는 때입니다.



인생에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생과 죽음입니다. 훌륭한 부모에게서 잘 태어나 분위기 좋은 가정에서 살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훌륭하게 죽는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얼마 전의 연차 대회에서 나는 출생의 중요성과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중요성과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훌륭하게 죽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기분 좋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분나쁜 것

은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생각을 하려 하지 않거나 아예 외면해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축제 때가 되면 사람들 앞에 죽은 사람의 골격을 보여 줌으로써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보다 논리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위대한 죽음의 이미지를 보고 그들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이라는 이야기로 공포를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중하게 언젠가 이 육신의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 위대하고도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예로 보아서 이 세상을 산 채로 떠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각자는 반드시 죽게 될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할 것을 누누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비문에 다음과 같이 새겨서 이 사실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나는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아테네가 멸망될 때 쫓겨서 썩어진 희랍인의 비극 하나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어느 로마 장군이 한 아테네의 철인을 잡아 그에게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테네인이 그리 놀라는 것 같아 보이지 않자, 로마인은 아마 그가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인에게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아테네인은 그에게 자신이 로마인 보다 죽음을 더 잘 이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테네인은 다시 로마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고 있오. 왜냐하면 산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오. 죽는다는 것은 살기 시작하는 것이오. 죽음이란 더욱 고상하고 훌륭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 허약하고 불완전한 일을 그치는 것이며 거짓 많은 세상을 떠나 신과 선인이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며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 죽음이란 생애를 마치는 일종의 졸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죽음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나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떤 인물이 되어 있기를 바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시점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시간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이르기 전에 자신의 삶이 과연 성공적인 것이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포클레스의 다음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루의 즐거움은 저녁이 되어야 안다.”

나사렛의 예수나 가롯 유다의 이야기는 그 종말을 모르고는 아무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종말에 대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어느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파우스트의 전설의 하나입니다. 존 파우스트 박사는 1540년에 독일의 위텐베르그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24년 전에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습니다. 그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24년간 나를 도와서 내가

원수를 징벌하고 친구를 돕도록 해 준다면 생이 끝나는 날 나의 영혼을 영원히 넘겨 주리다”

당시 파우스트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의견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4년이란 긴 세월이었습니니다. 24년이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24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더 긴 안목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우스트가 영혼을 내게 판다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기다리지.” 그리하여 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우스트는 온갖 좋고 나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처 그러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파우스트에게, “이제 너의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는 말이 들려 왔으니, 이는 곧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질 말입니다. 파우스트는 처음으로 그가 해온 일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겨우 자기가 얼마나 가혹할 정도로 자신을 속여 왔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탄과의 계약을 깨뜨리려고 하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의 영혼에 자비를 베푸실 수 없으시거든 적어도 끊임없는 고통에 어떤 끝이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옥에서 천 년을 살든 아니면 십만 년을 살든 결국에는 구원받게 하소서!”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탄과 맺은 계약에 따라 이것마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시각을 지켜 보면서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순간이 오자 파우스트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파우스트는 지옥으로 간다”

파우스트가 만일 이 최후의 순간을 먼저 살았다면 결코 자신을 이런 처지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 친지 중에는 소설을 읽을 때면 의례 마지막 장을 먼저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삶에 있어서도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어떤 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을 별의 영광에 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찬란한 한낮의 태양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조그맣게 반짝이는 별빛과 같이 해의 영광의 저 밑에 있는 것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의 영광에 관해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과 모든 계명을 지키기에 용감한 사람을 위해서 마련하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해의 영광으로부터 지상에 나타났던 사실로 해의 영광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상을 찾을 때마다 그들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은 뒤에 그들의 모습을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요셉 스미스 2서 : 17)이라고 했습니다. 해의 영광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현실의 일이면서도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탄절날 아침에 기대와 호기심에 가득차 반짝이는 눈을 하고 얼굴에서 무언가 빛이 나는 듯한 소녀 아이의 모습을 표현하려 한다면 나는 그녀의 모습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 아이의 눈에 광채가 있었으며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중의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눈은 빛깔도 모양도 크기도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어떤 빛이 아이의 얼굴에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836년 4월 3일에 커틀랜드 신전에서 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교성 110 : 3) 그것은 반짝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수백만 배나 광채가 더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사실상 불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은 내 손녀의 눈에 빛이 없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라고 했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다면 꽤 밝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께서는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모로나이와 함께 열 다섯, 여섯 번을 방문한 사실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모로나이는 미래록에 살았던 고대의 병사였습니다. 그는 생애의 37년간을 홀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부친과 친척은 모두 싸움터에서 전사하였고 친구도 없으며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께 서 나를 얼마나 더 살려 두실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리 저리 헤매노라.”(몰 8 : 5, 모로 1 : 3)

그에게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해야 할 곳도 없었으며 아침을 준비해 주거나 옷을 깨끗하게 빨아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랜동안의 쓸쓸한 기간에 그의 개성이 약간은 퇴보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덤 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을 남길 때였습니다. 그는 그의 위대한 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노니, 곧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서 나의 영광 육이 다시 결합되며 공중을 나는 승리를 얻어, 산 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재판관이신 여호와와 즐거운 심판대에서 만날 때까지 쉬리다.”(모로 10 : 34)

그리고는 14세기나 되는 긴 침묵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403년 동안, 즉 1823년 9월 21일 저녁 이 옛 사람이 부활하여 영광된 몸으로 요셉 스미스의 침대맡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아무 것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 친사가 나타났을 당시의 모습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노력한 것입니다. 그가 표현하는 데 쓴 몇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분의 온 몸이 형용할 수조차 없이 희었으며 그 분의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났고”(요셉 스미스 2서 : 32) 몸만이 아니라 그의 의복까지 빛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것이었고 세상에는 그토록 희고 찬란한 것이 있다고 믿기조차 못할 것이었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2 : 31)

우리는 우리 육신이 훌륭한 백성이 되도록 행동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늘 닦아서 깨끗하게 하고 가장 적당하게 옷입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때로 우리는 보석으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목걸이, 팔찌 다이아 반지 등으로 이 육신을 빛나게 하고, 보기 좋게 보이도록 온갖 것으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열게 화장도 하고 눈썹을 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애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값진 옷으로 단장하는 것을 기분 좋게 생각한다면, 언젠가 값진 육체, 즉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태양과도 같은 육신에 예민한 지각과 이해력과 무한히 큰 사랑과 이해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때의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척 긍정적인 사람이었으며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의 내면을 아름답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로 아름답게 된 평범한 사람들을 보아 왔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혼을 지닌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육신을 지닐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정신과 영은 우리의 육신을 또한 하나님처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훌륭한 죽음을 위해 훌륭하게 살고 죽은 후에는 영원히 해의 영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는 자 같아도 “보라, 우리가 살고”(고후 6:9)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느 사려깊은 사람이 기도한 것을 조금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지여, 나 자신이 실망하도록까지 초라하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소로우,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시고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인간의 참된 맛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고대의 예언자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 주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동료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됩니다.



4판, 126페이지)

링컨은 남북 전쟁 당시 성경과 그 원리를 적용하여 미국의 운명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는 신앙과 기도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듯이 위대한 사실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았다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으며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의 힘으로 좌우될 때 나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분이 내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알려 주시고, 특히 그 방법을 알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같은 책, 124페이지)

링컨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었습니다. 즉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을 받고 섬기지 않으면 축복이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고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참된 회개는 자비와 용서를 가져온다는 소망을 확신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국가만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개인의 의무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입니다.”(같은 책, 390—91 페이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하나님의 손에 징벌을 받고 훈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그는 남북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세기의 위대한 인물이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을 인식하고 그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는 열렬히 기도했으며 그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주님의 영감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었습니다.

링컨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 전에 성경을 믿지 않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고 그대로 따라야 할 양서입니다.”(존 웨슬리힐, 아브라함 링컨—하나님의 사람, 뉴욕:지 피 풋츠남즈 선즈, 1927년,

국이 노예제도를 묵인한 것에 대한 형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노예제도가 그러다는 것과 국가가 받은 노예, 받은 자유인으로서 지속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어느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안전히 인도하시어 우리의 팔을 승리로 영광스럽게 들어 올리시고 깨어진 단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같은 책, 129페이지)

그런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이 감동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란 옳은 것이며, 그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책, 285—86페이지)

링컨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며 결정적으로 패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분을 의지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뜻을 이행하는 것입니다.”(같은 책, 126페이지)

“전능하신 분께서……인간사를 직접 주관하신다는 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있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하고 남북 전쟁의 위대한 지도자는 외쳤습니다. (같은 책, 124페이지)

링컨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로 이에 대한 실례를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애굽인의 속박에서 풀려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민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사실을 읽었습니다.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은 고대에 이미 진보된 문명을 갖고 있던 강건한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 두 지파로 하여금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국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들이 주님을 섬긴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신 28 : 1)

주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려했던 목적을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민이 되게”(신 26 : 19)하시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와 번영과, 다른 나라에 만연하는 질병으로부터 전염되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또 그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셨으며 그 나라에 겁이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더우기 적들이 그들을 두려워 하여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신 28 : 13, 레위기 26장 참조)

한편,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기를 거절하면 축복을 거두어 버리고 그들에게 벌을 내려 모든 국민 가운데 가장 낮은 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어 번성하던 시절을 잃게 되며 결국에는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은 이웃의 국가를 바라보고 시기하여 그들과 같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그 이웃 국가가 약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흥미를 갖고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이기심과 교만에 눈이 어두워져 그들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른 국가들과 같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대해지도록 주신 원리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불순종의 씩씩한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계의 역사를 뒤바꿀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잃고 만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꼭 같은 원리가 고대 미대륙에도 있었습니다. 서반구에는 두 민족이 있었습니다. 두 민족은 모두 고대 이

스라엘에게 주어진 것과 비슷한 계명을 받았었습니다. 이 대륙에서 번성하려면 그 땅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멸망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도 계명을 지키기에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두 민족 다 고대 이스라엘처럼 지상에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좋은 기회를 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두 죄에 빠져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링컨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밖에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나라 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원리, 야벳 민족과 니파이 민족에게 주어진 원리는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나라 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링컨은 또 다른 훌륭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개인에게까지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에 의지하고,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링컨은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는 거의 예언자처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가장 값진 것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할 부와 권력과 인구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롭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번성하고 부유하고 강화되게 해 주신 자비로우신 손길을 잊었으며 이 모든 축복이 다만 우리 자신의 우수한 지혜와 덕의 결과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만에 가득하여 은혜도 있고 구속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힐, 391페이지)

링컨은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

다.”(같은 책)

우리는 링컨이 한 말을 실천할 용기를 갖고 있습니까?

하늘은 이 세상이 죄와 부패, 교만과 자만, 이기심,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다가 그 비참한 결과를 맛보아야 했습니까? 인류가 정말로 끝까지 탐욕과 악을 즐기고 자유와 순결을 구하려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이러한 참된 자유는 오로지 의로움으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더러움과 사악함은 다만 노예와 타락과 죽음을 초래할 뿐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언젠가 사람에게 맛을 내게 하는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또 소금이 맛을 잃을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향기로운 냄새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사악함으로 인해 풍기는 지독하게 나쁜 냄새를 내는 “악취가 나는” 냄새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개개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개개인이 악하면 국가도 악해집니다. 국민이 의로울 때 국가는 번영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움은 각 개인에서 발단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이웃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어 주는 세상의 소금의 일부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

링컨은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억지로 하늘로 이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링컨보다 더욱 큰 힘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불순종은 그에 대한 반항이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내는 맛은 주님의 면전에서 악취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악취가 나는” 냄새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갖고 있어야 할 맛을 어떻게 잃게 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지 않을 때, 혹은 순종을 하더라도 세상적인 태도를 취할 때 그 맛을 잃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소금이 내야 할 맛을 잃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하고 심일조와 헌물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어떤 냄새를 내겠습니까?

김볼 대관장께서는 그저께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냄새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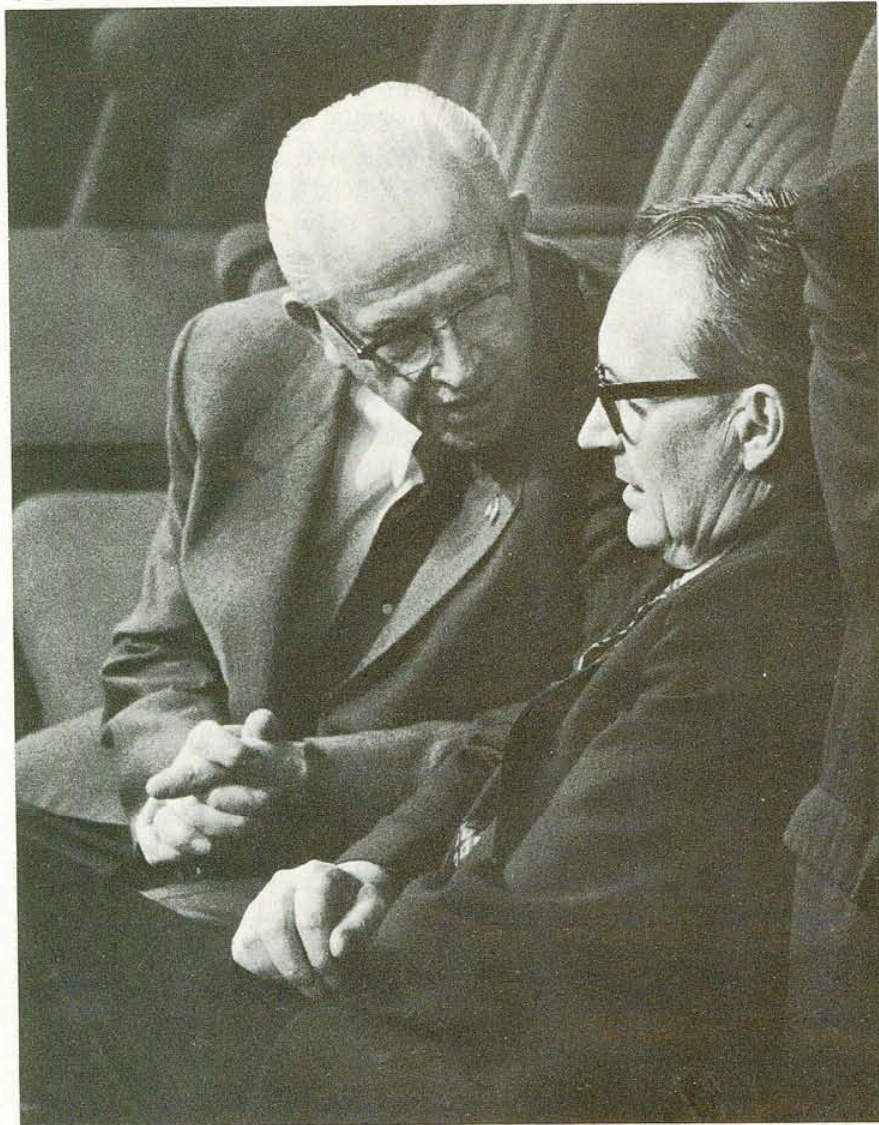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어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면전에 악취를 풍기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정직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는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순결의 값진 은사인 미덕을 잃는다면 우리는 어떤 냄새를 내겠습니까? 그것은 깨끗한 것입니까? 더러움이 깨끗한 것을 몰아내겠습니까? 부정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아닙니까? 그것은 “악취가 나는 냄새”가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불충실하거나 가혹하게 처신한다면, 우리에게서 향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와 십이사도 평의회 엘 돌 페리 장로



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악취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정책에 반대하고 지도자를 거스린다면 우리의 “향기로운 냄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실하지 못한 것에서 향기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 거짓 선지자의 파괴적인 가르침을 받아 들인다면, 우리는 주님의 왕국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해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얻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무를 게을리 한 사람들이 빠져 나가 교회의 원수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마음 속으로 자기 생의 건설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가장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우리에게는 서로 싸우는 두 개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게 급히 서두를 필요없어, 그건 시간 낭비일 뿐이야.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군, 하고 말해주는 영광은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랜트 대관장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작고 잔잔한 목소리로 외로운 것을 말해 주는 영도 있습니다. 이 작고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자신이 북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주는 힘과 능력과 간증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37년 12월, 735페이지)

링컨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하에서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를 부르고 그에게 의지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그는 떨어지는 참새와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월, 334 페이지)

우리가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충분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만이 국가와 개인이 안 전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1976년 10월 2일, 토요일, 오후 모임

어느 길로 따라 가겠습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추리하고, 선택하고, 기도하여, 작고 조용한 목소리를 인식하는 권능으로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나가는 신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까만 아스팔트의 줄이 북유타의 산맥을 뚫고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연결되어 남쪽을 향해 구부러져 나아갑니다. 그 도로의 명칭은 제15번 도로입니다. 이 고속 도로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여러 가지 상품 및 사람을 그 목적지까지 날라다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며칠 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이 15번 도로 입구로 접근해 왔습니다. 교차로에서 나는 세 명의 무전 여행가가 가고자 하는 행선지를 직접 만들어 쓴 표시판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표시판에는 “로스 엔젤레스”로 써어 있었으며, 두 번째 것은 “보이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목을 끌고 무엇인가 그 의미를 생각해 해 준 것은 세 번째 표시판이었습니다. 그 여행자가 들고 서 있는 표시판에는 캘리포니아의 로스 엔젤레스도, 아이다호의 보이즈라고도 써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표시판에는 간단히 “어디든지 갑니다”라고 써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세워서 무료로 태워만 주면 어느 곳이나 만족스럽게 여기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차를 타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룬다는 것입니까. 계획도, 목적도 없는 여행자였습니다. 어느 곳으로나 통하는 길은 결국 어느 곳으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으로도 통하지 않는 길은 허망한 꿈과 기회의 낭비와 충족되지 못하는 생으로 이끌어 줄 뿐입니다.

이 짧은 무전 여행가와와는 달리 여러분과 나에게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택할 수 있는 천부의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뛰는 경주와 같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연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연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 9:24) 우리는 또 전도서에 나와 있는 현명한 권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겠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9:11) 실제로, 상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곳에 이를 것인가?” “나의 운명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인생의 경주를 생각할 때면 다른 하나의 경주가 생각납니다. 즉 어렸을 때의 경주입니다. 그 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보편적

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열 살쯤 되었을 때 나는 친구와 함께 주머니칼을 갖고 다니면서 버드나무의 연한 부분으로 작은 장난감 보우트를 만들곤 했습니다. 삼각형의 모양을 한 천의 돛을 배에 달고 비교적 물살이 센 프로보강에 가서 그 배를 띄워 시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배를 따라 뛰어가면서 물살이 센 곳에서는 배가 마구 흔들리고 깊고 잔잔한 곳에서는 평화롭게 물의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 경주에서 우리는 한 배가 거의 결승점에 가까이 이르도록 줄곧 앞서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살을 타고, 가던 배가 커다란 소용돌이에 말려 옆으로 기울어지더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뒤집힌 배는 소용돌이를 따라 뱅글뱅글 돌기만 할 뿐, 다시는 제 길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소용돌이 주변의 저저분하게 떠 있는 것들과 함께 섞이어, 푸른 이끼가 가득 끼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배에는 배의 균형을 유지하는 용골도 없었으며 방향을 조정하는 돛의 줄도 없었으며 아무런 동력기도 없었습니다. 마치 정처없는 여행자와 같이 그들의 종착지는 결국 “어느 곳이라도 좋다”는 격이어서, 급류에 쓸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는 신성한 표시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삶의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기 위해 이 지상에 온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유를 밝혀내고 성취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생의 경주를 끝내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인도를 받기 위한 아무런 방법도 마련해 놓지 않으신 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여행을 떠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고 조용한 음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역시 건너야 할 바다를 훌륭하게 건너간 사람들이 쓴 경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안전한 항해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권고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행복에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그곳으로 인도해 주는 길을 따를 때 얻게 됩니다. 그 길이란 덕과 의로움과 신앙과 성스러움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55—56 페이지) 이 하나의 문장에는 목적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대해 주시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 그들이 합당한 활동에 참여할 때라는 것을 유의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시던 길과, 선한 사마리아인이 걸던 여리고로 가는 길과 니와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과 리하이가 약속의 땅으로 가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요셉 스미스가 카테지로 가던 길과 브리검 영이 광야에서 성도를 이끌고 가던 길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째 우리는 이미 결정된 길을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갈림길이나 돌아가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에는 신앙을 시험하는 시련과 유혹이 불가피하게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호화로운 때문에 다른 길로 들어서서는 안됩니다. 잘못 들어서면 파멸과 영적인 사망으로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부도덕의 늪과 죄의 소용돌이와 주님의 영에 위배되는 철학을 피하도록 합시다. 루시퍼라 불리우는 교활한 악사는 아직도 감미로운 멜로디를 연주하며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꾀어내어, 부모의 권고를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안전한 가르침을 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조는 너무나 감미롭고 달콤합니다. 그 보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성을 거부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소리를 듣고 따랐다가 그만 타락의 길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에 카인이 그러했고, 후에는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네째,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견습공은 숙달되지 않으면 훌륭한 기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관은 자격을 얻지 못하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인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대는 결정을 내려야 할 장본인일세 자신이 할 것인지 미루어 놓을 것인지……멀리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위치에서 만족할 것인지.

(에드가에이 게스트, “그대,” 신앙의 빛, 시카고: 레일리 앤드리, 1926년, 133페이지)

박해자 사울이 어떻게해서 전도자 바울이 되었으며, 어부 시몬이 어떻게 영적인 권능의 소유자인 베드로가 되었는가를 명심합시다. 그리고 부활절이 있기에 앞서 십자가에 달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 둡시다.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는 분은 우리의 만형이신 주님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어린 소년으로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눅 2:49) 성인이 되어서는 연민과 사랑과 순종과 희생과 헌신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나 나에게나 “나를 따르라”는 그의 말씀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른 사람으로 물론 선교사인 랜달 엘스워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신문에서 혹은 텔레비전을 통해 알고계실 것입니다.

육 개월 전, 파테말라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로 일하던 랜달 엘스워스는 매지진으로 인해 대들보가 그의 등에 떨어져 다리가 마비되고 신장에 큰 상처를 입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응급 치료를 받은 후에 그는 고향인 메리랜드의 록빌에 있는 큰 병원으로 후송되어 왔습니다. 랜달이 그곳에 입원해 있는 동안 텔레비전 방송국의 한 기자와 랜달이 회견하는 모습을 나는

텔레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기자가 “걸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직 걸지 못합니다만 걸을 겁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마이크를 손에 든 채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 회복을 비는 내용의 전문을 다른 사람이 아닌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포드 대통령께서 마음을 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또 한 통의 편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교회,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나에

게는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를 위해 드리시는 그분의 기도와 가족과 친구와 동료 선교사의 기도의 힘으로 나는 다시 과테말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그곳에서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저 장로는 자신의 상처가 어떤지 모르고 있는가 보군. 공식적인 치료 보고를 보면 저 상태로는 과테말라에 보내지 말라고 하던데”

나는 신앙과 기적이 과거의 역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된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의 카메라는 하루가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달로 변할 때의 즉각적이고 새로운 사건에 초점을 맞

춥니다. 러드야드 키플링의 시가 바로 랜달 엘스워스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요와 아우성이 그치고

두령과 왕이 떠나도

그대는 겸손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아끼지 않고 서 있도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만군의 주 하나님이지어

우리와 함께 거하소서

(러드야드 키플링 시집 가든시티 뉴욕: 더블데이, 1946년, 327 페이지)

하나님께서서는 겸손과 애통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 즉 랜달 엘스워스 장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다리는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랜달은 그의 회복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나 자신을 바쁘게 하려 애썼습니다. 병원에서 나는 하루 한

새로 조직된 관리 감독단: 좌,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중, 빅터 엘 브라운 감독, 우, 제이 리처드 클라크 감독



번의 치료가 아니라 두 번씩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다리로 다시 걷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교사 위원회에서는 랜달 엘스워스의 놀라운 회복을 보고는 그가 과테말라에 돌아가 선교사로 봉사해도 좋다는 승락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좋아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는 우선 침실로 들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달 전에 랜달 엘스워스는 그가 부름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스스로 걸어서 비행기에 탑승하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회의주의자와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남아 있었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과 신앙의 기적과 결정의 보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열심히 찾는 일이 놓여 있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식을 받아 들이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극복해 낸 현대의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영생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랜달 엘스워스와 같이 우리 각자도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을 알고, 그곳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기꺼이 노력하며, 굽은 길을 피해 가며, 생의 승리를 얻기 위해 때로 요구되는 커다란 신앙과 결정의 대가를 치루어야 할 준비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하신 심판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 : 21)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여행을 끝마칠 때 정처없이 “어디든지 갑니다.”가 아니라 하늘의 집——즉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영생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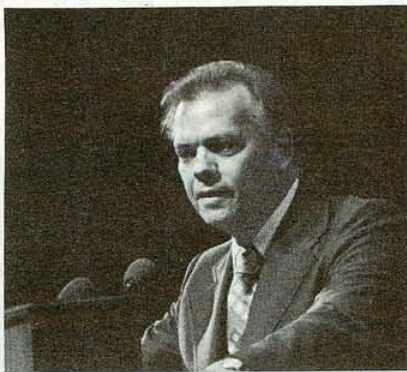
우리의 목표와 보상이 그와 같이 되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따라 행하시오

폴 에이치 던 장로

칠십인 제일 평의회

“내부로부터 늘 울려 오는 작은 음성이 있어, 그 음성이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고 죄를 짓지 않게 경고해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위대한 대회에 참석하니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일이 한 가지 생각납니다. 몇 달 전에 나의 심장 수술을 하는 데 참여했던 한 의사가 나에게 자기와 함께 주일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대단히 훌륭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분은 내게 큰 감명을 주었고 내 심장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김블 대관장님과 그 보좌님들 그리고 십이사도의 위대한 메시지로 나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역사적인 위대한 대회를 잊지 못합니다. 나는 바로 지난 주에 오레곤에 있는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중 가운데서 위대한 신앙과 능력을 지닌 나의 첫 번째 감독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열 다섯 살이 되도록 감독을

몰랐으며 곧 캘리포니아의 홀리우드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는 200파운드에 6척이 넘는 체구로 청중 가운데 있었었습니다. 나는 다음 구절을 외우는 데 그의 도움이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폴,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내부로부터 늘 울려오는 작은 음성이 있어 그 음성이 우리에게 의무를 다 하고 죄를 짓지 않게 경고해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이상한 것은, 소리도 내지 않고, 말도하지 않는데, 분명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따르시오.” 지난 주에 그는 나에게 “아직도 그 음성에 따르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어느 훌륭한 선생님이 들려주신 다음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인과 폭포는 늘 제 길을 가는 법이란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나는 너에게 훌륭한 이름을 주었다. 훌륭한 이름은 금덩어리보다 낫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청소년은 누구나 위대한 아버지와 훌륭한 감독과 교사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언자와 교회의 지도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생애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친 다른 한 분은 코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와 내가 선교 사업을 하는 중에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을 좀더 잘 알게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열 다섯의 나이로 대표 팀에 참가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찾아 가던 때의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 밖에서 한 5분 가량 서성거리다가 용기를 가다듬고 나서, 나는 가만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지?”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대표팀에 참가하려면 어디에 서명을 해야 합니까?”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 가지만 묻겠는데, 야구를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참피온이 되고 싶은 것인가?”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야구를 하러 왔어요.”

“그거 안 됐네. 이미 인원수가 다 찼어”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실망하여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나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문 밖의 홀에서 잠시 서 있다가(그때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꾸준히 용기를 가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다시 용기를 갖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하고 전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 다시 왔군”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저의 먼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팀에 참가하려면 어디에 서명을 해야 하느냐고 여쭙았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나? 야구를 하고 싶은 건가? 참피온이 되고 싶은 건가? 하고 말일세”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전의 대답이 별로 효과가 없었음을 알고 나는, “참피온이 되고 싶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오, 그래? 그러면 여기에 서명하게”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서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참피온을 키우는 것일세”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계약서에든 서명해 본 일이 있나?”

“없습니다. 이제 겨우 열 다섯 살인걸요.”

“이 학교에서는 어떤 원칙에 약속을 해야 하네.”

그는 아래 서랍에서 이미 타자로 쳐놓은 계약서를 꺼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 훌륭한 대회에서 듣는 표준과 같은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과 함께 읽어 보고 그 조건에 응할 수 있거든 내일 다시 갖고와서 서명하게.”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후에 나는 팀에 가담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말일성도가 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과 같은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구 대회에서 여러 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우리 학교와 라이벌인 학교와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게임에서 주 참피온을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큰 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려고 경기장에 나가 있을 때 코우치가 우리를 배팅 에리아로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잠시 하고는,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네가 게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나의 심장은 덜컥 내려 앉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격려의 말을 해 주고는 우리 팀에서 매우 활약이 크고 뛰어난 세컨드 베이스맨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시카고 화이트 삭스에서 선수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그를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코우치는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미, 네 손가락에 그거 니코틴 자국 아니냐?” 지미도, 나머지 우리와 마찬가지로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미는 그의 손가락을 들여다 보더니 얼른 손을 감추면서 부끄러운 듯이 “네”하고 대답했습니다.

코우치는 단원들이 모두 함께 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지?”

“네”

“그런데 넌 그 계약을 어겼지?”

“네”

“계약을 어긴 대가를 알고 있겠지?”

“네”

“운동복을 벗어. 넌 이제 선수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코

우치 선생님, 내일은 큰 시험이 있는데요.”(지미는 배팅틀이 3할 8푼 5리였으며 세컨드 베이스맨으로 에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우치는 게임이 아니라 지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미는 옷을 벗어 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코우치는 계속 지미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나는 다음날, 후에 믿기 어려운 만큼의 돈을 받고 뉴욕 양키 팀에 가담한 알 알리안에게 공을 던지라는 과제를 받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열 세 번을 던졌습니다. 결국 열 세 번 째에서 그는 공을 쳤습니다. 공은 지미가 지키던 자리를 뚫고 외야로 빠졌으며 주자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은 지미의 자리에 매치시켜 놓은 당황한 선수의 다리 사이로 빠져 나가 결국 그 팀은 불로소득의 득점을 얻어 우리 팀은 졌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는 경기보다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훌륭한 코우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경험과 내 생애에 끼친 훌륭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청소년들이 그와 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흔히 질문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모임이 그렇게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여러분과 나와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밝히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함께 모였을 때에는 교회의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나의 교회를 인도하며 내가 준 나의 율법과 계명의 요점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서로 가르치며 선도하라”(교성 43:8) 나는 이 위대한 대회와 우리가 행동해야 할 바를 가르쳐준 다른 모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같이 나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할 기회가 많이 있으며 그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말일성도가 아닌 운동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그마한 상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관례에 따라 인기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침 내가 존경하는 사람 한 분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한 운동 선수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을 거듭하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일성도로서 내가 이런 사고 모임에 참석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러자 나에게는 다시 내 생애에 훌륭한 영향을 준 사람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즉 예언자가 주시는 권고였으며 그가 수술을 받고 나오던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병원의 인부가 예언자를 태운, 쇠로 된 이륜차를 밀고 병실로 돌아가다가 손이 엘리베이터의 문과 이동차 사이에 끼이자, 거침없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육신은 아팠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예언자는 머리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소. 그분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를 끝내고 자리에 앉자 나는 그의 무릎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내가 자랄 때 선생을 존경의 대상으로 모신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나 오늘 저녁에 평가해 본 바에 의하면, 선생께서는 그 위치를 잃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이야기가 듣기 나쁘셨오?”

“물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여실 적마다 나와 다른 많은 사람을 거스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생의 친구로서 말씀을 깨끗하게 하시라고 감히 권고하고 싶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과 요셉 스미스 특히 오늘날의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킴볼 대관장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우리가 그럴 용기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올바르게 행하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와 결단성을 허락해 주시어 우리의 삶이 위대한 사람으로 인해 감화를 받고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여기 이 자리에 그의 예언자가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여러분은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제이콥 디오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는 오늘날 폭풍과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대원들입니다.



56)

내가 새로운 직책에 부름받은 것은 6 개월 전입니다. 시간 관계로 부름받은 이후에 나와 내 가족이 축복받은 훌륭한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부름과 동남 아시아—필리핀 지역에서의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거처와 직장이 홍콩에 있는 우리는 그로 인해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으며, 나의 새로운 교회 직책을 내가 이전에 해온 어느 일 보다는 더 사랑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 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위와 사업에 몸담아 일해 보았읍니다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는 형제와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 외에 인간관계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없다고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나는 또 이 연단을 빌어서 지역의 지도자로서 것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스테이크 부장이나 선교부장에게 그리고 주님의 사업에 충실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일하는 선교사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방문하는 일은 나에게 있어 훌륭한 특권이었으며 큰 영감을 불러 넣어 주었습니다. 나의 신앙과 간증은 그들의 훌륭한 모범으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일에 대한 그들의 헌신, 충성심과, 의욕과 열의는 참으로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교회에서 얻은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음을 매우 감사 드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과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동안 주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빕니다.

대회는 언제나 훌륭합니다. 대회란 정말 마술적인 단어와 같아서 솔트레이크시티와 교회 지도자의 말씀을 듣거나 읽게 되는 모든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일반 총회는 직접 참석하거나 인쇄물로 대회 내용을 읽거나 현대의 놀라운 통신 수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대회는 영적인 것을 키워 주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진 계시에 따라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참된 교회의 중요성과 큰 영적 성장을 상징합니다.

“집합하는 일은 서둘지 말며 도망하여 오지도 말라. 다만 교회의 장로들이 때때로 받은 지식에 따라 대회에서 권고하는 대로 행할지니라.”(교경 58:

싶습니다. 특별히 지난 해에 스테이크와 선교부장에게 주신 대관장단의 지시 사항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관리자는 그가 맡고 있는 지역에서 교회 작과의 여러 대표의 일을 협의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들의 기능이나 책임을 잘 알아야 하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지역 관리자에 관한 대관장단 공문, 1975년 9월 3일)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문제로서,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교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더우기 현 시점에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덟 개의 선교부 내에는 성령을 통해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 들여야 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의 자녀가 2억 3천만이나 있습니다.

“나의 선택된 자들은 내 음성을 듣고 자기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아니 하느니라.”(교성 29:7)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 커다란 임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로 개종한 훌륭한 사람들에 관한 많은 놀라운 간증을 들어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말씀의 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 나는 부친의 조상이 6대를 살아온 홀란드의 어느 해변에 있는 쉬베닝겐이라는 작은 마을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조들은 어업에 종사하였거나 그와 관련이 있는 직업, 즉 어선을 만든다든가, 돛을 제조한다든가, 어망을 수선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물론 자진해서도 하였지만 생명을 구하는 위험한 일에도 뛰어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기도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써, 사람을 구해내기 위한 구조선을 늘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강한 서풍이 불면, 어떤 어선들은 곤경에 처하게 되어, 선원들은 난파된 뱃전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때가 많습니다. 해마다 바다에서 희생되는 수가 늘어났습니다.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배

한 척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어선의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보우트를 타고 나갔습니다. 큰 파도가 쳤으며, 노를 젓는 사람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밤에 조난당한 선원들에게 이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결국 난파된 어선까지 노를 저어 가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의 구조 작업으로 모든 선원을 구조하기에는 보우트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조난당한 배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선에는 한 명이 더 탈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조선이 뒤집힐 위험성은 매우 많았습니다. 구조원들이 해변에 돌아왔을 때 수백 명이 어두운 밤에 그들을 안내해주며 횃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구조원들은 다시 보우트를 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폭풍과 파도와 비를 헤치고 나아가려고 애를 쓰느라 기운이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안 경비 대장은 다시 배를 타고 나갈 지원자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선 자들 중에는 한스라고 하는 19세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방수복을 입고 자기의 어머니와 함께 해변에 나와 구조작업을 지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스가 앞으로 나서자 겁에 질린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제발 나가지 말아다오. 네가 네 살이었을 때 너의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네 형은 바다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있는 지 벌써 석 달이 더 되지 않니. 넌 내게 남아 있는 유일

칠십인 제일 성원회의 원리암 알 브래드포드와 조지 피리 장로



한 아들이란다.”

그러나 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가 해야만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임무입니다.” 한스가 보우트를 타고 노를 저으며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그의 어머니는 흐느껴 울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면서 해변으로 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한 시간 이상이나 큰 파도가 밀어닥치는 바다에서의 투쟁이 있는 후에 (아마 한스의 어머니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보우트는 다시 보였습니다. 해안 경비 대장이 소리치르면 들을 수 있게 구조선이 해변으로 가까이 다가왔을 때, 경비 대장은 입에 손을 나팔처럼 대고는 폭풍 속에서 힘차게 “그 사람을 구조 하겠소?”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뱃불을 들고 바다를 비추이던 사람들은 노를 젓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한스를 보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구조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의 형인 피트라고 어머님께 말해 주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19세의 젊은이와 같은 아들을 현재 두고 있으며, 앞으로 곧 두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따라 그들의 이름은 조지 또는 후안, 페드로, 기욤 또는 하인리히, 파보 또는 싱통이라 불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스는 그들의 본보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선교사로서 구조 대원 팀에 속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이 누구를 할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이 구원한 자는 험난한 인생의 행로에서 방황하는 자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실종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통한 그들의 구조 작업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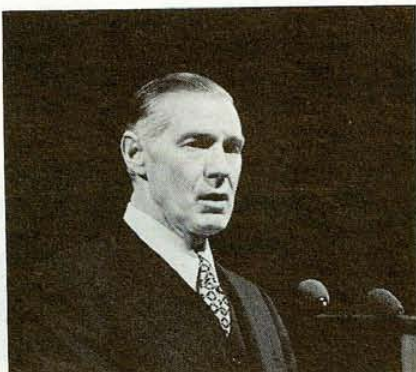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있는 자가 되도록 영감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생활이 성신의 인도를 받도록 함으로써 선교 사업을 통한 구조 작업을 하려 나갈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

나와 구세주와의 관계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칠십인 제일 평의회

우리는 매일의 기도, 이기심없는 봉사, 순종, 구세주의 신성에 대한 인정, 그리고 경전 공부를 통해 구세주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칠십인 제일 평의회의 에스 덜 위스 영 회장과 그의 동료들이 훌륭하신 분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과 함께 칠십인 제일 평의회에서는 물론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남미에서 돌아온 나는 2백 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알리는 광고판과 포스터를 보고 감개무량하였습니다. 나는 세상에 혁명은 더 적어져야 하고, 계시는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남미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교회와 지금 상 파울루에 건축되고 있는 신전의 영향을 입어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혁명입니다. 그 영향이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성도를 온전케 하며……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엡 4:12, 13)라고 말한 권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구속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개인적인 지

식을 얻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니 나는 매우 겸손하여지고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최근 남미에서는 그곳의 환경에 익숙해진 훌륭한 선교사들이 “세상에서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그들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이 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 개인적으로 구세주와 끊임없는 관계를 갖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내면에 소유하고 있는 신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성한 관계를 알고 이해하게 될 때처럼 우리의 생애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에 대하여 알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간구하신 바와 같이 그와 하나가 되려고 하며 (요 17:21 참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엡 3:16)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를 느끼지 못하기도 하며,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살아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관계가 영화롭게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자신의 생애에서 성스러운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느낌은 자신에게만 성스러운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논의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고, 우리가 참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 내면의 확신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같은 참된 내면의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시켜 줄 수는 없으나 이러한 확신은 지식으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신성의 일부인 이것이 그 근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분리하는 얇은 장막을 지나오는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느끼는 바를 자신의 지혜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갈망, 다시 말해서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어서 여러분이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은 없습니까? 주님은 이같은 내면의 느낌이 “이 일에 관하여(우리에게) 평강을 말해”(교성 6:23)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샘의 근원되시는 분인 우리의 구주주로부터 매일 “생수”가 흘러 내리도록 통로를 깨끗이 하여 줄 기본되는 중요한 방법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기도로써 교통함. 열심히 드리는 진실한 기도는 쌍방이 교통하는 것으로서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환란, 고난, 고통, 고뇌를 해결해 주는 생수와 같은 주님의 영을 풍

성히 임하게 하여 줄 것입니다. 주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훌륭한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이해심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고, 천세를 갖고 계시며, 우리 각자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둘째, 매일 다른 사람에게 이기심없는 봉사를 베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엄숙한 신앙 고백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참된 평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어떤 현명한 사람은 “자기 혼자서 스스로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귀는 친구로 인하여 타락하기 쉽습니다.”(찰즈 헨리 파크허스트, 세계 명언 사전에서 인용함, 시카고: 제이 지 퍼거슨, 1969년, 659페이지)

셋째, 우리의 생활에서 더욱 더 순종하고 완전해지기 위하여 매일 노력함.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삼 27:27)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

를 이루셨으므로 인간은 완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성 76:69 참조)

네째, 매일 구세주의 신성을 인정함. 매일 주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찌 섬기지도 아니하며, 알지도 못하며 마음에 생각해보지도 않은 주인을 알 수 있으리요?”(모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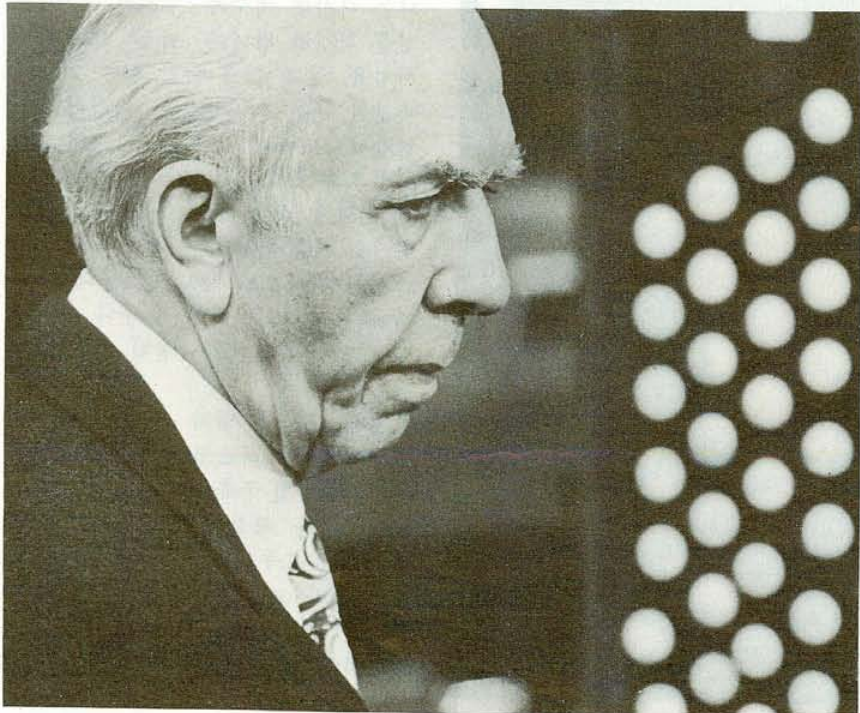
다섯째, 매일 경전 공부를 함. 킴벌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며, 주님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은 것 같이 여겨지는 때 나는 주님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전 공부에 열중하고 있으면 주님과 나의 사이는 점점 좁아지고 다시 영성을 얻습니다.”(“나의 소원은 여러분이 나의 손자 손녀를 가르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학 연구원 역원에게 행하신 말씀, 1966년 7월 11일)

과거의 목격자들이,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한 말을 들어 봅시다. 옛 사도들은 그곳에 있었고, 모든 일을 직접 보았으며,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을 갖기에 그들보다 더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벧후 1:16) 요한은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신을 앎이니라”(요 4:42)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대의 목격자인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성 76:23)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벧후 1:4)가 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메시아의 영향력과 가르침은 우리의 생애에서 다른 모든 관심사보다 우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한 부를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눅 17:21 참조)

교리와 성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

울게 연주자 알렉산더 슈라이너



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성령으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성 8:1-2 참조)

여러분은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 (교성 88:68) 날이 이를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그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교성 88:67)

생의 무수한 환란 가운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슬픔, 죄, 낙담, 실패, 연약함 때문에 발전해야 하는 목표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써 조건없는 사랑의 따뜻한 위안이 우리에게 안겨 집니다. 사랑이란 용서해 주고 있어 버리는 것이요, 용기를 북돋아 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높은 표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이로써 “은혜 위에 은혜를” (교성 93:13) 끊임없이 더하여 가게 돕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영적인 지식은 어두운 동굴을 비추는 전등이요, 안개를 흩어 사라지게 하는 바람과 태양입니다……그것은 습지의 오두막집

이 아니라 언덕 위의 저택이며, 또한 낮이 아니라 수확이기도 합니다.……그것은 옥수수의 껍질이 아니며 영양이 풍부한 옥수수의 난알입니다.……참으로 그것은 이외의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기적을 낳는 신앙, 메저렛 출판사, 1972년, 14페이지)

내 생애 동안은 물론 나의 현재의 부름을 수행하면서 종종, 특히 최근에 겐세마네 동산을 방문하였을 때, 나는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심령에 고뇌를 느끼며 자주 가서 내가 생애 그 자체보다 더욱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도록 열심히 간구하곤 했습니다. 이따금 나는 상한 심령으로 고뇌를 느끼는 심한 외로움을 체험하기도 하였으며, 사탄의 시달림을 받았는가 하면 주님의 영의 따뜻한 위안도 받았읍니다.

나는 무거운 짐, 자신을 부적당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게 하는 회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덧없는 생각을 갖는 경험을 하였으며, 그리고 그후에 백배로 다시 용기를 얻게 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영

적인 시내산에 수십 번이나 올라가 교통을 하며 지시를 받으려고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거의 실제로 변형의 산에 애써 올라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큰 힘과 능력을 느끼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같이 특별한 성스러운 느낌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힘이 되고 있으며, 종종 나의 친밀한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를 확실히 간증합니다. 우리는 용기를 갖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힘을 증거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찬 시대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세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과 위안으로 우리는 큰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나의 아들이아,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 (교성 121:7-8)

내게 새로운 부름이 주어질 때 나는 자신이 매우 평범한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특별한 은사 하나를 갖고 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압니다. 나는 그가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 오는 동안 결코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간직해 왔읍니다. 나는 항상 이해하지는 못했읍니다만 내게 주어진 성스러운 지식으로 알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지식이 너무나 성스러운 것이어서 그것을 말할 수 없읍니다.

나는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며, 거룩하신 구속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며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네 구세주인 내게로 나아 오라”고 하신 주님의 권고에 따르기를 예수님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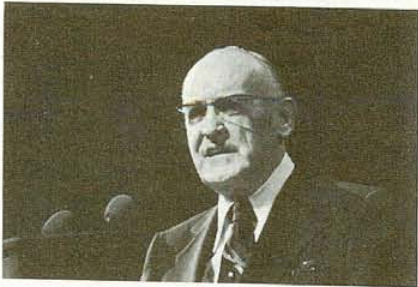


부모의 책임

오 레슬리 스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자녀를 합당하게 양육하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여기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되시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분은 부모의 책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를 받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남녀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대의 신뢰는 바로 어린 자녀의 생활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은행원, 시청 직원 또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돈을 맡은 자가 배임 행위를 하면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됩니다. 만일 정부의 기밀을 취급하도록 위임받은 자가 그 기밀을 누설하여 그의 조국을 배반하면 반역자로 일컬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태만이나 이기심을 추구하는 일에 빠지는 나쁜 욕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합당하게 양육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질 최대의 신뢰 곧 임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지 못한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생의 보화, 데저렛 출판사, 1965년, 71 페이지)

그분은 다음에 속하는 부모가 충실

하지 못한 부모라고 말했습니다.

1. 자녀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 부모.
2. 무례함과 불경스러운 언어로 가정의 분위기를 더럽히는 부모.
3. 매일의 가정 생활에서 교회의 표준에 따르지 아니하는 부모.
4.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
5. “네 멋대로 자라고 네 멋대로 선택하라”라고 말하여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자녀에게 신앙심을 불어 넣어 주는 데 태만히 하는 부모.(생의 보화, 72-74페이지)

다음, 그분은 질문을 하고 나서 한 가지 제언을 하였습니다. “부모되시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재산 목록을 만들어 자신이 성스러운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교리와 성약에 나와 있는 다음 제시의 말씀은 자녀에게 복음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시온의 주민이나 조직된 시온의 어떤 스테이크에 사는 주민에게도 하나의 율법이 되리라.”(교성 68: 25, 26)

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죄가 주일 학교, 초등학교 또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 교사의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바로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을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에이 디어더 터틀 장로는 이 주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미깊은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소홀히 다룰 수 없으며, 이 책임을 탁아소나 학교나, 더 우기 교회에다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책임은 하나님의 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부모는 이 명을 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면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제단, 천막, 우물”, 엔사인, 1973년 1월, 67페이지)

그러므로 모든 말일성도 부모의 성스러운 책임은 자신의 전력으로 온갖 일을 다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복음의 지식과 생의 참된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려면 두말할 여지 없이 우리는 먼저 개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일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들이 먼저 말일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휴 비 브라운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실로 [믿지 않고 있는 바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우리의 생활과 가르침이 서로 모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영원한 탐구, 북크래프트사, 1956년, 179, 181 페이지)

젊은 부모되시는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시어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의 방법대로 합당하게 가르침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며, 우리가 따르고 실천하도록 주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킬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브라운 장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기심과 탐욕, 산아 제한과 불임 수술, 쉽게 행하여지는 이혼, 파탄된 가정, 청소년 범죄 등으로 가득찬 이 시대에, 값싼 유흥과 태만이 판치고 기강이 결여된 이 시대에 기본되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가정은 국가의 가장 기본되는 사회이며, 어머니는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학교의 첫 번째 교사라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비전과 용기, 북크래프트사, 1971년, 24페이지)

가정이란 우리가 의와 선과 친절을

배우는 곳이며, 우리 생애의 첫 번째 학교요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가 성인 생활을 행복하고 의롭게 보내도록 준비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그의 어린 시절에 그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명 즉 자녀를 합당하게 양육하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여기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음식과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주고 생활 필수품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자녀를 위해 훌륭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책임과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행동 표준, 습관, 생각 그리고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 표준은 인생의 초기에 형성되며, 인생의 후기에 그러한 행동 표준을 바꾸는 일이란 대단히 힘든 것일 뿐 아니라 오랜 시일을 요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펜달 자매가 작사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노래 가사에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 노래가 교회 노래 중에서 가장 훌륭한 노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전세계의 교회에서 유년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만날 때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난 하나님의 자녀 나 비록 어려도
말씀해 주신 복음을 알게 해 주소서.

난 하나님의 자녀 당신 뜻 행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축복이 크도다.

길을 찾아 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다 함께 노래를, B-76

어린이는 성장함에 따라 보다 강한 독립심을 갖게 됩니다. 때때로 십대 청소년은 더 이상 부모가 필요없다고 느낄 만큼 성장하였다고 생각함으로써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생애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부모를 필

요로 하는 때가 바로 이 청소년기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은 벅찬 목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진전한 지식, 분별있는 이해력, 안내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에게는 깨끗하고 질서있는 참된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는 참된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아버지나 가장이라고 하는 이름 만의 부모가 아니라 진정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관심을 기울이고, 가족을 자신의 생활에서 첫째로 생각하며 자녀를 구원하고 다시 말해서 자녀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 행로에서 우연히 닥치게 되는 온갖 필박에도 굴하여 동요되지 않도록 훈련시키며 이것이 자신의 기본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여기는 부모 즉 사랑과 이해심이 많은 부모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들 청소년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진리에 굽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인 우리에게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질문에 정직하게 정확히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말하는 바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교사와 그 교사가 가르친 진리는 서로 하나로 일치될 것입니다.

다니엘 웨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리석 위에 새긴다 하여도 이는 없어진다. 놋쇠판이라도 시간은 이를 지워 버리고 만다. 성전을 세운다 하여도 언젠가는 무너져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원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불멸의 정신 위에 부각시켜 놓는다고 하면 이는 영원토록 밝혀 줄 돌 위에 조각한 것이나 다름없다.”(버튼스 티븐슨, 가정 일용집, 뉴욕:도드, 미드 앤드 컴퍼니, 1934년, 1312페이지)

스토운 자매와 나는 16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 이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손자 손녀를 합당하게 양육하느라 애를 쓰는 그들의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부모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 생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주님께에서 받은 계명을 지킬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약속된 축복은 현재 뿐만 아니라 영원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 계신 예언자요 지도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님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당신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자신이 돌보도록 주님께에서 맡겨 주신 영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종이었오.”라고 하는 말을 과연 부모되시는 여러분 중에서 누가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계를 다시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같이 여러분의 빛을 여러분의 자녀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마 5:16 참조)

우리는 자녀와 함께 복음대로 생활하여 나감에 따라 교리와 성약에 약속된 다음과 같은 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만일 내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중 가장 큰 것이니라.”(교성 14:7)

영생을 얻으리라는 약속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10)

우리가 모두 영생에 관한 이 약속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성취되도록 생활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면 이와 같은 큰 축복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간증과 기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경전을 연구하라

헨리 디 테일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매일 경전을 연구하면 우리의 간증은 보다 강해지고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됩니다.



게 됨을 알 것입니다.”(“항상 개심자로 행동하십시오”, 엔사인, 1975년 9월, 4 페이지)

리 대관장도 매일 경전 공부를 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간증을 영적인 양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전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간증은 점점 약해지며, 우리의 영성은 향상되지 않습니다.”(해롤드 비 리, 십이사도 평의회 지역 대표 세미나, 1970년 12월 12일)

요셉 스미스는 소년 시절에 경전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교회 본부 건물 안에 있는 어느 사무실에는, 침실에서 의자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는 요셉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때에 요셉은 야고보서에 있는 성구를 읽었음에 틀림 없습니다. 그는 이 성구를 통해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얻는 데 필요한 지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성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요셉 스미스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으므로 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농장에 있는 숲속의 외딴 곳을 찾아 가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뜻밖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극적으로 주어진 이 시현이 이 경륜의 시대에 그가 받은 최초의 계시였습니

다. 경전을 알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십 년 전 교회의 유명한 교육자 한 분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경전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계시판입니다.”(조지 에이치 브립홀, 장거리와 단거리 화살,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 출판사, 1934년, 189 페이지)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성경(구약과 신약), 물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공식적인 말씀을 경전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66 권의 책을 하나로 모은 것 구약 39 권과 신약 27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단 한 권의 책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의 권 수도 많고, 그 기간이 모세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250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이며, 책을 쓴 저자 역시 많으므로 책들 속에는 많은 다양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처음 다섯 권에는 히브리 민족에 관한 초기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조세퍼스와 다른 성경 학자들은 이 다섯 권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모세 5경”이라 불립니다. (비 에이치 로버츠, 신학에 관한 칠십인 과정, 데저렛 뉴스사, 1907년, 1: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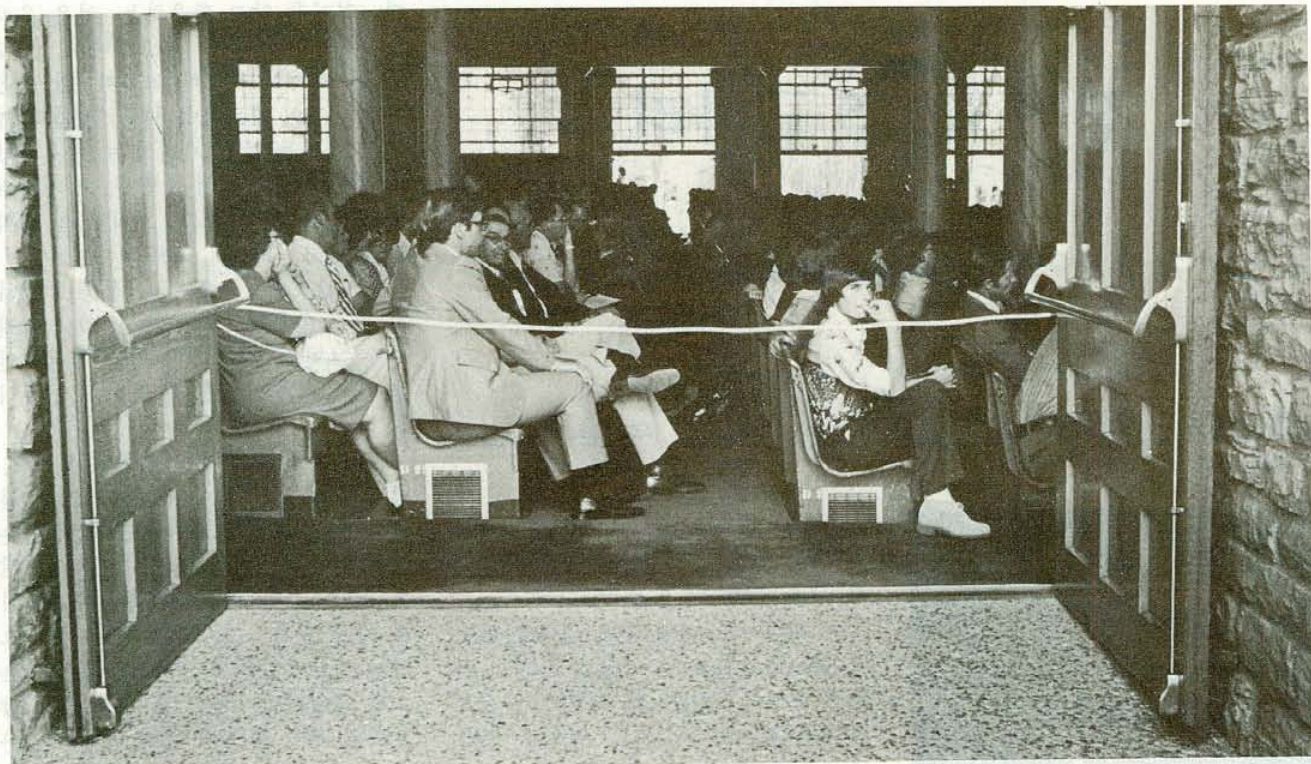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물몬경은 요셉 스미스가 천사 모로나이에 의해 보관되어 왔던 금판을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전에는 미대륙에 살았던 고대 백성들에게 주님이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행하신 일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전에는 우리의 구세주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일에 관한 아름다운 기록이 실려 있는데, 이 기록은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의 뒤를 이어 교회 대관장이 된 자들이 추가한 기록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검토한 책은 초기에 출판된 교리와 성약에는 “신앙 강화”라는 표제가 붙은 특정한 공과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 우리가 가진 교리와 성약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 공과는 1834년부터 35년 사이의 겨울에

구세주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던 동안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기록이든 말씀이든 모두 경전이다. 그것이 교회에 의해 기록되고 받아들여지면 경전 곧 표준 경전의 일부가 되며, 그후부터 우리는 그것을 읽고 공부하여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브루스 알 맥쿱키, 물몬 교리, 북크래프트사, 1966년, 682 페이지)

킴벌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경전을 공부하라고 권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셨습니다. “금년에는 다 함께 [경전]에 기록된 원리와 영감받은 권고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적용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필요할 때 개인적으로, 계시나 영감을 얻



대버나클 아래층 옆문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가졌던 장로 학교에서 사용하려고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공과를 신학 강의나 공과로써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 발표하거나 인정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현재 값진 진주에는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 그의 번역 및 담화의 내용에서 발췌한”(표제지) 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처음 여덟 장은 모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장에는 1830년 6월에 계시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장에는 1830년 12월에 계시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다섯 장으로 된 아브라함서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요셉 스미스가 두 개의 파피루스 두루마리에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4개의 미이라와 함께 관 속에 있었던 것으로 1831년 유명한 프랑스인 여행가 안토니오 세볼로가 지하 묘지에서 발견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 2:348 참조)

값진 진주에 포함된 세 번째 책은 요셉 스미스의 기록으로 주로 그의 역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네 번째 것은

신앙 개조로서 존 웨트워드씨에게 쓴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편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존 웨트워드씨는 뉴햄프셔주의 역사를 집필하고 있던 한 친구에게 자료를 제공하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교회 정사, 4:535 참조)

최근 값진 진주에 새로운 경전이 첨가되었습니다. 1976년 4월에 개최된 마지막 총회에서 대너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셨습니다.

“킴벌 대관장님은 여러분의 지지를 얻도록 내게 매우 중요한 결정 사항을 낭독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1976년 3월 25일,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개최된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모임에서 다음의 두 가지 계시를 값진 진주에 첨가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

“첫째는 1836년 1월 21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신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본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으로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들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1918년 10월 3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본 시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실 때까지)를 방문하신 것과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교

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엔사인, 1976년 5월, 19 페이지)

어제 우리는 총판리 역원을 지지할 때 지명된 분들을 예언자요, 선전자요, 계시자로 지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경전은 그 출처를 생각할 때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산 속의 원천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 가장 깨끗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순수한 말씀 즉 조금도 더럽혀 지지 않는 말씀은 우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 하도록 임명된 살아 계시는 예언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해롤드 비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테저렛 출판사, 1974년, 55-56 페이지)

우리는 경전을 공부하고 경전에 수록된 진리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전의 진리는 영생으로 인도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날 영감받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음을 확고히 간증드립니다. 다 함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나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진리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켰으며, 인간의 사상으로 이 복음을 대치하였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고, 이 모임에서 뿐 아니라 연차 대회 동안 개최된 지난 모임에서 이미 총관리 역원들이 말씀드린 간증에 나의 간증을 더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속주요, 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요셉 스미스는 말일에 지상에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여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받은 그의 예언자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동안 나는 그다지 심하지 않은 병으로 집에서 몇 주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회를 틈타 책을 몇 권 읽었고, 내가 받은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었으며, 두 번이나 선교부장으로 성별받을 때, 그리고 교회 관리 감독으로 성별받을 때 교회 대관장으로부터 받은 축복문도 읽었습니다. 더우기 24년 전 4월에 맥케이 대관장이 그의 보좌들과 십이사

도 정원회의 회원들과 함께 성스러운 신전에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하였을 때 내가 받은 대관장의 축복문도 읽어 보았습니다.

맥케이 대관장은 내게 축복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사명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성스러운 부름과 회복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나는 24년 6개월 동안 그때 맥케이 대관장이 내게 준 지시를 받아 들이고 이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큰 기쁨을 맛보며, 행복을 누려 왔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주는] 내 육신을 불사를 만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셨으며"(니이 4:21)라고 한 예언자 니파이의 말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의미를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온 몸에 진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히 6:5, 6)

이제 나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진실로 이 지상 생활에서 우리가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부유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들이 돈으로 산 어떤 물건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교 지역에서나 간증회에서

이 지상에 사는 겸손한 자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많이 보았으며,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과 능력을 받은 주님의 종들이 흘리는 많은 기쁨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어린 소년 시절에 조그마한 시골에 살았는데 그 때 주일학교 교사가 칠판에 요한의 말을 가르쳐 주신 것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칠판에 요한은 죄 사함을 위한 물의 칠패를 베풀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칠패를 주실 것이요"(눅 3:16) 소년이었을 때 나는 그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랜 연륜을 보았으므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내 생의 일부가 될 때까지 수없이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간증할 때 나는 주님의 영의 영향력과 능력을 받아 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높이 들리움을 받았음을 오늘 이 대회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후 11:3)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세계의 모든 성도에게 인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밝혀진 단순한 진리보다는 인간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이사야 24:5, 6)

또한 나는 주후 325년 콘스탄틴 황제가 소집한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318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4주일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속성에 관하여 토론하고 논쟁을 벌인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토론을 벌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고 부패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경전의 단순한 가르침에 따랐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 주 동안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위대한 사업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십 년 전 메사추세츠주에 되돌아와 선교 사업을 행하고 있었을 때 나는 은퇴한 목사 한 분의 가정에서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부활절이 다가오는 어느 때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신에 대한 그의 견해를 내게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보편적인 생각과 교회의 가르침에 관하여 말했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한 하나님이나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며, 지구와 꽃과 나무와 만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음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나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부활절 행사를 갖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갖지요.”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인가요? 무덤의 돌이 옮겨지고, 그가 살아나셨을 때, 그리고 여자들이 무덤에 왔을 때,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발 편에, 하나는 머리 편에 앉았다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눅 24 : 5, 6) 고 말했을 때 예수의 영이 다시 와서 그의 육체를 갖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몇 번이나 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후 그의 손의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게 하시고는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눅 24 : 39)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그는 생선과 꿀을 취하여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40 일을 보내신 후 그는 승천하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행 1 : 11)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기 보다는 영이시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가 다시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가 육체를 다시 가져 영적인 부활이 아닌 실제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기 보다는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에 지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牧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같은 상태가 만연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갔을 때 그들에게 그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나 온 나라에 흩어질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기 때문입니다. (신 4 : 28 참조) 그러한 신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에서 섬기는 신이 아닙니까? 또한 그는 이와 같은 상태가 만연되리라는 것을 오래 전에 알았으나 그런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 다. 그는 말일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말일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개념과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계신 것을 보았을 당시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비교할 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갖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계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에게 발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서 계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것을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본 놀라운 시현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의 간증에 따르면 그가 시현을 보았을 때 빛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 점점 밝아지더니 햇빛보다 더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요셉 스미스 2서 : 17)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만일 온 세상 사람들이 오늘 내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린 단순한 진리에 따를진대 어떻게 그를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영이라고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 5 : 8) 오늘날 기독교계의 그릇된 개념에 따라 예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영이시라면 그들이 그를 볼 때 무엇을 보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은 꽃과 식물과 나무를 보기를 원할까요? 말일성도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권세를 갖고 큰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볼 날이 이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나 나타나기 위하여 육체를 버리셨으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분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진실로 이것은 말일에 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알게 된 위대한 진리의 하나님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가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엡 2 : 20) 나는 그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며, 교회를 인도하고 관리하시는 분임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분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타나신 이래 교회가 이룩한 업적을 살펴보고 그것이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존 에이 윌소 형제는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에 배렛 기념관에서 교리와 성약에 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리차

즈 자매와 함께 그 강의를 듣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네즈 위트백 자매도 그곳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위트백 자매는 낭독을 잘 했습니다. 그는 “위트백 자매님, 몇 편을 읽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다른 편에 있는 구절을 더 읽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후 그는 일어나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습니다. 자,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대학 교수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런 다음 그는 다음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두 종합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분이며,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저술한 분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금융, 산업 그리고 교육계에 위대한 지도자를 많이 배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교실의 내부조차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전한 것을 그대로 저술해 보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그의 주위에는 많은 현명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대학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 보다 제시를 더욱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그들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자를 선택하여 그로 하여금 예언자를 통하여 주어진 주님의 계시 중 중요성이 가장 적은 계시와 똑 같은 것을 써 보게 하라고 명하시면서, 만일 그가 그렇게 행하는 데 성공한다면 주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계시로 밝혀 주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징계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현명하다 할지라도 그들 중 아무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행한 업적을 상상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구속주를 제외하고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처럼 계시로 밝혀진 많은 진리를 세상에 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교리와 성약을 읽고 공부하고 나서 요셉 스미스가 그것을 썼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로 교리와 성약 76편을



철십인 제일 정원회의 스티어링 더블루 실 장로와 헨리 디 데일러 장로

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그는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을지라도)이 세계 하늘에 이끌려 간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과 낙원으로 이끌려 간 사람(우리에게 주어진 곳은 그 아래에 있는 곳이었음)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도 없이 세계 하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본 바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또는 그가 해로 비유한 하늘에 갈 자와 달의 영광을 얻을 자와 별의 영광을 얻을 자를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관하여 기록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실 형제님은 오늘 여기서 이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교후 12:2-4; 교전 15:40-42 참조)

그러나 그 계시는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에게 나타내지도록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그 계시는 교리와 성약 76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상의 기록에서 옮겨 쓴 것이다.”(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 1:252)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경전의 대부분은 인간이 지상에 거하기 훨씬 오래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인 그리스도가 희생으로 바쳐지리라는 것이 이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음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죽

임을 당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계획에 따라 그는 몸소 자신을 바치셨으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셔야만 했습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교리와 성약을 통해서 전한 바와 값진 진주와 물몬경과 세 목격자의 놀라운 간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분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러한 간증을 읽은 후 그 책이 참된 것인지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물몬경의 끝 부분에 나오는 약속 곧 누구든지 이 기록을 읽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성신의 권세로써 그에게 그 기록이 참된 것임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지라도 그 응답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읽고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나는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지상에서 승리를 거두고 존속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총관리 역원들이 개최하고 있는 훌륭한 지역 대회를 생각하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하게 될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영원한 승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두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드리며, 나의 축복의 말씀과 간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살아계신 예언자

렉스 디 피네가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의 행동은 그의 부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새로 조직된 칠십인 제일 평의회에 속한 형제님들을 지지합니다. 주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어 새로운 직책과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살아계신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예언자들에 대하여 이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4년간 나는 한 분의 예언자와 함께 가까이 유대를 맺을 수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저녁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언자요, 선전자요, 계시자로서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이 맡으신 성스러운 부름과 사명에 대한 확고한 간증을 갖게 해준 내 자신의 경험담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김볼 대관장님이 교회 대관장이 되셨을 때 대회에 참석하였던 것은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권 소

유자들이 손을 들어 김볼 대관장님을 지지하였을 때 마음 속으로 나는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는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처럼 김볼 대관장님은 용기있게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은 영의 지시에 민감하신 실천가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비행기에서, 버스에서, 대기실에서, 호텔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보았습니다. 그분은 독서하고, 준비하며, 경청하고, 교훈과 모범으로 가르치면서 항상 움직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봉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실 때, 영감받은 분으로서 온화한 태도를 나타내 보이며 그들을 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생활에서 자신의 임무를 보다 뛰어나고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격려하실 때 너무 바쁘거나 너무 피로하여 개개인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시지 못하는 경우는 결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한 젊은이가 상담하기 위하여 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에 걸려 있었는데, 생존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여 죽기 전에 총관리 직원 한 분을 찾아뵙고 싶어 했습니다. 렉터 장로님과 함께 김볼 대관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나는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그 젊은이의 병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으며, 그와 함께 몇 분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관장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

을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유럽에서 지역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뉴욕에서 잠시 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딱 짜인 여행 일정으로 지치고 피곤하였으나 김볼 대관장님은 독일 뮌히히 선교부로 가고 있던 선교사 6명을 무척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족과 선교사로 일하게 된 그들의 소감에 대하여 물어보신 후 선교부 산하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부가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근면하고 충실하라고 권고하시고는 그렇게 행하면 반드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은 영적으로 고조되어 보다 충실히 봉사할 것을 결심하고 떠났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1975년 아르헨티나 지역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김볼 대관장님은 많은 청소년들이 모인 모임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한 후 곧 그분은 준비된 연재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주셨습니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자신의 목소리를 회복시켜 준 수술에 얽힌 경험담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이 자신의 목소리를 회복하여 주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현재의 목소리가 과거에 가졌던 목소리와 똑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전에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노래할 수 없으나 분명히 음성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그날 밤 그분의 목소리가 참으로 아름다웠으며, 그 목소리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그곳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십일조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곧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께서는 “형편이 좋으면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템플 스퀘어 방문자 센터에 있는 그리스도상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막 16 : 15)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킴벌 대관장님은 젊은 자매들에게 젊은 형제들이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돕고 그들로 하여금 선교사로 나가도록 격려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킴벌 대관장님은 그의 말씀을 끝마치시면서, “주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다음 그분은 자신의 목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로 밝혀진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킴벌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우

리의 걸음의 폭을 넓히라고 권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1975년 나는 아내와 킴벌 대관장님 부처와 함께 콜롬비아 보고타에 갔었습니다. 우리가 대관장님의 출발을 준비하기 위하여 비행장에 나갔을 때 항공사 대표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훌륭한 젊은이를 소개하자 즉시 예언자께서는 손을 내미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내가 다움에 자네와 악수할 때에는 자네가 우리 교회의 회원이기를 바라네.” 주저하지도 않고 예언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젊은이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킴벌 대관장님은 선교부장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로부터 그 젊은이에게 복음을 가르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보고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

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신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 졌습니다. “전력을 다해 주님의 사업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날 나는 예언자께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물론 부름의 정신대로 몸소 실천하는 데 어떻게 전념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예언자의 이와 같은 선교 방법의 효과에 매우 크게 감명을 받았으므로 푸에르토리코에서 직접 그 방법대로 시도하였습니다. 2,3주 후 나는 지방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푸에르토리코의 상 후왕에 있었습니다. 오전 모임이 끝난 뒤 마르티네즈라는 형제가 비회원인 그의 어머니와 누이들을 인도하여 나와 내가 그들을 만나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단상에 기대어 있을 때 나는 마음 속으로 킴벌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부인, 다음에 내가 당신과 악수할 때에는 당신이 우리 교회의 회원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놀라고 기뻐하였는데, 이는 그녀가 진지하게 즉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회가 있는 지 5주 후에 마르티네즈 형제의 가족은 칙례를 받았습니다. 그후 그 형제의 부친도 가족을 따라 3주 만에 칙례를 받았습니다. 이같은 경험은 적어도 6번이나 되풀이 되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이 보여 주신 모범을 따름으로써 나의 삶은 풍성 해졌습니다.

지난 여름 나는 아내와 함께 킴볼 대관장님과 킴볼 자매님 그리고 다른 총관리 역원과 그들의 부인과 더불어 스칸디나비아와 유럽에서 개최된 지역 대회에 참석하는 축복을 또 받았습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마지막 모임을 가진 후에 우리는 모두 돔(둥근 지붕으로 만들어진 큰 건물)이라 불리는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이 웅장한 건물 안에는 덴마크의 가장 훌륭한 조각가인 베르틀 투어발손의 작품 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 그리스도상과 십이사도상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웅대한 그리스도상은 제단 건너편 대성당의 정면에 위치한 벽의 움푹 들어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대성당의 양쪽에 정돈되어 세워져 있는 십이사도의 상은 살아 있는 것 같으며, 예수를 판 배반자 가롯 유다 대신에 바울의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서 베드로는 큰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으며 요한은 경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십이사도 중 다른 분들은 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였는가 또는 어떻게 순교당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각 사도의 상을 유심히 들여다 보셨습니다.

우리가 대성당을 떠나려 했을 때 덴마크인 관리인인 60세쯤 된 노인이 출발하려는 우리를 대가하며 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그와 악수를 나누시고, 우리가 대성당을 방문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신 그 노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킴볼 대관장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언자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매우 평범한 말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상들을 조각한 분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위엄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조각가 투어발손이 1821년부터 1844년까지 여기서 그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조각하고 있었을 동안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미국에서 그의 사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투어발손은 요셉 스미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영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상을 조각하도록 영감을 받은 분이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이 상들에게서 생명감을 느끼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니 부대관장님 그리고 몬슨 장로님과, 패커 장로님이 대관장님께 가까이 다가서자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사도들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한 열 두 명의 사도와 교회 대관장단을 구성하고 있는 3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열쇠를 갖고 있으며, 그 열쇠를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들은 항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후 대관장님은 “이 형제님이야말로 진실로 살아 있는 칠십인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소개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세주께서 열 두 사도와 칠십인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앞에서 칠십인을 들씩 짊어 그가 직접 방문하게 될 모든 성으로 보내어 그보다 먼저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캄된 복음을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언자가 자신의 부름에 대하여 증거하는 간증을 들으며, 살아 있는 사도들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설명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희열을 맛보게 하는 영적인 느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상들이 아름답게 훌륭한 솜씨로 조각되어 있었을지라도 대리석에 불과하였으며, 우리에게 그들을 대

표하는 실체의 신권 소유자들을 상기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신 예언자와 사도들과 함께 있음을 느낀 것은 진실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대리석” 조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던져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언자의 지시에 따르고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본보기”,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는 살아 있는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예언자로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받은 성스러운 부름에 대한 나의 간증은 그분이 지지받았을 때 가졌던 그에 대한 강한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이 개인과 그들의 많은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교회 회원이나 비회원과 더불어 사적인 일을 행할 때 보여 주신 모범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나는 개인에 대하여 갖는 그분의 관심, 그분의 담대한 선교사 정신 그리고 온힘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열의를 보고 느껴 왔습니다. 이때마다 내 마음 속에는 진실로 그분이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간증이 심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우리 교회의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에게는 살아 있는 사도들이 있으며, 사도들 중에 으뜸되는 사도가 곧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이분들은 모두 신권의 권능과 권세의 열쇠, 다시 말해서 구세주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행사하셨던 구원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다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상에 이와 같이 훌륭한 분들을 두시어 그분의 면전으로 다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잘 보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그분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신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마음에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간증과 확신을 마음 속에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폭풍우도 잔잔한 바람도 없습니다.



형 제 여러분, 나는 패커 형제님의 훌륭한 말씀과 총관리 역원 한 분이 방금 전하신 말씀을 매우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내가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성구로서 사도 바울의 보조자인 디모데에게 한 권고의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베풀어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딤후 1:6) 우리는 모두 신권 곧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은사는 신권과 우리를 성임할 권능을 소유한 자를 “안수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이 성구는 성신의 은사의 부여나 신권 성임이나 또는 두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좌우간 최근 내가 귀환 선교사의 보고를 귀기울여 듣고 있을 때 이 권고가 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와 동반자가 거주하고 있던 가정의 주부는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그녀의 남편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온화한 태도를 보이며 선교사들이 할 일이 전혀 없을 때 자기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언젠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었는데 주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와 함께 첫 번째 복음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았으나 그들이 복음 토론을 끝마쳤을 때 그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믿습니까?” 그는 물었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820년 실제로 이 지상에 오시어 소년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 당신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폭풍우도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면 당신들은 밖에서 계속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며 여러분이 가진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생각해보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을 자문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얼마나 심한 폭풍우가 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데 얼마나 심한 폭풍우가 불어야 할까요? 내가 관철한 바에 따르면 신권 소유자인 대부분의 우리는 안수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는 길의 하나는 자기 수련과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이해력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전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과 함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그는 내 마음속에 복음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심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들에게 교회 표준에 따라 보다 충실히 생활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 회원들이 복음의 원리를 보다 깊이 이해한다면 더욱 충실하게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나의 의견도 그의 의견에 일치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그와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맨 먼저 디모데의 “저 것이 없는 믿음”을 언급하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베풀어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딤후 1:6-8, 13)

교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바울의 이 권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이 권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우리가 바울이 말한 그대로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



엔 엘돈 태너 부대판장과 담소하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님

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우리들)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하고 나서, “(우리들)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할 수 있는 특정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이 말은 사통, 모든 종류의 성도착, 저속한 행동 그리고 외설 등 모든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는 또 이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 2:9, 11-12)

다음 권고는 구세주께서 하신 권고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베드로는 율법에의 순종을 다음과 같은 말로써 강조했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벧전 2:13-15)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무법 상태 때문

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이 권고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율법뿐만 아니라 국법을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율법은 이 땅에서 준수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국법을 범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국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교성 58:19, 21)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에 관하여 베드로가 말한 모든 것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여 끝을 맺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

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체휼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벧전 3:8-12)

형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저희들이 기쁘게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교성 20:77)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거하고 나서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교성 84:39)을 받아들인 후에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기”(벧전 2:24)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말과 같이,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벧전 4:2)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우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책임에 주의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면 다음 약속

이 성취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 5:2-9)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복음의 원리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우리의 생활에서 적용하는 데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고 나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받은 자들에게” 전해야 할 바를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때문에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셨으며”, 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약속도 하셨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주님이 명하신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게는 대단히 흥미롭고 가장 감명 깊은 일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믿음에 덕을…지식을…절제를…인내를…형제 우애를…사랑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 품족한즉 [우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케 하

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바로 이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내가 죽은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는 자신이 산에 있을 때 구세주와 모세와 일라이아스를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벧후 1:1-18)

내가 말씀드릴 바와 같이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이 변형의 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경험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샅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벧후 2:19)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더욱 분명한 예언의 말씀은 어느 사람이 성 신권의 권능을 통하여 계시



찬송을 부르는 농아 회원들

빛 예언의 영으로써 영생에 이르도록 결봉된 줄 알고 있음을 가리키느니라.”(교성 131 : 5)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한 칙례를 받으며, (안수로써) 첫 번째 보혜사인 성신을 받은 후에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겸손하도록 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생활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에게 “아들아, 네가 승영에 이르게 되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그를 시험해보신 다음 그 사람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섬길 결심을 하였음을 아실 때 그 사람은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주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바요, 요한복음 14 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보혜사를 받아들이는 특권을 가질 것입니다.”(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역사, 3 : 380)

이상에 말씀드린 베드로의 권고와 간증을 꼼꼼히 생각해보고 나는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숭고한 말을 기록했습니다”라고 예언자 요셉 스미

스가 말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정사, 5 : 392)

끝으로 디모데에게 준 권고를 빌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으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우리가 신권 소유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하며,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폭풍우도 잔잔한 바람도 없음을 확실히 믿기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더 오래 일할 준비를 갖춘 젊은이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모든 가장은 어떻게 하면 자신은 물론 자녀를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유하며, 우리가 전세계에서 이같은 큰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유일한 백성임을 아는 것 역시 큰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킴벌 대관장을 비롯해서 최근에 성임된 집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이 특권에 수반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 함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음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합시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신권을 존중하고 우리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악에 대하여 이미 많이 들었고, 지금 듣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실제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전세계가 거의 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여러분도 역시 악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데 싫증이 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마 부서진 레코드를 듣고 있는 느낌마저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일리노이주의 록포드에 있는 록포드 대학의 학장인 존 에이 하워드 박사의 말씀에서 발췌한 내용을 약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하워드 박사는 브리검 영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는 대평원을 횡단하여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우리의 초기 개척자들의 문제와 희생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일

은 덜 힘든 일도 아니며, 여러분이 꽃을 피워야 하는 불모의 땅도 덜 매마른 땅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개척자들이 처하였던 상황과는 달리 여러분은 미묘하고, 유동적이고 교묘히 잘 빠지는 그러한 황무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여러분이 정복해야만 하는 황무지는 거짓의 정체를 밝혀야 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하며, 참된 것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거짓을 반대해야 하는 이중의 필연성이 존재하도록 문명으로 위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텔레비전의 도덕적인 타락은 동거 생활이 일반화되어 있고, 불법적으로 환각제를 먹는 것이 더 이상 세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만 대학 구내의 도덕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밀물같이 격증하는 범죄는 부정적의 홍수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적절하고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밀물처럼 불어나는 범죄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실현성이 없는 일을 공약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공사 비용이 항상 제 3자의 호주머니 속의 돈으로 지불될 수 있다고 믿도록 기만하는 정치인들의 부정적의 홍수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10년 전 이 사회의 실정을 상상하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빈민굴이라는 은어는 공식 상의 연설, 연극, 영화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 다. 남녀 공학을 실시하는 학교의 기숙사는 우리 나라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 늦게 시내의 거리를 혼자 걷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 다. 외설 서적은 신문 잡지 판매대에서 공공연하게 구입할 수 없었으며, 춘화도를 지방의 모텔 로비에서 마음대로 살 수 없었습니 다. 더우기 일반 서점에서 공공연히 외설 서적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 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내에서 여러분처럼 언행이 일치하고 종교적인 책임감이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쌓고, 더 오래 일하고 종교의 원리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을 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자기 신뢰의 태도를 가진 어떠한 무리의 젊은이들

형제 여러분, 이 유서깊은 태버나클에 모인 이같이 많은 신권 소유자를 보고 또한 이외에 전세계의 교회 예배당에 모인 수천 수만의 형제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인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의 외치시는 부름에 응할 수 있게 준비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예언자이신 킴벌 대관장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사업을 관리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신권 소유자들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매우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내가 말씀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광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생각하는 바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나는 기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어 하나님의 신권을 소

도 여러분의 세대중에서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판단이 정확하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큰 축복과 고귀한 특권을 누리는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은 브리감 영 대학교에 보내는 훌륭한 찬사입니다. 이 찬사는 다른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고 있고, 오늘날 세상의 실정을 잘 알며, 이같은 주제로 연설할 자격을 갖춘 분인 비회원이 행한 말씀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읽은 후 나는 “브리감 영 대학교를 이같이 훌륭한 위치에 놓이게 한 요소는 무엇일까?”라고 즉시 자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브리감 영 대학교를 오늘의 위치에 놓이게 한 이유를 서너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대학교는 하나님의 신권의 지시에 따라 설립되었고, 아직도 그 신권의 영향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수가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왜 지상에 살고 있는지 알며, 회복된 복음의 원리를 교훈과 모범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둘째, 이 대학교의 재학생 대부분은 가정에서도 이와 똑같은 복음의 원리를 배우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자녀임을 알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셋째, 교회 조직과 역원과 교사의 모범을 통해서 젊은이는 성장하면서 강한 힘을 기르고 있으며, 대학 구내에 조직되어 있는 지부와 스테이크의 역원과 교사와 회원으로 일함으로써 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째, 강한 간증과 훌륭한 경험을 쌓은 귀환 선교사들의 큰 영향력은 캠퍼스 안에 종교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나는 이 기회를 빌어 가장 중요한 경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대학교나 교회나 개인이 우리가 도달하여 닦아 놓은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구함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더

욱 향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보다 충실하게 철저히 생활하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워드 박사가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의 책임에 대하여 말한 바가 사실이라면, 실제로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교회는 물론 교회 역원과 회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신권으로 인도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권을 존중하고, 우리 각자의 직책과 부름을 성실히 수행할 때만이 이 일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을 대항하려 한다면 교회 전체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확실히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관장단과 총관리 역원들은 악과 유혹의 영향이 교회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청소년은 물론 성인 회원의 대부분의 생활에 악과 유혹이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실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자들이 얼마나 심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면 우리는 모두 상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주님 보시기에 심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사랑과 친절과 경고의 말씀으로 전력을 다하여 모든 회원으로 하여금 진리와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가도록 강화하고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정은 다음과 같이 최악의 상태를 보고 느낀 니파이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니파이는, “이토록 끔찍한 최악이……니파이인들에게 창궐한지라……마음 속에 치솟는 슬픔으로 가슴이 메었고, 영혼을 쥐어뜯는 아픔으로 통곡하여 부르짖”(히 7:6)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모든 가족, 가장, 성인 그리고 신권 소유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은 물론 자녀를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제임스 이 탈메지 장로가 쓴 “결함이 있는 밋테리의 비

유”를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앨버트 엘 조벨 이세, 제임스 이 탈메지의 비유, 데저렛 출판사, 1973년, 7—12 페이지) 그는 특정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매우 센 1차 전류가 필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수에게 아주 간단한 전지 12개로 된 밋테리를 준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조수는 평상시에 하던 방법대로 하였습니다. 조수는 산성 용액이 담긴 항아리 12개를 준비하였는데, 그 안에는 판 한 벌, 탄소 1개, 아연 하나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1개의 전지를 합한 세기의 전류가 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소한 것,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되느냐 실패하느냐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하찮게 생각되는 일에 각별히 주의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탈메지 장로는 밋테리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밋테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밋테리를 조사해보고 모든 전지가 똑같이 작용하지 않고, 몇 개는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용액은 배기가스 때문에 마치 물이 끓는 것과 같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는 전력이 약해졌습니다. 밋테리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실제로 그 자체의 내부 저항을 극복하는데 사용되어 밋테리는 전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밋테리를 분해하여 각 전지를 하나씩 정밀하게 검사했습니다. 처음 여덟 개의 전지는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홉 번째 전지는 매우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 전지를 뜯어 내었습니다. 다른 전지는 검사해 본 결과 전부 정상적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전지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전지는 또 다른 것보다 연기가 많이 나고 더 시끄러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는 그 전지를 떼어 내고, 1개의 전지를 연결한 후에 그 전지들이 전기 수신기를 작동시키는 데 충분히 센 전류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떼어 놓은 전지를 검사하고 그 전지의 회로가 연기와 거품으로 인하여 단락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산성 용액이 절연체의 몇 군데를 파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

는 단지 내부에서 전부 소모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작용의 법칙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의 내부를 결합이 있는 상태로 부패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작용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전지였을 뿐 아니라 함께 조립된 여러 개의 전지 중에서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는 다른 전지들의 작용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전지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전지를 다시 고쳐 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지의 속을 살펴보고 칼과 줄로써 침식당한 결부분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세척통에 담그었다가 다시 조립하여 엄밀히 시험해보았습니다. 점점 그 전지는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게 되어 마침내 다른 전지들과 거의 똑같이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전지가 고장이 나기 전에 자기가 신뢰한 것 같이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고 주의해서 전지를 계속 살펴 보았습니다.

탈매지 장로는 이 경험은 실제로 체험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그것을 비유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불타 전지와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큰 소리를 지르고 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며, 더우기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기여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은 결합이 있는 자신의 내면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 완전히 소모되고 맙니다.

이외에 잠자고 꿈만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며 놀고 있는 사람이며, 실용성의 표준에 바탕을 둔 판단에 따르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거의 나타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묵묵히 힘써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헌신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와 함께 유대를 맺고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쾌한 전지 곧 결합이 있는 전지는 적인이나 다름 없습니다. 합당치 않음은 내면의 무질서 곧 자기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



대회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에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 스미스의 동상

고 있는 이와 같은 결합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란 근본적으로 율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합을 지닌 자들이 깨끗하고, 유능하며, 열의에 찬 다른 사람들과 유대를 맺고 생활할 때 센 전류를 흐르게 하듯 큰 힘을 내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전체의 능력은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않으며, 결합이 있는 단 하나의 전지로 말미암아 감소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신권 소유자로서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며 결합이 있는 전지와 같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우리의 헌신과 활동을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한다고 느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특히 백성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 하는 경향에 있는 풍조의 시대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악한 계락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빈틈없이 경계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회원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재정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한층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마음을 폭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경향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배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의 것에 얽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니파이인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백성들에게 사탄의 심한 유혹을 물리치도록 경고하였습니다.

“보라 그 날에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 하고 하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니파이이서 28:20-21)

다 함께 오늘날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 가는 세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첫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음, 둘째 지혜의 말씀을 어김, 세째 순결하지 않은 생활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오락의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직업 선수들의 운동 경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운동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선수로나 관중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풍요를 누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보우트, 모터사이클, 야영 장비, 낚시도구, 기타 운동구를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요일을 포함해서 주말을 최대한으로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많은 청소년이 금단의 길에 빠져 들어가 중독성이 있는 술과 담배와 환각제를 먹어보는가 하면, 그러다가 결국 이 같은 일과 관련된 다른 많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더우기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술과 담배만큼이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성은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개인을 어느 집단의 구성원의 “하나”가 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외설 서적과 그림이 범람하고 있으며, 그것이 모든 면에서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성인이거나 청소년이거나 간에 누구든지 사회의 도덕을 문란케 하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적과 그림을 보거나 그러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그것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성도 착 행위를 하는 자, 강간자, 도둑은 그들의 인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들의 마음 속의 생각이 그들의 행동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도덕과 음란이 널리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청소년은 텔레비전과 영화를 통해서 묘사되는 여러 가지 성적 타락을 보고는 이러한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신권을 소유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영생을 얻도



대버나클 입장을 줄지어 기다리는 성도들

록 자신을 깨끗하고 순수하며 순결하게 간직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악에 대항하여 싸우고, 우리의 청소년을 강화시켜 주며, 우리의 자녀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 가도록 하여 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특이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신명기 14:2)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있는 것을 아는 것같이 나는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영체를 가지신 분으로 살아 계시며, 그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알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요 3:16)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권 소유자로서 살아 갈 합당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오셔서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가 누구이며, 왜 지상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소년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모범을 보이도록 항상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오늘 저녁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인 남자와 소년에게 내가 권고한 바대로 합당한 자가 되며, 자신을 평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생활하고, 어디에 있는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마음 속으로 결심하도록 당부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같이 할진대 우리가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갈 때 반가히 영접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지상에서 우리의 일을 끝마친 후 그곳에서 함께 만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

우리의 리아호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우리는 생의 황무지와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방향
구인 양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30,000여 명의 우리 형제들이 이같이 함께 모일 수 있다니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오늘 저녁 이 모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두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미국 서부에 있는 모든 스테이크 부장단에게 초등학교 어린이가 병원이 연해 폐니 퍼페이드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상당한 보조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바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병원 당국에서는 인종이나 종파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받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보조가 없게 되므로 병원에서도 아동 기금을 조직하였으며, 1977년 2월에는 동전 모으기 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증받은 모든 기금은 역시 자선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께서 적극 호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요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일년여 전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교회 여성 기념상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1942년 3월 17일에 상호부조회를 나부에서 조직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기념상은 당연히 나부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업의 기금이 주로 교회 여성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충당되기를 바라며, 이 제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기념상의 작업은 추진되고 있으며, 헌금도 현재 접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단과 감독 여러분께서는 이 사업을 적극 밀어 주시고 각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최선을 다해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도록 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형제님들께서 밀어 주시면, 이러한 기금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기여한다면 각 사람이 내는 헌금의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형제님들께서도 이 훌륭한 사업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다음해 창립 기념일인 3월 17일까지 모든 기금이 확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각 자매가 상호부조회에 조금이라도 기금을 냄으로써 이사업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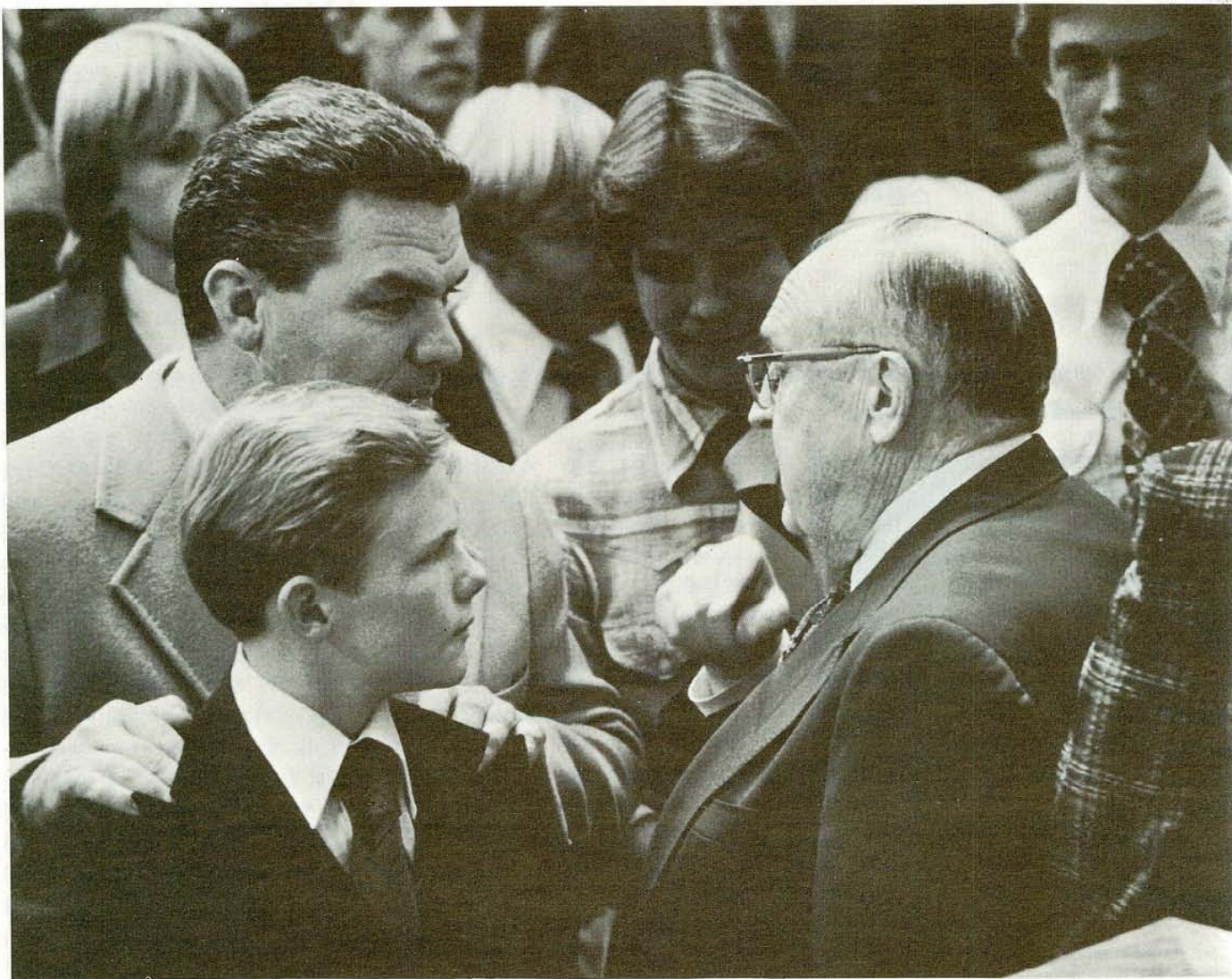
또 다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나 예배당 등의 여러 조직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언제나 정통 교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경전에 의거하지 않거나 과거 몇몇 성직자들의 가르침에 따른 교리를 전파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담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리를 반대하며, 이와 유사한 거짓 교리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 젊은 형제분께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열 네 살 때 영화로운 시현을 받은 요셉 스미스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부모 형제와 모든 권속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리라는 것을 꿈 속에서 본 요셉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반항적인 형들을 제압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리하이와 그의 가족의 후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판을 혼자서 회수해 온 니파이를 여러분 자신으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기 형들과 기타 가족을 이끈 어린 니파이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친이 천막 밖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가족에게 어서와 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니파이를 여러분 자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밤중에 부친인 리하이를 방문하여 다음날 광야로 향하여 여행을 계속하라 하신 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한 방향구였습니다. 그 공을 본 식구들은 몹시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공이 “훌륭한 솜씨”와 “신묘한 솜씨”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같은 것을 이전에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니일 16:10) 거기에는 두 개의 바늘이 달려 있어서 그들 일행이 나아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바늘 한 개가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리하이는 그것이 광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상한 공의 작용에 대하여 크게 흥미를 갖고 자세히 살펴본 사람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열의와 신앙” 그리고 “그 지침을 신뢰하는 마음의 정도에 따라” 그 바늘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니일 16:28) 만일 여러분이 좀더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제임스 에이 켈리모어 장로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 공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길을 설명해 주는 “읽기 쉬운 새로운 글자”도 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은 “시시로” 바뀌어, 식구들이 그 공에 쏟는 “열의와 신앙에 따라” 주께서 더 큰 것을 명하셨다면 어땠겠습니까? (니일 16 : 29)

이 방향구처럼 신묘한 솜씨로 만들어진 것은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침이 가리키는 방향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글자는 필요에 따라 시시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도 형들 보다도 강한 니파이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리아호나라고 불리우는 공에 써여진 지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 방향구가 가리키는 곳으로 따라가니 광야의 한 곳에 비옥한 곳이 있어 충분한 양식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오랜 여행으로 인하여 마침내 식량도 다 떨어지고 자녀는 굶주림으로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강철로 만들어진 활과 화살을 갖고 있었는데, 부주의하여 활을 부러뜨렸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의 나무 활은 탄력을 잃어 가족의 식량으로 할 들짐승을 잡을 수 없었던고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몹시 화를 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형들은 여러분을 천막으로 끌고 와 “광야에서 겪은 고통과 가난으로…… 몹시 불평”하면서, 이 배마른 광야로 그들을 이끌고 온 것에 대하여 부친과 여러분과 십지어는 주님께도 마구 불평을 토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니

일 16 : 20) 식량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형들로부터 온갖 불평과 비난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활을 만들고 곧은 막대로 화살을 만들었으며, 새로 만든 활과 화살과 돌과 투석기로 무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는 부친께 나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고기를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사랑하는 부친의 신앙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부친조차 주님께서 이러한 황무지로 가족을 떠나게 하신 것에 대하여 불평을 토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친도, 형들과 마찬가지로 신앙과 겸손함의 부족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부친께서 주님으로부터 “방향구를 보고 그 위에 적힌 것을 보라”(니일 16 : 26)는 지시



십이사도 평의회 의장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를 받고, 부친과 형들과 온 가족과 함께 열심히 방향구와 지침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향구는 참으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자 여러분의 가족은 모두 두려움에 떨면서 방향구 주위에 모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 가족과 함께 방향구의 지침은 “열의와 신앙에 따라 움직이며” 여러분이 그 지침을 “신뢰하는 마음의 정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떨지 않았습니까? (니일 16 : 28)

오랜 여행과 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 여러분은 결국 형들에게 배를 만 들어 그 배를 타고 대양을 떠나는 일에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확신시켰다면 어떻겠습니까? 항해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형들의 신앙이

없어지고 심히 무례하게 되어 지침이 움직이지 않고 배가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니일 18 : 9 참조) 그들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형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 생활을 하기만 한다면, 지침은 움직일 것임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어 속박에서 풀어 주시고, 형들도 어느 정도 회개하여, 지침이 다시 잘 움직여서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방향구 또는 나침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리아호나는 주님께서 특별히 리하에게 광야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릇된 길에 들어섰을 때 옳은 길을

가리켜 주고, 메시지를 써 줌으로써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방향구가 우리 각자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젊은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나쁜 길로 들어설 때마다 그에게 말해 주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들으려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나, 양심의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그것을 무시하게 되어 결국은 아무 것도 듣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 속에 리아호나와 같은 양심의 나침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나침반은 모든 자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정 교육을 잘 받은 자녀는 여덟 살이 되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인품 속에 들어있는 리아호나를 무시해 버린다면, 그는 결국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올바른 길을 가리켜 주는 나침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리아호나라는 양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배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고통받지도 않을 것이며, 활이 부러지거나 가족이 굶주림으로 울부짖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호주의 멜버른에서도 대회 말씀을 훌륭하게 듣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세계 도처에서 이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훌륭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혼 깊숙히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세상의 구세주 역시 살아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양심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리아호나가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총판리 직원들의 모든 말씀에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안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대회의 목적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대회의 목적은 경고의 음성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일단 그 음성을 들은 우리는 이웃에게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갖는 지역 대회에 대한 것을 흥미있게 귀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대회의 목적과 절차 그리고 지역 대회를 갖는 각 지역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이 받는 영향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유럽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킵블 대관장께서는 전 세계의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관계로, 교회 총회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본부에서 4월과 10월에 갖는 연차 대회로만 제한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처사가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선, 세계 각처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고 싶기는 하나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로 대회를 가져가는 것입니

다.

지역 대회는 대관장이 성도들을 만나볼 수 있고, 또 회원들이 예언자와 총관리 직원, 그리고 그들의 부인을 직접 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세계의 중요한 위치에서 갖습니다. 근본 목적은 그 백성들의 환경에 맞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심어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의무를 다하게 하며, 그들의 신앙과 열의를 키워주고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는 데 있습니다.

현재 75개국에 회원들이 있지만, 교회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은 58개국뿐이며, 이 나라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28개 국가에서 10회에 걸친 지역 대회를 열었는데, 이들 모임에서는 1,600명에서 16,000명에 이르는 출석율을 보였으며, 전세계의 34개 국가에서 참석한 총인원은 200,000명에 달합니다.

본부에서 주로 참석하는 인원은 대관장단에서 두분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두 분, 대회가 열리고 있는 곳의 지역 책임자를 포함한 기타 총관리 직원이 두세 분과 그들의 부인이 함께 참석합니다.

각 대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됩니다.

저녁에 베풀어지는 문화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이 모임은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그 지역 회원들의 다대한 재능을 훌륭하게 펼쳐 보이며 나타내게 됩니다.

어머니와 딸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주로 대관장단 부인들의 말씀이 있고, 대관장단의 한

분, 기타 총관리 직원 및 한 분의 지역 자매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연사는 교회와 보조 조직과 지역 사회에서 여성이 맡고 있는 큰 역할과 가정 생활에서 그들이 미치는 다대한 영향을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협력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의 자녀에게 육신을 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되돌아갈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책임이나 만족할만한 경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서는 또한 신권회가 있습니다.

각 대회에서는 총관리 직원과 그들의 부인이 해당 지역 내의 스테이크와 선교부 신권 지도자와 그들의 부인과 함께 하는 특별 만찬 모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일반 총회에서는 대체로 대관장단과 총관리 직원, 그리고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촌락이나 도시에서 모여 들며, 교회 회원들은 수적으로 적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이 먼 곳에서 여행하여 오는 사람들이 많으며, 어떤 이들은 여러 날 동안 여행하면서 모임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제쳐 놓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하는 지역 관리자(총관리 직원임)는 언제나 말씀을 맡게 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들이 대표하는 지역에 헌신하는 훌륭한 봉사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 백성과 장소에 대한 그들의 깊은 이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며, 그들이 주는 말씀은 항상 영감에 찬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심을 나타내어 스스로 참된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도록 도와 주게 되면, 그 지역 백성들도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음악은 100명 내지 300명으로 구성된 지역 합창단에서 맡게 됩니다. 합창단원 중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여행하여 오며 가장 훌륭한 음악을 들려 주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합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경하하는 바입니다. 나는 각기 다른

여러 지역에서 나온 훌륭한 음악 지휘자들로 인해서 언제나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대회를 끝마치면서 그들이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이나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과 같은 합창을 부를 때는 감정이 북바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방문하는 도시에서 기자 회견을 갖는데, 여기서는 교회와 복음의 열매를 관심의 초점으로 삼게 됩니다. 기자 회견을 가질 때마다 대체로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물문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장수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임과 때를 맞추어 이처럼 대외적으로 교회를 알림으로써 신앙과 헌신과 열의와 활동은 더욱 증가됩니다.

교회에 새로 개종해 온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어떤 자매님은 나에게 자기가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간적인 존재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영의 자녀였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부활될 것이며,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제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알고 난 지금의 감격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한 자녀를 잃은 다른 분은 자신이 신의 권능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남편과 함께 인봉될 수 있으며, 자녀도 인봉될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영원히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의 가르침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신앙 깊은 회원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백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그들이 처하고 있는 지역에서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할 큰 책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망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가족에게 제명을 지킬 것을 가르치고, 복음의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이 수적으로 적은 지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들에게 1830년에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에는 여섯 명의 등록 회원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섯 명에게 주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분

명히 힘든 과제였겠지만, 심한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곳곳이 나아갔습니다. 이리저리 쫓겨 다니며, 집은 불에 타고, 가재를 물수당하며, 신전이 파괴되었어도 그들은 충실히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현재 교회 회원은 350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24,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나부의 안락한 집을 버리고 죽음과 굶주림의 고통을 마아가며 황야를 횡단해간 초기의 개척자들이 치른 위대한 회생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회생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세주께서는 박해를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으며,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생활하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배도와 회복에 관해서 알아야 하며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원은 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몸안에 거하실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 지역 대회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아름다운 뜻과 훌륭한 말씀을 모두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시간이 없으므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회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사랑에 찬 태도로 인사의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의 축복이 그 백성에게 내리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 분은 그들에게 계명을 지키며, 정직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여 세상 사람의 모범이 되라고 권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결에 대한 것입니다. 대관장님은 이를 사람들이 능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폭풍이 이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선박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화물과 승객을 가득 실은 많은 배들이 폭풍이 이는 바다위를 항해하다가 다른 배나 빙산 또는 암초에 부딪쳐 길을 잃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신호 기구가 고안되었는데 위험이 앞에 놓이면 선장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 주어 충돌의 위험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분은 대양을 항해하는 것과 같은 우리 청소년들은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재난을 받게 된다고 하시며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청소년의 복지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확고하고 강한 신념으로 소리를 높여 청소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곳은 참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만 이 시련을 무난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생활에 실천하면 우리는 암초나 암석이나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관장님은 간통이나 간음 및 기타 성범죄를 극렬히 비난하셨습니다. 그 분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전 5:9, 13)고 주의시켜 주신 바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이같이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젊은 형제들은 언제나 좋은 친구를 사귀며, 표준을 저하시키려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기를 간곡히 권고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간음이나 그에 따르는 모든 죄악은 큰든 작은 간에 악한 것이며 주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담의 시대나 모세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또는 1976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종류의 성범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죄악의 중대성을 강조하셨으나, 참된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용서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분은 다음과 같은 교리와 성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 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 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서 58:42-43)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절대로 남아빠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의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같은 분이시며, 그의 성약과 교리는 불변합니다. 옛날의 가치관을 교회에서 지지하는 것은, 그것이 옛 것이어서가 아니라, 여러 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합당치 않은 성행위는 불행과 실망과 혐오감과 거부심을 야기시킬 뿐입니다. 어둡고 부정한 시간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 인생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순결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으며, 강탈당한 미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여

호와 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사 52:11)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는 지역 대회란 길이 생각하는 때, 기도하는 때, 반성하는 때, 결단을 내리는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유의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하는 권리인 이 자유의지의 은사는 무한히 큰 중요성과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지역 대회를 끝내고도 조금도 변함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 건물에서 나갈 때는 머리를 곧게 들고, 마음을 가득 채우고, 영혼을 감동시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는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 첫째는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예

언자께,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속삭여 주는 작고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음성에 주의하여 귀 기울이기 보다는 죄나 루시퍼의 요란한 나팔수가 울리는 경쾌한 선율에 귀를 가까이 대고” 있거나 앓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우리 역시 배워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야고보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말라”(약 1:22) 우리는 경전과 좋은 책에서 배워야 하며, 또한 종관리 역원과 같은 훌륭한 분들의 생활에서 배워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니파이가 한 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주께서 명

방문자 센터에서 그림과 설명을 보고 있는 방문자들



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7)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함께 일함으로써 간증을 나누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세주께서 율법사에게 크고 첫째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대회 모임도 곧 끝나게 됩니다. 군중은 떠날 것이며, 전깃불도 꺼지고, 울간의 선율도 사라져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여전히 같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곧 예언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함께 경배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나는 듣겠다, 나는 배우겠다. 나는 일하겠다, 나는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결심한 것을 주님께서는 항상 도와 주신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제 3:20)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경고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대회의 주제를 훌륭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교리와 성약 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저들이 나아갈 것임에 막을 자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는 나 주가 저들에게 명하였음이니라.”(교성 1:4-5)

그리고 나서 최근에 아이다호주의 티튼 댐이 붕괴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주택과 교회와 전체 마을이 소멸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790여 채의 가옥이 전파되었으며, 그밖에 800여 채의 가옥이 심하게 반파되었으며, 학교와 교회와 사업체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7,800여 명이 급류에 그대로 휩쓸려 갔으며, 제곡 밑에서는 25,000명 내지 30,000여 명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토요일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수명의 사상자와 여섯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을 뿐입니다. 그같이 무서운 상황 하에서 어떻게 그같이 적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습니까?”

“그 해답은 그들이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 건잡을 수 없이 무서운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고를 받자 곧 그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말일성도는 경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계시를 읽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이 경고하는 날이요, 많은 말을 하는 날임 이니라. 또한 나 주는 마지막 날에 우롱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교성 63:58)

패커 장로는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5,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어야 했겠지만, 피해자는 그같이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붕 위로 올라가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옥이 완전히 떠내려 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높은 곳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이웃을 경고해 주었던 관계로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계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일군들이 여행중에 전한 경고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주를 불러 저들이 받은 경고를 잠시동안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하라……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경고하게 하노니,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느니라.”(교성 88:71, 81)

그런 뒤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경고를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에게 경고의 음성을 들려 주었습니다……그들이 그렇게 된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고의 소리를 높이 외쳤습니다. 경적을 울렸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해 경고의 음성을 외쳤던 것입니다. ‘빨리 제곡에서 나오십시오. 홍수가 밀려 옵니다!’”

“물에 빠진 여섯 명 중에서 한 사람

은 바로 댐 밑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람들은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무엇인가를 가지러 되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고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이웃을 경고해 주었습니다.

작은 기적이 하나씩 이루어져서 마침내 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난은 하나의 경고와 같이 보입니다.

패커 장로는 이와 같이 말씀을 끝맺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 관심을 두고 예나 마찬가지로 일에 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걱정스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는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는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빨리 제곡에서 나오십시오. 재해와 악과 영적인 재난의 홍수로부터 피하십시오.’ 누구든지 경고를 받은 사람은 그 이웃을 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바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지역 대회, 연차 대회, 그리고 이 대회의 주요 목적은 경고의 음성을 울리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웃을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고를 듣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이웃을 경고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함께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돌려 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좀더 부지런히, 좀더 강한 신앙으로 열심히 외쳐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이 교회는 주님께서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을 통해서 이끌어 주심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파멸로부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의로운 일을 힘써 행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예언자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웃을 경고하게 되기를 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합당한 자기 관리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자기 평가도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 인식과 훌륭한 자기 형상과 자기 존중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역량있는 축구팀 코치는 최근에 그가 가장 아끼는 축구 선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단의 일원으로 훌륭하게 싸우는 것 외에도, 그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인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으며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행동과 자제심으로 해서 다른 선수나 친구들로부터, “그는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하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올바른 자아 관리는 큰 미덕이 되며,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해 줍니다. 자신에 대한 긍지는 큰 힘을 발휘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큰 미덕이 됩니다. 하

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책임이 수반되는 커다란 축복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6-17)

자신에 대하여 올바르게 긍지를 갖는 사람은 비열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갖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올바른 자기 형상입니다. 개인적인 수양으로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아 관리의 기본적인 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점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책의 장정은 책의 내용을 알려 주기 위해 꾸며져 있습니다. 인간은 인생이라는 책의 표지로 판단받기 위하여 죽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상에서의 인간이지 머리의 길이나 수염의 길이와 같은 외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다고 하면, 자기 자신과는 같지 않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공손히 예절바르게 대함으로써, 자부심과 좋은 인상을 갖게 해주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자기 형상은 입은 옷으로도 강조되는 수가 많습니다. 합당하며, 정숙하여, 편안한 옷차림은 자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지나친 옷

차림이나 정숙하지 못한 옷차림은 좋지 않은 인상을 주며 자신에 대하여 그릇된 인상을 주게 됩니다. 합당하지 않은 옷차림은 또한 나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나는 눈먼 친구들이 자신이나 타인을 볼 수 없는데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단정한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존경해 온 터였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에서 그 누군가가 눈먼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갖게 해 주기 위해 도와 준 것입니다. 자기 자신 답지 않게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불공평한 일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 보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외모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가? 내가 입고 있는 의복이 나를 올바르게 나타내 보이는가?” 합당한 외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씀하신 것보다 더 영화로운 예를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17)

어떤 경우이나 가장 훌륭하게 보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장 훌륭한 몸차림을 하게 됩니다. 어느 어머니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내가 집에서 머리를 매만지거나, 화장을 좀 하거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라치면, 아이들이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하고 묻습니다. 나는 집에서 옷을 잘 입고 있을 권리도 없단 말인가? 하고 내심에서 소리쳐 보지요. 그러다가 저는 집에 있거나 집안 일을 할 때는 사실상 옷을 잘 입고 있는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저자기 놀랐습니다. 사실, 장보러 가거나 방문하러 가는 때를 제외하고는 작업복을 벗는 때가 거의 없으니까요. 방문을 하거나 교회로 가는 때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기 좋은 옷차림을 하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지요. 그러니 가끔 가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보기 좋은 옷차림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어리둥절해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인생에서 영원을 두고 추구해야 할 한 가지 점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토마스 해리스 박사는 이에 관한

훌륭한 생각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 잡혀 자기는 무력한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사가 잘되리라는 생각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약점이나 감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면에서 자신이 무능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일 뿐 아니라, 좀더 자기의 생을 통제해 나갑니다.”

좀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 이 모든 인간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음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있는 일입니다. “많은 은사가 있음이라,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써 한 가지 은사를 받게 하시니라.”

“어떤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또 다른 이에게는 저러한 것을 주사 모든 자가 이로써 유익을 얻게 하시니라”(교성 46: 11-12)

자신의 약점과 가능성을 끊임없이 인식할 때 자신에 대하여 보다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 주십니다. 그 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영상을 지닐 때 우리의 습관과 생활과 영혼은 행복에 이르는 길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으로 크나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혈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비참해질 수 없습니다.”(워싱턴에서 흑인 대표단 파견시에 한 연설, 1862년 8월 14일)

우리는 자기 연민이나 자아 비판, 혹은 방종과 같은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루 한 시라도 이런 의문에 빠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시는가? 왜 내게는 내 친구들과 같은 재능이 없는가?”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기타 단체의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절과 자존심은 그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겸손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합당하게 자신을 관리할 때 우리는 먼저 팀의 구성원이 되고, 그 다음으로 코치나 주장이나 인기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나 관계를 이루게 되면,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성 38: 27)는 진리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자기 수양으로, 참으로 힘을 발휘하는 유일한 훈련 방식은 자기 수양인 것입니다. 자제력을 완전히 터득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좋은 건강, 습관, 고결한 성품, 인내심, 예절, 대화 및 자제심은 균형잡힌 성격에 큰 힘을 발휘하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 사람의

자아 관리 상태를 외적으로 나타내어 줍니다.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과 가족과 그의 매일 접촉하는 사람과 정직한 관계를 수립합니다.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역시 그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만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밀으로 이탈되어 나가지 않고 위로 올라서는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악의 외모를 피하게 됩니다. 의로운 대의에 열심을 다하여 참여하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합당한 자아 관리와 훌륭한 인간의 자질을 구현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 수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행위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도구로써 조롱이나 무안이나 눈물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자신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평가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의 하나로 자존심의 파괴를 들 수 있습니다.

칠십일 제일 정원회의 에드니 와이 고마즈 장로



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이러한 파괴를 자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인간의 고상한 감정과 행위와 예절은 자기 존중심을 키워 줍니다. 인간은 현재의 상태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때 사기가 크게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위협이나 비난보다는 우정어린 설득에 더 잘 반응한다는 것이 나의 경험 철학입니다.

인간의 건강 습관도 비난하거나 야단을 치기보다는 현실적인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적당하게 강조함으로써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비판한 사람에게는 식이 요법과 체중 조절로 아름다운 외모와 건강을 이룰 수 있다고 권해 주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노력한 결과나 열심히 시도한 것에 대하여 신랄히 비방하기보다는 솔직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해 줄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스스로 복수나 원한을 품는 태도에 빠지게 되어 건강에 대한 자기 수양을 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담배를 피우는 어느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담배를 피우는가?” 하고 묻자, “엄마에게 복수하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술을 마시는 버릇을 들인 한 아름다운 주부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왜 술을 마십니까?” 하고 묻자, 그 부인은 “시아버지가 내게 무슨 말썽이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담배나 술을 드는데 그럴 듯한 이유가 있다면, 나로서는 지금까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 두 사람이 제의한 것보다도 더 훌륭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현명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

합당한 옷차림이나 복장 및 머리 손질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가짐이나 자신에 대한 형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음성적 조절, 훌륭한 언어 사용, 좋은 태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예의 등입니다.

어떤 사회나 경우에서든, 예의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몸가짐을 훌륭하게 하는 것은 생활하는 주변의 평안과 품위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도, 우리가 식이 요법이나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매일 수없이 하는 일보다는 그러한 면을 키우는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절은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절은 지나간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래 계속되어 내려온 생활 태도입니다. 모세가 행한 일 중에 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사의 행위에 대하여, 친지나 낯선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고, 장님과 귀머거리와 노약자를 존중하며,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절이란 특별한 친지나 환경에 한정되는 특이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회 환경이나 인물만이 갖추게 되는 걸치레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고속도로 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일을 가라앉혀 주며, 우리의 동요된 마음을 훌륭하게 무마시켜 줍니다. 우리는 우정

이나 상황으로써 무례한 언행을 정당화시키거나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고 닦은 가장 훌륭한 몸가짐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 약속 장소나 집회에 시간을 맞추어 나가는 것은 자기 수양을 나타내며, 자기 존중의 증거가 됩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지성을 갖춘 사람이 그 이웃에게 보여야 하는 예의입니다. 시간을 지키느냐 아니면 가끔 시간을 안 지키느냐에 따라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인품이 평가됩니다. 예절이나 시간 관념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결코 마음의 평정이나 침착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료와의 관계에서 인내를 잃지 않는 사람은 수양이 잘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중하게 말하며 들을 줄도 압니다. 예의를 지키며 이야기하는 사람은 허풍을 떨거나, 허튼 소리를 지껄이거나, 무뚝뚝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 저것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필요가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책임을 새로이 느끼고, 자아 인식을 새롭게 하여, 보다 훌륭한 자기 형상과 자기 존경심을 지니게 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을 배울 기회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그는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국에서 좀더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으며, 로렌조 스노우 대판장의 감격적인 다음 말씀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됩니다.

“현재의 인간처럼 하나님은 한때 인간과 같았으며, 인간도 현재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19년 6월, 656페이지) 이러한 것은 바로 합당한 자아 관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한 모범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상호부조회 창립 100주년 기념비 아래서 쉬고 있는 대회 참석자들



선교사를 만듭

엠 러셀 벨라드 이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아버지와 어머니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사를 준비시켜 달라는 제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선교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제가 이 대회에서 여러분 앞에 서고 보니, 마치 전선에서 본국으로 소환당하여 최고 사령관과, 연합 참모진과 그밖의 상관들 앞에서 전쟁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하는 일선 군대의 지휘관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전쟁이란 총과 무기로 무장한 치열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의로움과 악 사이의 투쟁은 극심하며, 실제로 충돌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선교 지역의 일선에서 있는 내 입장에서 볼 때, 적은 영원한 투쟁에서 기술적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악마의 군대는 온갖 종류의 죄악을 행하며, 인쇄, 방송, 시각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과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온갖 방법 중에서도 가장 교활한 것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

을 휘어잡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냉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언자 물몬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릇 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며, 간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비롯하니, 악마는 하나님의 적이라. 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싸우며 죄로 인도하고 유혹하여 끊임없이 악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는도다”(모로 7:12)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성도와 선교사들이 킴블 대관장님께서 권고하신 것과 같이 좀더 빠른 속도로 교회를 이룩해 놓으려면,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훌륭한 복음 교사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침례를 받아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 된 사람이 기쁨에 넘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침례의식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한 영혼이 개종하게 되기까지 회원과 선교사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들여야 하는 엄청난 양의 준비에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모와 지도자로서의 원칙을 지키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나는 보다 나은 훈련과 준비가 가장 훌륭한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대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선교부의 훌륭한 선교사들에게 그들이 선교 사업을 하기 전에 준비했던 것에 관해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나는 먼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무슨 일을 했더라면 좀 더 훌륭하게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좀 더 경전을 읽고 연구해야 했습니다.” “신학원 중등부와 그밖의 교회 공과반에 더욱 열심히 참석해야 했겠지요.”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더 일찍 간증을 굳혔어야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청소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의 교회는 살아있는 예언자를 통해 이 땅에 회복되었고, 물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니파이의 다음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시리라.”(니이 32:3) 청소년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길을 연구하고 익히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삶을 가장 값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진대, 여러분은 주님의 영이 함께 하는 선교사가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성의를 다해 지성껏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이 위대한 사업에서 맡고 있는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준비함으로써 간증의 뿌리를 깊게 내려, 역경의 바람이 불어 닥칠 때라도 능히 이겨내어 이 위대한 교회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나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을 좀 더 훌륭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친이 어떻게 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선교사들의 대답은 대체로 이러했습니다. “부친이 신권에 대하여 좀 더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신권이란 의로운 대의를 이루는 힘이라는 것을 내게 이해시켜 주셨다면”, “내게 가장의 축복을 해 주셨다면”, “용돈을 계획해서 절제있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목표를 정

하고 달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나와 함께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셨다면”.

내가 겪었던 개인적인 선교사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한 직후, 우리는 자녀들을 전학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살 난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가는 첫 날 그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내 사무실로 불러, 선교사들이 “바늘방석”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혀 놓고 접견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가 커다란 검은 의자에 올라 앉자, 나는 “아빠가 어떻게 하면 널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얼굴에 가득히 나타나 있던 근심 어린 표정을 나는 죽을 때까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조그만 턱을 떨면서, “아빠, 나는 무서워요”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

을 떠나 왔으며, 선교부장 관저 근처에는 그만한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이그, 너에게는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친구가 있단다. 자, 우리 함께 무릎을 꿇고 그에게 도와 달라고 해 볼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그는 나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로 인해 크레이그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아침 우리는 접견을 했고 그때마다 크레이그는 나에게 기도를 지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에는 내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만의 특별한 기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을 갖게 되고 친구도 사귀게 되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매일 아침마다 어린 아들과 함께 했던 특별히 귀한 경험을 나는 잃게 되었던 것

입니다. 나는 내가 선교부장으로 있으면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이 귀한 배움의 경험이 크레이그에게 끝까지 남아, 그가 주님을 섬기라는 부름을 받게 될 때 그에게 힘의 근원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일선에 선 신권 지도자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예외없이 부친을 사랑하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장래의 교회 선교사들을 더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교회의 훌륭한하신 어머니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우리 장로들의 답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으면 나를 좀 더 잘 준비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가사에 관한 것, 몇 가지 예를 들면, 요리, 청소, 세탁, 장보기, 위생, 수선, 간이 요리법 등을 가르쳐 주시려 하실 때, 좀 더 저의 주

신임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에스 킬워스 영 장로



의를 집중시켜 주셨더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하지만, 선교사에게 따르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재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에게 훌륭한 인간 관계의 기본 원리를 알고 실천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니 되시는 훌륭한 자매 여러분, 자녀를 다정하게 끌어 안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그들이 행복하게 되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몸에 익혀야 한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가득찬 눈길에 응하지 않을 아들이나 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선교사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이나 감독이나 교문 또는 교사들이 선교사가 되는데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거나, 좀 더 많이 깊이있는 접견을 했다면, 좀더 일찍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었다면, 경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었다면, 그들에게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태도로 가르쳐 주었다면 더 훌륭하게 준비할 수 있었으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러한 원리에 대하여 좀더 철저히 가르침 받을 수 있다면, 선교 사업 첫날부터 성경의 권능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음의 폭이 넓어질 것이며, 따라서 선교 사업은 처음부터 급속히 진전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1974년에 선교부장으로 부름 받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추수기는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인간과 국가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세대가 한 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 세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도저히 회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있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가 있고 그 위에 위대한 잠재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선교부장 세미나, 1974년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부인인 카밀라 킴볼 자매님

6월 27일)

우리의 위대한 잠재 능력이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회원이 아니신 친구 여러분, 잠시 멈추어 서서 이같이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지구상에 살고 있는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나는 교회의 선교사와 회원들에게 우리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더 잘 가르쳐 드리고 알려 드리기 위해 한층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신권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해 드릴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이 땅에 회복되었다는 증거를 여러분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진리인지 스스로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내어 드리는 물문경을 읽어 보시면, 이 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증인으로 진실로 성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메시지의 참됨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회의 회원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달리 찾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내어 회복의 영화로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 이 지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이 생에서 행하여야 할 위대한 사업의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복음의 진리를 들려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어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주셔서 복음대로 생활하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을 찾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우리는 성약을 맺는 백성

조셉 앤더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월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성약을 잘 지키고 존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의로운 이스라엘인들은 언제나 성약을 맺는 백성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을 살아있는 하나님, 인간적인 하나님, 곧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도 창조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들은 다른 모든 백성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백성들은 이를 독특한 특징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수입의 십분의 일을 바쳐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와 성약을 맺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3) 이것은 영원한 성약이었으며, 그것은 이삭에게도 주어졌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로 불리운 야곱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 성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문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된 것도 역시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는 모든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구속주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으며 구세주의 사명과 회생으로 인해서 이 지상의 모든 백성들이 축복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됨으로써 또 다른 축복이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다음과 같은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창 15:18)

현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과 축복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세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출 19:3-8)

그러나, 고대의 이스라엘인들은 성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 결과 주님은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시어 재난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성약을 맺는 백성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성약입니다. 교리와 성약 제일 첫 편에서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제명을 주었느니라.

“나의 영원한 성약이 이루어지게 하며,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전파되며 왕과 통치자 앞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니라”(교성 1:17, 22-23)

그리고 교리와 성약 22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새롭고 영원한 것이요, 태초로부터 있던 것이니라.”(교성 22:1) 이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시 45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나는 나의 영원한 성약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고 나의 백성과 이를 구하는 이방인을 위한 기가 되게 하고 또 나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 앞에서는 사자가 되게 하였느니라”(교성 45:9)

침수에 의한 침례는 영원한 성약의 일부입니다. 침례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님의 영원한 성약이며, 세상의 빛이며, 그의 백성의 빛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침례 성약을 맺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악을 멀리 함으로써 신앙과 진실성을 증거해야 합니다. 거룩한 의식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합당한 권능을 받은 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침수에 의한 침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합당한 권능을 갖고 있는 주님의 종으로부터 안수례를 받아 성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합당한 영감과 더 나가서는 계시와 같은 개인적인 지도를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약은 모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속하게 되며, 이 계명을 지킬 때 약속된 축복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영적인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 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아브라함서 3:25-26)

침례의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고 주님과 성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함으로써 그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구세주의 대속의 희생을 기억하여 이 상징물을 들고,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그를 기억하여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고 성약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면, 그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성약을 우리와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도 성약에서 주님께서 말으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에서와 같이 십일조를 내는 것은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인들에게도 계시된 바, 영원한 성약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자가 올 때까지는 오늘이라 부르리니, 진실로 지금은 희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날이라. 십일조를 바치는 자는 인자가 올 때에 불에 타지 아니하리라.”(교성 64:23)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

1831년 8월 7일, 주님께서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

“그러나 날마다 어느 때든지 네 성약을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

“또 이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여 네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도록, 바뀔까하면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어다.”(교성 59:9-13)

이 계명에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면 이 땅에 충만한 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따르

고 있습니다. (교성 59:16 참조) 주님께서서는 땅에 충만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과 성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따르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배울 지니, 곧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교성 59:23)

우리가 신권을 받을 때는 성약과 약속을 받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교성 84, 35 : 33—40)

우리들 가운데는 성약을 받은 후에 그것을 깨뜨리거나 돌아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회개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용서를 구하여 신권의 성약을 존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해의 왕국에는 세 개의 하늘 또는 영광의 등급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

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새롭고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계시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교성 132 : 15—21 참조)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이 약속된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성 130 : 20—21)

결혼 성약은 말일에 이 땅에서 권능을 행하도록 주님으로부터 성임받은 자의 증개로 약속의 성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맺어지며 인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영원한 가족 단위에 관한 성약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면전에 돌아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성약을 존중

해야 합니다. 고대의 물몬경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게 하려함이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나이 2 : 25)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영원한 성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첫번째 예언자이신,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우리 존재의 목적이며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란 바로 유덕, 의로움, 충실성, 거룩함,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 등을 말합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55페이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요,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언자입니다. 새롭고 영원한 복음은 이 땅에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태버나클에 입장하시는 엔 엘론 태너 부대관장님



사도 바울의 가르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바울의 기록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힘을 주며, 그의 말을 따르는 사람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되시는 여러분, 오늘 나는 19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기사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사울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왕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몹시 박해했습니다. 사울은 악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의 적에 대항한다는 신념에서 그와 같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홀연히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그를 둘러싸, 그는 힘없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이에 두 가지 질문으로 대답했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주여, 제가 어찌 해야 하오리까?”(행 9:4-6)

그리스도는 자신을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행 9:5)고 밝혔습니다. 그리

고 나서 주님은 사울에게 다메섹 성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것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동반자의 손에 이끌려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제자요 증인, 아나니아는 사울의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님의 뜻을 알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나니아에게서 침례를 받고, 그 이후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헌신했던 것입니다. (행 9:4-19 참조)

사울은 성임받은 후에 위대한 신앙의 수호자요, 열성껏 의로움을 전하는 교사요, 세상 사람에게 두려움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선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 다녔으며, 그 다음에도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동안, 그는 바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개종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지대했던 그는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권고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용기와 정직성과 신앙의 힘과 깊은 간증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가르침을 사랑하며, 그것은 오늘날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으로,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바울의 책임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과 회개와 침례의 메시지를 가르치며, 구세주의 거룩한 사명을 증거하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며, 간증을 키우고, 교리를 지키며, 기독교 교회의 가르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일상 생활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말일성도 교회 지도자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느 모임에서나 그들은 신앙을 심어 주고, 간증을 키우며, 의무를 다하게 하고, 사람들을 축복해 주며, 책임을 가르치고, 지도력을 키우며, 영적인 힘을 길러 주고, 또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기사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여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를 로마인들에게 용기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 1:11-12)

그는 디모테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 말고”(딤후 1:8)

바울은 또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엡 4:5-6)

이 교리는 과연 참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야말로 이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사이며 모범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14, 16-17, 28)

바울은 디모데인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 1:6, 7)

바울 역시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하고 그는 반문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롬

6:3, 5)

그의 설교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 그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충고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 10:15)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히 5:4) 아론은 제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단합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전 14:33)

그런 뒤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고전 1:13)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갈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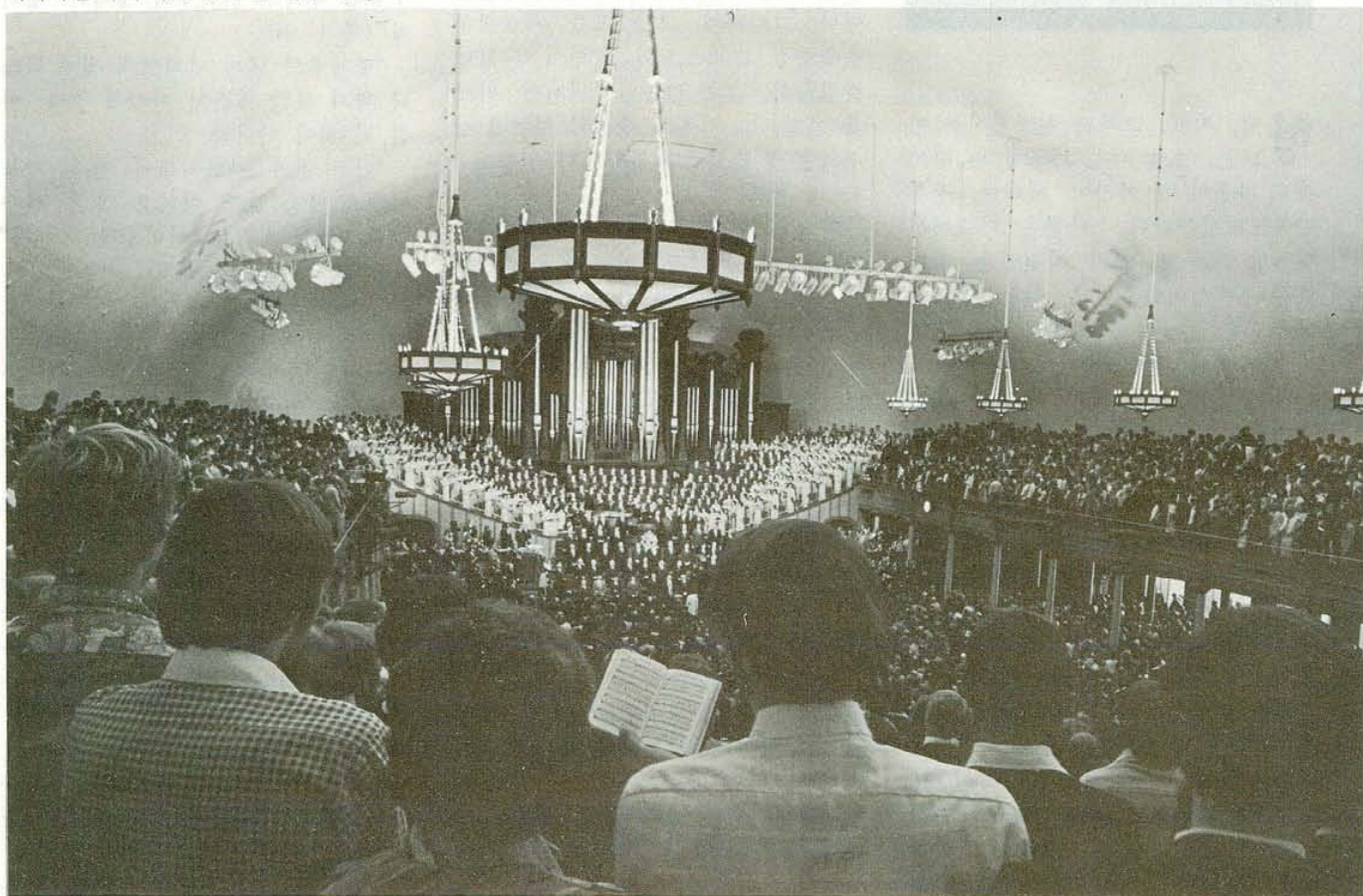
사도 바울은 승영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일깨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전 9:14)

신앙을 가르침에 있어, 그는 먼저 이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그런 뒤에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줄 알찌어다”(갈 3:7)

태버나클 동쪽 입구에서 본 내부 전경



그리고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딤후 6:12)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딤후 2:1-2)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7)

바울은 경전을 읽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성도들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디모데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디모데후서 3:15-17)

가족 각 구성원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엡 5:25, 33)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딤후 2:4-8)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

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골 3:20)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엡 5:1-2, 6)

그외의 중요한 가르침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1-22)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롬 13:13)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갈 2:10)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갈 6:2)

“우리는……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갈 6:10)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히 13:1)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히 13:5)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히 13:7)

바울은 또 다시 이같이 충고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살전 5:19-20)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롬 14:13)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엡 4:31)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엡 6:10)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4)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찌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후 13:11)

재물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그러한 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같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었도다.”(딤후 6:7, 10)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딤후 6:17-18)

바울은 또한 이와 같이 중요한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고후 6:14)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고전 10:21)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7-8)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앞으로 일어날 악에 대한 바울의 예언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 현실에 그와 같은 길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같은 경고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딤후 4:3-4)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시는 김달배장님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전의 모양은 있으나 경전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딤후 3:1-5, 7)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 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딤후 1:16)

바울이 경고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고의 말씀 뿐 아니라 인도와 충고의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신감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심을

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엡 6:13-18)

“주께 합당히 행하여”(골로새서 1:10)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립보서 4:8)

그런 다음 그는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빌 4:13)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활하고, 끊임없이 완전을 향해 노력해 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해답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씀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경전을 깊이 상고해 본다면, 우리 생활은 좀더 큰 힘을 얻고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고 앞으로 올 생에서 승영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든 사함을 바울은 참으로 훌륭하고 완전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예언자가 하시는 것과 같이, 대담하고 솔직하게 진리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언자와 사도 바울이 주신 충고를 따르다면 우리는 정도에서 이탈되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거룩한 것임을 엄숙하게 증명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 생활하게 되면 진심으로 빛과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자에게 평안과 행복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모든 것을 얻을 뿐 잃는 것은 없음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음에서 떠나 방황하는 분들에게 간청하오니, “돌아와 함께 하면, 마음속 빈 곳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의 이 마지막 모임에서 나는 전에는 교회에 잘 다녔으나, 무슨 이유로든 떨어져 나간 분들 중에서 어느 곳에서든, 실사 호기심에서라도 이 말씀을 들어 주실 분이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분들에게 전하려는 것으로, 성령의 힘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얼마 전에 템플 스케이로 배달된 어떤 편지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편지는 이러했습니다.

“존경하는 장로님.

“나는 물몬교 신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은 것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

들었습니다. ‘구원’ 된다는 말에는 언제나 관심이 끌리게 되더군요. 나는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 강요되어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

다. “내게 ‘행복의 추구’라는 소책자를 보여주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물몬교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나에게 심어 주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나는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내부에서 한 ‘작은 음성’이 나에게 하나님을 찾아 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서는 아무 상관이 없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은 존재합니까? 신이 나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나는 여기에 있습니까? 왜 나는 이처럼 철저하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내 머리 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오가며, 그에 대하여 충분한 해답을 얻게 되기를 몹시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 보아야 할지 그 시작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물몬 종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길을 찾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는 저의 간청을 잊지 마시고, 제가 남들 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책자나 편지나 카드나 무엇이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편지를 쓴 사람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갈구하며 외롭게 서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사람들 외에도 기록상으로는 교회 회원이나 교회를 떠난 지 오래 되어,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는 마음은 간절해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 역시 마음속으로,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왜 나는 오랫동안 버림받았는가? 제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라고 되뇌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머리속에 떠오를 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야기 하나가 동시에 생각납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옮겨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 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눅 15: 11-24)

영적인 상속을 받아 가지고 떠났다가 이제 생활의 헛됨을 발견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올 길은 열려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을 주의해 보십시오.

자신의 상태와 환경을 돌이켜 보고는,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란 적은 없습니까?

비유에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종노릇이라도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 입을 맞추고, 옷을 내어 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 주고, 신을 신겨 주며,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용기를 내어 한걸음 되돌아 온다면, 수많은 친구들이 손을 벌리며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떠난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각 없이 구는 어떤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한 것을 교회 전체의 행위로 잘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잘 알고 지내던 곳에서부터 전혀 낯선 곳으로 이사하여 와서 교회에 대하여 별로 배운 것이 없이 지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 다니면서는 양립시킬 수 없다고 생각되는 다른 무리나 습관에 빠져들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며, 자기 자신이 세상적인 면에서 교회의 친구들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약간은 그들을 경멸하면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 이유에만 집착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로 돌려 버리십시오. 옛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

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사 1: 16-19)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복음이란 나쁜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맥케이 대관장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큰 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철차이며 변화의 한 과정입니다.

자만심으로 여러분의 앞길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문제된다면, 구약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로,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는 이스라엘의 딸인 수종드는 계집아가 있었는데,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제쳤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와 많은 보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기에게는 문둥병 고칠 권능이 없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자기를 찾는 이유를 알고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선지자인 엘리사가 왕에게 그 장군을 만나게 해 달라는 전갈을 보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는 장군을 영접하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자를 나아만에게 보내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나라에도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에 모욕을 느껴,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은 엘리사가 제안한 대로 해보라고 간청했습니다. 자만심에 가득찼던 장군은 결국 마음이 풀어졌으며,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

더라”(왕하 5: 1~14 참조)

자만심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게 되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길은 단순한 길입니다.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는 너무도 기본적인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일축해 버리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그에 따르는 결과는 보기에 훌륭하고 훌륭한 경험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세계 어디서든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책임을 맡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모르신다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워드 감독을 찾아 주시든지, 아니면 교회로 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기꺼이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찾아 뵈 것입니다. 친절과 사랑으로 그들은 여러분에게 길을 가리켜드리고, 여러분의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얻을 뿐 잃는 것은 없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예전에 여러분이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평안을 교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과 우의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울려 주고, 영혼을 살지게 할 책도 읽을 수 있고, 가르침도 받을 수 있으며,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속으로 바라던 것이 모두 성취될 것이며 오랫동안 비어 있던 마음은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내게도 여러분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사십여 년 전에 우리는 함께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외로움에 젖은 그는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는 교회 밖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 습관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 저곳으로 이주해 다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의 소재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나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과 사진이 지방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날 아침 스테이크 부장과 내가 스테이크 본부 건물로 들어서는 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는 나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는 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모임을 감리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스테이크 부장에게 모임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나에게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친구인 그는 점연직은 두 주저하는 태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참으로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형제와 같이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가 어색했으나, 여러 해 전에 영국에서 함께 보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때 그토록 열심히있던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 전장한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는 그후에 지내던 오랜동안의 공허했던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악몽을 말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허비해 버린 세월에 대한 말을 끝내자, 우리는 그가 교회에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힘들고 어색한 일이라는 하겠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는 돌아왔네, 돌아왔어, 고향에 다시 돌아온 느낌이 참으로 좋구먼”이라고 썼습니다.

이 친구처럼 돌아오고는 싶지만, 첫 번째 발걸음을 떼어 놓지 못하고 계신 분은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여러분을 맞이해 드리며, 여러분의 손을 잡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오면 반드시 큰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사업임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받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행복감과 힘과 큰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임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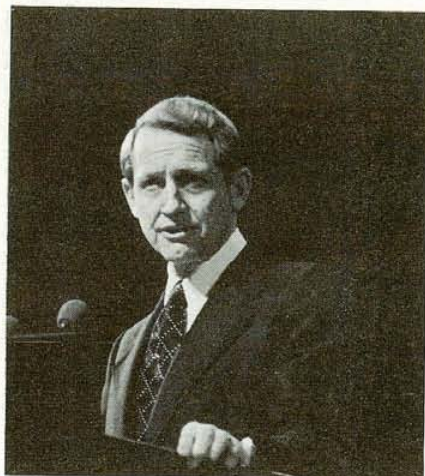
*

개종의 복음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

칠십인 제일정원회

이 교회에 들어와 새로운 삶을 찾은 루터교 목사와 그 가족의 이야기



복음은 나쁜 마음을 지닌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을 더 훌륭하게 만들며, 여성과 어린이를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언자 데이비드 오 벡케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로 나는 여러분께 어느 개종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루터교 목사인 루이스 노박과 그의 아내 엘리스와 두 자녀인 커트와 크리스틴에 대한 것입니다. 노박 목사와 그의 아내는 루터 교회 속에서 태어나 침례받고, 자랐으며, 안수례도 받고, 결혼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자기에 대하여 갖는 금지와 자신의 의무감으로 인해서 두 군데의 루터교 신학 대학원까지 나와 미국 루터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거의 십사 년 동안 그와 그 아내는 루터교에서 봉사했으며 진리와 영적인 평안을 찾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수입 정도나 생활 양식이

나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등의 외적인 모든 면에서 볼 때 더 바랄 만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생활의 안정을 얻고 가족과 친지와 상급자로부터 크게 인정받게 된 이들을 보고 사람들은 “성공한 부부”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영적인 불안감에 줄곧 시달려 왔습니다. 그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찾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노박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생활과 경험을 되돌아 보았을 때 나는 나의 불만은 여러 가지 원인에 그 뿌리를 박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우선) 나는 동료 목사들과의 접촉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교회 정책, 인간의 자기 향상, 인간적인 영화, 재정적인 성공, 회중의 통계 숫자 등에 지나칠 정도로 크게 강조하는 점이 나로 하여금 참된 영성이 심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둘째) 나는 신학적인 면에 깊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배 의식의 절차가 너무도 냉정하고 비인간적이며, 상상력이 결여된 듯이 보였습니다. 은총에 의한 구원을 크게 강조하는 반면 행함을 경시한다는 것은 경전과 배치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경전을 깊이 생각해 본 나는 ‘행함’이라는 말이 ‘은총’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교회 지도자들이 동정녀의 출산, 천지 창조, 경전의 그릇된 해석에

대한 묵과, 그리고 기본적인 기독교적 윤리관의 결여 등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스스로 위축되어 있었읍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것일까요? 아니면 일단 물려나 그의 창조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이상스럽게 돌연히 침묵을 지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968년 9월 1일에, 노박 목사와 그 가족은 콜로라도주 브룸필드로 이사했는데, 그는 매우 권위있고 세인의 추앙을 받는 호프 지역의 루터 교회 목사로 전출되어 온 것입니다.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듯이 보였지만, 무언가 결정적으로 그릇된 것이 있었읍니다.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었읍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영적으로 공허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의 아내 엘리스에게도 마찬가지였읍니다.

엘리스는 음악 교사였는데, 브룸필드에서는 몇 명의 말일성도 제자가 있었읍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남과는 다른 어떤 특이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녀는 자기가 한 물론 학생에게 물론도 기독교인이냐고 물어 보았다고 남편에게 말했읍니다. 물론, 노박 목사는 루터교 입장에서 는 물론교를 비기독교로 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 어린 물론 소녀는 물론은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담대히 말했읍니다.

엘리스는 어린 소녀의 간증에 감동을 받았읍니다. 그 뒤에 피아노 강습을 받는 한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브룸필드와드 개관식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학생의 가족은 루터교 목사에게 그런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은 거절했으나, 어린 소녀가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는 마지 못해서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 날이 되자 엘리스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관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으며, 노박 목사는 호프 지역의 루터교 지역 모임을 주재하고 있었읍니다. 개관식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는 루터교 모임을 떠나 그곳으로 가라는 이상하고도 꺾을 수 없는 힘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뜻에 따랐읍니다. 말일성도 예배당에 들어서자,

친절하고 인정있는 어떤 신사가 그를 친절하고 다정하게 맞아 주며, 이야기를 나누며, 두 시간 동안 줄곧 그의 결을 떠나지 않으면서, 질문에 대답도 해 주곤 하며 도와주었읍니다.

목사는 이렇게 그때의 감정을 말했읍니다. “순서가 시작되자 칠십인의 한 분이 교회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성신의 영감을 받은 것이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나온 우리는 어린 제사의 인도를 받아 침례탕으로 갔는데, 그는 말일성도의 교리에 따른 침례에 대하여 설명했읍니다. 오랫동안 루터교의 침례에 대한 교리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져 오던 터였으므로 나는 어린 소년이 어른답게 발표하는 훌륭한 설명에 크게 감명을 받았읍니다. 나는 이 소년의 설명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다시 우리는 상호부조회실로 인도되어 훌륭하고 지적인 발표를 들었읍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힘차고 강한 간증을 들었을 때 나는 마음속까지도 훈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다시 우리는 복도를 끼고 어느 교실로 들어가 ‘미대륙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라는 영화를 보았읍니다. 교회의 역사에 관한 수많은 나의 의문이 갑자기 풀리게 되어 나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나는 그 당시 종교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말일성도 예배당에서 나의 박사 논문은 끝이 났으며, 진리에 대한 나의 의문이 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와 같이 많은 것을 듣고 보면 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개심한 셈이었읍니다. 나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나는 마음속으로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읍니다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 속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생활의 안정과 관습을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나는 그날 물론경을 한 권 사서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읍니다. 후에 내가 아내에게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군요. ‘그 교회에는 좀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에서 나는 가슴이 뿌듯한 감을 느낄 수 있었소.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거이다.’

“내가 박사 학위를 받고난 뒤인, 1974년 여름에, 나는 영적인 번민에 빠져 있었읍니다. 그 와드 개관식의 일이 머리속에 남아서 좀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느낌을 상기시켜 주었읍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물론 학생의 어머니가 음악에 관한 문제를 물어왔읍니다. 처음으로 나는 영적인 번민을 침착하며 이해성 있게 들어주는 사람에게 털어 놓았읍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가족은 우리 가족을 그들의 가정의 밤에 초대하엿읍니다. 우리는 매우 따뜻한 감명을 받고 돌아왔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생각되었읍니다. 직장, 안정, 편안한 생활, 사회적 지위, 가족 유대, 집, 연금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일시에 내 마음 속에 밀어닥쳤읍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자신이 참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며 가르칠 수 있겠읍니까?

“결국 1974년 가을,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구의 일은 여전히 잘 되어가고 있었지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읍니다. 나 자신도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었지만, 내 가족의 영적인 불량 상태가 더욱 걱정되었읍니다.

“그러하여 1974년 10월 25일, 콜로라도주 특유의 아름다운 날에, 나는 콜로라도 선교부를 찾아가라는 이상하게 압도하는 힘에 이끌려, 두 번째의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덴버 대학을 떠나 갔읍니다. 나는 오래 전에 그 주소를 외어 두었읍니다. 급히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였는데도, 자동차는 클락슨가 709번지 이외로는 전혀 가려 하지 않는 듯하엿읍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차를 몰고 지나가면서 선교부 건물이나 보고 오겠다고 수없이 되뇌어 말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선교부 건물 앞에서 차를 세웠읍니다. 단지 밖에서만 구경하고 가겠다는 생각이었읍니다. 나는 엔진을 끌 생각 없이 잠시 그곳에 앉아 있었읍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엔진이 꺼지고 그곳에 앉아 시계를 내려다 보았읍니다. 12시 35분이었읍니다. 그래서 나는 점심 시간에 방문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일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차에서 내려 섰습니다. 그리고는 계단 밑에 있는 보도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참 좋은 곳인걸. 조금 둘러보고 차로 돌아가야지.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없어. 어쨌든, 나는 루터 교회 목사니까.'

“그러나 나는 계단 위로 올라갔으며,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밝은 눈빛을 한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와서는 안되는 건데요. 더구나, 지금은 점심 시간이로군요.’ 그러자 ‘우리는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얼마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던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을 빠져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이런 사실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루터교 목사이며 이곳에 온 이유는 내가 세계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를 잠시 세우고 물문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보려 했던 것뿐입니다. 지금은 점심 시간이니 시간을 많이 뺏고 싶지 않군요.’ 청년은 다시 점심 식사를 다 마쳤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한가지 일은 다른 일을 불러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니 별로 기대하지 말라고 계속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럭저럭 우리는 한 두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은 점을 사과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들에게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니 기대하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심 따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선교사들이 정말로 나에게서 가능성을 포기해 버리려는 어찌나 하는 걱정마저도 생겼습니다.

“그 뒤 어느 날, 눈빛이 총명한 선교사가 바로 호프 지구의 루터 교회에 있는 내 사무실로 전화불 걸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걸어 주어 나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는 그와 자기 동반자가 다시 가족을 만나 볼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두 명의 선교사가 우리 집으로 왔으며 이리하여 개종



의 과정은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아무런 주저 없이 한 단계씩 진행되었습니다. 1975년 1월 25일, 바로 내가 콜로라도 선교부의 초인종을 누른 지 정확하게 석 달 다섯 시간 만에, 우리가족은 브룸필드 워드 예배당에 있는 침례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생도 넘어 찾은 끝에, 결국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커트와 크리스틴은 새로운 기회와 교회 친구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대전스페 자라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들이 이 지상에서 참된 그리스도 교회의 길을 배워 가면서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엘리스와 나는 진리를 발견한 기쁨을 똑같이 만끽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빨리 신전으로 가서 우리가족이 함께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기를 몹시 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지 일 년이 지나 솔트레이크 신전에 갈 수 있게 되자, 우리는 곧 떠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것은 이루 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둘러서 신전에 가서 가족으로 인봉을 받았던 이유는 두 주일 후에 우리의 열 한 살 난 딸, 크리스틴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딸 아이를 잃은 큰 슬픔에 잠겨서, 사고 경위를 생각해 본 우리는, 딸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부르신 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딸의 기쁨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힘을 얻고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기를 맞추어 주신 친절과 자비하심에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했습니다.

“이런 때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오직 풀리지 않는 의문에 싸여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 크리스틴에게 이 은사를 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좀더 편한 시기로 개종을 늦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급히 서둘러 신전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크리스틴에게 초등학교, 주일학교, 성찬식과 가정의 밤에서 얻는 큰 기쁨을 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고가 나기 전 주에 크리스틴은 어머니에게 자기가 과연 신전으로 다시 갈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신전을 다시 가 보고 싶어했습니다.

“쓸쓸한 캔사스의 묘지에는 회색 빛 묘비가 서 있습니다. 그 위에는 네 사람의 우리 가족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 밑에서도 이같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가족은 현세와 영원토록 인봉되어 있노라.’ 잠시 떨어져 있는 슬픔으로 우리 눈에 흘러 내리는 눈물 뒤에는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은 “선한 사람을 더 훌륭하게 만들며 여성과 어린이를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님의 보조 조직

로버트 엘 심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소위 “작은” 부름을 받아 이행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와드 도서실 책임자나 초등학교 교사나 와드 서기나, 스테이크 서기 등 관리할 기회는 많이 갖고 있지 않으나 주님과 그 사업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시대에서 가장 난처한 일 중의 하나는 수백만 불의 우주 탐사 계획이 최종 발사 단계에 이르러 기술적인 실수로 해서 “중지”되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을 바로 알아내어 곧 수정하지 못한다면, 그 계획을 취소시켜 달이 다시 정궤도로 돌아올 때까지 몇 주일 뒤로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실수로 인하여 소비되는 경비 는 노동 시간과 금전 면에서 천문학적 인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30 센트 정도밖에 안되는 조그만 트랜지스터로 판명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주 탐사선이 소위 보조 조직이라고 하는 수만 개의 작은 구성 분자로 이루어져 있듯이, 주님께서도 인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만 개의 보조 조직을 두고 계십니다.

전체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신권 보조 조직에서 여러 주일 혹은 여러 달이 지나도록 자신을 과시하거나 “감사”하다는 말 한 마디 들어보지 못한 채 “작은” 일에 부름을 받아 일해 오신 분들에게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언제나 먼지를 털어내고 쓸어내어 깨끗이 해 주는 건물 관리인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월요일만 되면 건물은 온통 난잡해져서, 언제나 같은 일을 모두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기에 필요한 사랑과 헌신이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관리인들은 여러분이나 나와 같이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예배 장소를 늘 합당하게 보관해야 할 힘든 과업을 감히 감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간증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저지를 때 기분 좋게 있지 못할 것입니다.

각 와드나 지부에서는 예배 모임을 위하여 지명된 안내자와 영접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임무를 맡은 회원들이 그 책임을 온전히 이행할 때, 경건한 분위기는 보장됩니다. 성도들이 문가

에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의 친절 한 인사를 받을 때 각 사람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세상적인 문제와 관심에서 마음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음악을 조용히 들려 주어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르침과 일치하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수많은 반주자에게도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공과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경전을 대조해 보며 개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적절한 단어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는 항상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교성 42:14)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캐롤 린 피어슨은 자작지에서 영원을 학교 연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신임해 주어 자주 주역을 맡기면, 그 방면에서 계속 향상하여 기대 이상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거룩한 부름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왜 그 형제를? 왜 그 자매를 임명할까?”라는 석연치 않은 듯한 불평의 말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던 사람이 조금 후에 보면, 감춰졌던 재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인간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분명한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교회의 부름이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나 세상에서 사용하는 계량기로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여 그에 준한 부름을 임명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발전은 크게 저해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잠 29:18)라는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업에서는 지위를 추구해서는 안되며, 또한 봉사하라는 부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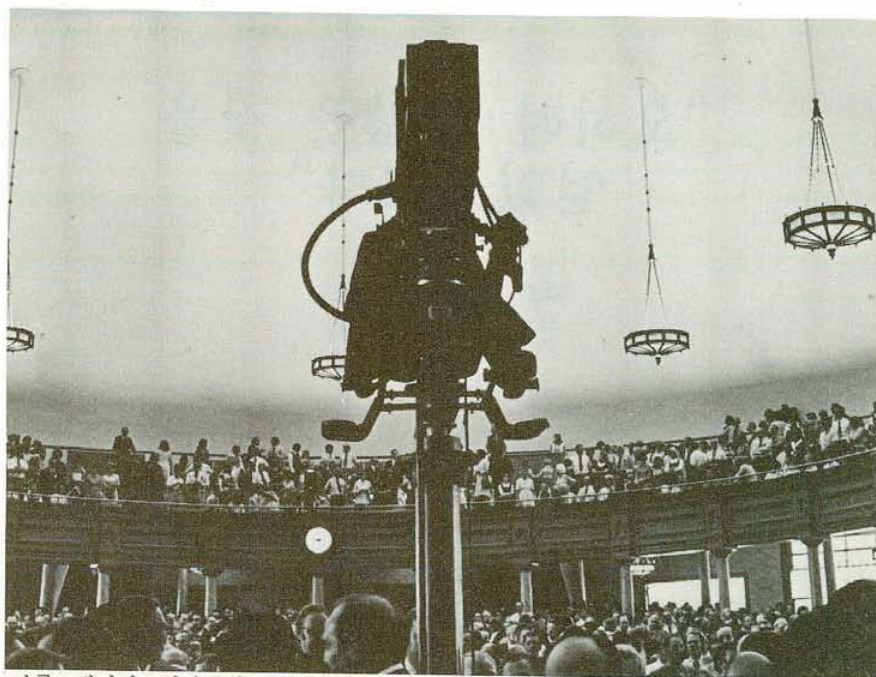
거절해서도 안됩니다. 교회에 새로 들어온 어느 훌륭한 형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는 앞장선 자리에서 일하고 싶어했습니다. 연차 대회 모임 도중에, 다행스럽게도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님과 약속할 기회를 갖게 되자 그는 곧 이렇게 물었습니다: “브라운 부대관장님,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감독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브라운 부대관장이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한 부름이 되든지, 주님의 초청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모든 말일성도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피어슨 자매의 시에는 학교 연극에서 소위 창병이라고 불리우는 조명 담당자에 대한 은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학교 연극에서와 마찬가지로 “조명 담당자”가 없으면 완전히 기능이 마비되고 맙니다. 이들은 자신을 그늘 속에 가리우고 무대를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주 계획인 주님의 보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충실한 회원들입니다. 현재 위대한 교회 지도자로 계신 분들은 누구나 과거에는 “조명 담당자”였습니다. 영원한 발전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간 향상의 이 거룩한 과정은 복음 계획의 바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최소한 이 생에서 최후의 장면을 밝게 비추기 위해 앞 자리에서 잠시 뒤로 물러선 수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는 과거에 선교부장으로 봉사했으나 현재는 기꺼이 와드 서기로 훌륭하게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전에는 스테이크 부장이었다가 현재 집사 정원회의 고문으로 있어 젊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일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섭리를 좀더 거시적인 면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에게는 훌륭한 스카웃 단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물어 보십시오. 어느 감독에게는 와드 서기가 얼



미국, 캐나다, 필리핀에 대회 말씀을 전하는 텔레비전 카메라

마나 중요한가를 물어 보십시오. 어느 교사에게는 와드 도서 책임자가 얼마나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물어 보십시오. 300 년 전에 산 사람에게 계보 조사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어볼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군대에서 훌륭한 창병을 우리는 “보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참으로 훌륭한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적숙 지도자보다 반 걸음쯤 뒤에 물러서서,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최종 결정이 완전히 자신의 의견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해도, 기꺼이 최종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가르치는 복음의 개념 중에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알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처음 것은 나중이 되고 나중 것은 처음이 되리라” (교성 29:30)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사람은 가정 복음 교사를 했던 사람이잖아”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들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 복음 교사가 지침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행하며, 합당하게 생활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능히 물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내 뒤에 앉아계신 형제님들께서도 교회의 다른 모든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표준을 조금도 어김없이 적용받게 된다는 것 역시 흥미있는 일입니다. 공정하고 참된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단 하나의 유일한 규칙만이 있을 뿐이며, 하나님은 전혀 인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경전은 특정한 사람만이 상고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은 참으로 중대한 것입니다. 경전은 대관장단에 계신 분들에게나 새로 개종한 분들에게나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조명 담당자”에게,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심심한 사의를 포함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위한 책임을 완수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하면서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협조와 지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지지가 없이는, 현재와 같은 교회 조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도 이같이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꺼이, 능률적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에스 딜워스 영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교회 봉사를 통해 얻은 기쁨과 경험과 교훈에 대한 간증



한 일주일쯤 전에, 나는 이 대회에 서 행할 말씀의 원고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전에 생긴 일로 해서 약간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작곡어로 통역하시는 통역자에게 미리 내용을 알려 드릴 시간이 없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로 내가 길을 걸어 가거나 증계를 올라갈 때 걸음을 멈추고 나를 팔로 감싸주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4 배나 늘었습니다. 나는 내가 은퇴한 것이 아니라, 되돌아온 것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다정한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들을 때마다 나는 몇 번씩이나, 이미 세상을 떠난 조지 킴볼 형제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누가 돌아가시지나 아니했나 하는 생각으로 주위를 둘러 보곤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어느 친구가 나에게 이

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잃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의의 기수가 될 목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정원회에서 새로이 가까운 친구와 동료들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구의 확장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없었던 7 명의 지도자를 얻었는데 그들은 능력과 힘과 지혜의 면에서 나를 훨씬 초월해 있었습니다.

나는 지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봉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봉사함에 있어서, 나는 내 팔을 전 세계에 펼치어, 힘 닿는 데까지 널리 펼치고, 내가 볼 수 있는 곳까지 높이 올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봉사하는데 유일한 자신의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의 체력, 정신력 그리고 동정심 등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신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의 말씀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확실히 얻었습니다.

나는 과거 여러 해 동안 칠십인 제일 평의회에서 함께 일해오는 동안 내가 배운 것을 잠시 동안 생각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브리감 에이치 로버츠 회장이 연대의 군목으로 복무하셨을 당시 나는 일개 군인으로 있었습니다.

나는 연단에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제이 골든 킴볼 회장의 해학은 물론 그의 지혜에 탄복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무엘 오 베니온 회장의 가까운 종으로 26 개월간 봉사했습니다. 나는 공적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 레이 엘프렛 회장의 능변에 탄복한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나는 존 에이치 테일러 회장이 제일 평의회의 일원이 되기 오래 전부터 그를 존경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오스카 에이 커컴 형제의 힘찬 음성에도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밀튼 알 헌터 형제의 절대적인 신앙에 감동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리차드 엘 이반스 형제와의 우의와 앤트완 알 아이빈스 형제의 은근한 지혜에 대한 추억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평의회에는 이 밖에도, 내가 1945년부터 사귀어온 가까운 친구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조부인 시모어 비 영 박사의 지혜와 신앙을 오랜 세월 동안 익혀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분은 이 평의회의 선임 회장으로 오랫동안 일해 왔으며, 레이비 에드가 영 숙부님과 나의 성장기와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이상 모든 분들이 제일 정원회가 조직되기를 기원하고, 바라며, 일해 왔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모험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앞을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키스는 기꺼이 행하는 자이다”라는 데이비드 커퍼필드에서 나오는 한 귀절을 칠십인 제일 평의회에 드리는 바입니다.

나는 말씀을 끝마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목격하는 변화의 과정 속에 살고 있으나, 킴볼 대관장과 그 보좌들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상의하여 마음속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일은,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구석에서 행해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는 신전에 앉아서,

두 관리 정원회 즉 대관장단과 십이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김볼 대관장님의 권능이 크게 증가했음을 실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이 교회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경험이 풍부하며 가장 충실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다지도 오래 갈구해 왔던 일이 이루어짐을 보게 된 나는 무엇보다 가슴이 벅차 울랐습니다.

앤트완 알 아이빈스 형제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가 죽기 전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조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나도 역시 영의 세계에서 이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지상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영의 세계로 가면, 아이빈스 형제에게 몇 년만 더 오래 살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제일 정원회의 한 회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이 정원회에 속해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재능을 잘 활용하여 수행해 나간다면, 나는 크게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예언자께서 1976년이라는 상황에 맞추어 그의 권능을 행사하여 칠십인 제일 정원회를 조직하신 일이 옳은 일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께서 내게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봉사하겠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희망입니다. 이 새로운 정원회 회장단과 이 정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 교회의 선교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됨을 보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온전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는 이 교회가 그에게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를 부르시어 친히 이 교회를 회복하셨습니다. 나는 김볼 대관장님과 그 보좌들을 지지합니다.

나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분들을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영향력 있는 교사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가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공과를 가르치지 말고 영혼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충동은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것은 피로우면서도 물리칠 수 없는 욕망이다. 인간은 때로 나약하게 행동하여 남으로부터 동정과 자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도 한다. 인간은 이 험난한 현실 세계에서 거부당한 자신의 중요성을 정신착란증의 꿈의 세계에서나마 되찾기 위해 실제로 미치게 되는 수도 있다고 하는 학자도 있다.”

영향력 있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들을 정직하게 인정을 해 주고 개인적인 가치관을 심어 줌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부모나 교사는 그들의 자녀나 만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몇 년 전, 올딘 포터 형제가 보이즈 노드 스테이크 부장으로 있었을 때, 그의 와드의 소년단 대장으로 있었던 클렌 클레이튼 형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클렌 형제는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포터 부장은 잠시 멈추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떠났습니다. 몇 시간 뒤에 그가 되돌아와 보니 아버지와 아들은 아직도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포터 부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렌 형제님, 이 낡은 자전거를 수리하느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버는 돈으로 새 것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클렌 형제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자전거를 수리하는 것이 아

에 스겔서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벧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겔 34:6-7)

이 역사적인 대회를 마치려는 이 시간에 나는 모든 교사분들에게 “영향력 있는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영혼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부모와 교사의 관리자 직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거룩하게 위임받은 임무를 훌륭하게 이행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미국 철학자 중의 한 사람인 존 듀

나라, 이 아이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해에 글렌 형제가 말은 대에서, 스물 한 명의 소년이 독수리 소년단원이 되었습니 다. 영향력 있는 교사는 공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르칩니다.

교육자가 실패하는 이유를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아래와 같은 시로써 적었습니다.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바보 같은 학생이 있더니
부끄러운 일이야,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군

고등 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세상에, 이렇게 둔할 수가 있나,
국민학교 과정이 전혀 잘못되었군.

국민학교 교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저렇게 우둔한 아이를 내가 어찌 말
는담.
저다지 훈련되지도 않은 애를 학교
에 보낼게 뭐야.

유치원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되지 못한 아이는 처음
보았어.
이 애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여잘
까?

어머니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 가여운 녀석 너에게 무슨 죄가
있단.
죄가 있다면 아버지에게 있겠지

얼마 전에, 나는 어느 스테이크 매
회의 신권 위원회에서 가족에 대한 가
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끝나자 어떤 사람
이 내게로 다가와서 자기를 소개하면
서 그는 내게 편지를 쓰겠다고 했습니
다. 그후 며칠 뒤에 나는 그로부터 이
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읽
어 드리겠습니다.

“페더스토운 감독님,

“감독님은 스테이크 매회가 있었던
지난 토요일 저녁 우리가 연단에서 잠
시 나누었던 대화를 잊으셨을지도 모르
겠습니다. 그때 감독님께 나에게는 17
세 난 아들이 있는데, 나는 그 아이에

게 9년 동안이나 다정한 말 한 마디 한
일이 없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 어머니와 나를 상당
히 오래, 특히 지난 이 년 동안 실망시
켰습니다. 그와 나는 그의 생애의 반
이상이나 부자 관계를 끊었습니다. 정
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
나 그가 우리를 슬프게 했던 일은 나로
인해서 그 많은 시간을 그가 쓸쓸하게
보냈어야 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많은 날 밤마다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인 나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고 구박받는다는 생각을 하
며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에스젠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
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였습니다.
(겔 18 : 2) 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가르칠 수 있
는 가장 큰 가르침은 우리 자신의 집안
에서 행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
게 진리의 원칙을 가르치라는 성스러운
임무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구세주의
행하심을 따라서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도 이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교사는 영의 세계에서 도
버려지지 않으며, 적당한 때에 이 지상
의 광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왕국의
모든 지도자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판은 정
원회나 교실 밖에서까지 미치지 못할지도
모르나, 여러분의 영향력은 영원한 세
계에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내적인 칼럼니스트인 에르마 봄
베크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일의
순서를 온통 혼동시키고 있는 때가 많
습니다. 존 소넨버그 회장이 “마이크
는 돌아오겠지”라는 제목으로 쓴 다
음 글에 큰 감명을 느꼈습니다.

마이크가 세 살 때 모래놀이 통을 갖
고 싶어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만했습니다. “그
걸 뒤뜰에 만들어 놓으면 매일같이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어 모래를 던
져대면 잔디가 죽게 된다.”

어머니는 이렇게 만했습니다. “잔디
는 살아나겠죠.”

마이크가 다섯 살 때 정글짐(유치
원에 따위에 마련해 놓은 철골 운
동 시설) 갖고 싶어했어요.

신나게 뛸 수 있는 그네랑, 꼭대기
까지 오를 수 있는 정글짐이랑. 아
버지 말씀이, “저런, 뒤뜰에 그런
것이 있는 집도 보았다만, 잔디가
어찌되었는지 알겠니? 목장의 진
흙발 갈더구나! 아이들이 운동화를
신고 땅을 파 대니 안 그렇겠니. 잔
디가 다 죽어 버린단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형 수영장에
바람을 불어 넣으시다가, 숨을 들이
마시며, 아빠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애들이 사방에 물을 끼얹고, 수없
이 물싸움을 해벌텐데, 그러면 쓰레
기를 버리러 갈 때라도 진흙이 머리
에까지 튕 것이고, 이 동네에서 진
흙발은 우리집 밖에 없게 될게다.”
마이크의 어머니 말씀이, “잔디는
살아나겠죠.”

마이크가 열 두 살 때, 자기 집에
캠프를 치기를 원해서 소년들이 말
뚝을 박고, 텐트를 세우자,
마이크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
다. “텐트를 치고 그 큰 발로 잔디를
사정없이 밟아대면 어떻게 될지 잘 알
겠지? 대꾸하지 않아도 무슨 소리를
할지 알겠다. 잔디는 살아나겠죠.”

새로운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 할 때
썸,
겨울이 되어 썰매타는 아이들이 그
리로 몰려 들었어요.
마이크의 아버지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잔디밭이 한 군데도 성하지 못할거
야.”
마이크의 어머니 말씀이, “잔디는
살아 나겠죠.”

이제 마이크는 열 여덟 살. 이번 해
의 잔디는 아름답기도 하여라.
파랑고 싱싱하니 웅단처럼 깔렸어요
운동화로 짓밟던 길을 따라서
자전거를 굴리던 뜰 위에
어린 아이들이 작은 손갈로 파 내던
꽃밭 주위에

그러나 마이크의 아버지는 알지 못
합니다.

마당 저 너머를 걱정스레 바라보다
가, 스스로 물어봅니다.
“마이크는 돌아오겠지?”

영향력 있는 교사는 진정한 사랑의 태도로 학생들을 보살핍니다. 영향력 있는 교사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구세주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1966년에 킴볼 대관장은 신학원 교수 관리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제목은 “여러분이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교사는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청소년을 훈련시키고 영감을 주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세주와 같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무한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의 튼튼한 등으로 그 짐을 져야 합니다. 그 때야만 훌륭하고 능력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손을 가르치는 일을 여러분께 맡기고 있습니다. 내게는 스물여섯 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어려서 세상을 떠나 해의 왕국으로 갔습니다. 두 아이는 결혼도 했고 정규 교육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할 아이들이 아직도 스물세 명이나 있습니다.....어떤 사람이 담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지며.....그들이 담대하고 신앙 있고, 강하며 용기있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는 이유를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수많은 말일성도 청소년들보다 내 손자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내 손자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여러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를 믿는 믿음을 추상적, 지적인 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느낌을 그들에게 심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나는 여러분께서 의롭고 순결하며 순수한 것만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녀든 영적인 암흑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은 등불을 들고 나아가 그 길을 비춰 주어야 할 것이며, 그들이 영적으로 아



데니스 스미스가 조각한 템플 스퀘어 방문자 센터의 제물 바치는 아담과 이브상

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들의 빠른 깊이 스며드는 냉담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아무리 먼 길이라도 함께 가 주며, 그들을 격려해 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우어 주고, 고무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영향력 있는 교사는 순결해야 합니다. 일 년전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샘에서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흘러 내립니다.”

영향력 있는 교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위대하고 영원하고 첫째되는 일은 학생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은 다 하면서도 소년이나 소녀를 잃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성스럽고 거룩한 청지기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우리도 읊이 말씀하신 대로 행합시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써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요19:23-24)

영향력 있는 교사의 일은 반이나 정 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류 학자의 한 사람인 구스토브 엑스타인 박사는 같은 연구실에서 이십 오 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는 여러 새를 기르고 잡종 교배도 시켰습니다. 그는 연구실에서 기른 새의 변화와 잡종에 대한 것을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연구실에 들어서면 스테레오실로 가기 위해 두 세 계단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는 고전 음악 판을 올려 놓고 볼륨을 높여 놓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들은 고전 음악에 맞추어 함께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오후 5시 반쯤 되어 하루 일이 끝나면, 그는 스테레오를 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십 오 년 후에 그는 새로운 관리인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엑스타인 박사가 연구실을 나가자, 새 관리인은 공기를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창문을 모두 열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엑스타인 박사가 연구실로 돌아와보니, 창문이 모두 열렸고 새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낙망했습니다. 일생의 과업이 하루 밤 사이에 망가진 것입니다.

버릇이 되기도 했거나 본능에 의해서, 그는 스테레오실로 내려가 고전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 놓았습니다. 그는 계단에 주저 앉아,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울었습니다.

음악의 선율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나뭇 가지 사이로, 거리로 흘러 나갔습니다. 조금 뒤에 엑스타인 박사는 퍼덕거리는 날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위를 쳐다 보았더니 새들이 열린 창문을 통해서 연구실 안으로 날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엑스타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들이 모두 돌아왔구나!”

우리 청소년들도 영향력 있는 교사만 있다면, 복음의 고전 음악을 듣고, 모든 소년 소녀가 돌아올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세대의 영향력 있는 교사로서 특별한 사명을 갖고 특별한 때를 위해 청소년들을 키워주시는 수많은 부모님과 감독과 아론 신권 청소년 및 청년 교사, 신학원 중등부 및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님 안에서 죽은 자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가 의의 길을 따라 끝까지 그것을 지키다가 이 생을 떠난다면 우리가 완전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인간이 두렵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공포감까지 느끼게 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극히 두렵게 여기는 것이며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멸의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에 앞서 그 무서운 날에 육신의 옷을 벗어 버리고 우리가 왔던 흙으로 되돌아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인간의 죽음, 인간에게 닥치는 이 최후의 상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신의 인간으로서의 알 길이 없으나 지존하신 분의 성도들에게는 많이 계시된 이 세계로 들어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받고 안내되어야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드리는데 말씀이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의 참됨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훌륭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 보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시 116 : 15) 이 말씀에 바울의 찌르는 듯 예리한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

요.”(고전 15 : 56)

사망은 위안이 되고 아름다우며 귀중한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고통과 끝없는 지옥의 유희 불길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 개개인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영원한 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합당하게 받아들이자면, 먼저 생의 목적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두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신 곳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과 뼈의 육신을 가지신 거룩하고 영화로우시며 승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신 삶을 영생이라 일컬으며, 그것이 가족과 함께 살며 모든 권능과 능력과 지배권을 갖고 사는 생활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몸소 누리고 계신 영광과 영화와 승영의 상태로 우리를 향상시키고 발전해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가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을 받아 인간 생활을 영위하며, 시험과 시련을 당면하고 견딜 수 있는 지구를 창조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에는 일시적, 영적인 사망에 수반되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조항과 구세주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사망에서 구원된다는 사실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생이 마련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보의 계획에는 우리의 영원한 영을 위한 육신의 성전을 마련

해 줄 출생과, 질병에 시달리며 약한 육신으로부터 영을 자유롭게 해 줄 사랑이 다같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생은 결코 쉽게 지내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는 말씀드립니다.

이 생은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으로 시험받게 되는 시련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병을 앓고 죽게 됩니다. 우리는 암이나 나병, 또는 전염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재앙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재난이 일어나는가 하면, 홍수가 가옥을 휩쓸어 버리기도 하고, 기근으로 식량이 떨어지고, 천재나 전쟁으로 인간이 한꺼번에 죽어가며 집이 부서져 나가는 큰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을 말살시키는 거짓된 교리를 구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유혹, 육욕, 온갖 종류의 악 등은 계획의 일부이며, 어느 누구도 지상 생활을 하는 도중 이러한 것과 직면하게 됩니다.

지상 생활이라는 시험 과정은 모든 인류와 성도와 죄인을 다같이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속세의 사람보다 더 큰 시련과 시험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외아들을 바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리하이와 그의 가족은 그들이 살던 땅과 재산을 놓아 두고 광야로 떠나야 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성도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제단에 바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시련이 닥치는 것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것이며, 우리는 누구나 개인에 따라 필요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시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너희를 시험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의 성약을 지키려 하는지를 알아보아 너희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98 : 14-15)

그렇다면 사망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사망 후 우리의 생활은 어떠한가요? 죽음이 만민에게 임하는 것이며, 위대하신 창조주의 자비로우신 계획”(니이 9 : 6)을 이루기 위함인

라는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이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헤어진다는 것 외에는 죽음을 슬퍼할 까닭이 없습니다. 생과 사는 영원히 전개되는 드라마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상 생활의 시련이 없어서는 영생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는 특권을 받게 되었을 때 크게 기뻐 외쳤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불멸의 영광과 영생을 얻을 수 없으므로 위대한 주께 감사하여 이생을 보내신 것을 우리는 지금 찬양합니다.

충실한 성도들이 이 생을 떠나면 그들은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곳으로 영접되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을 잊고 편히 쉬”(앨 40 : 12) 것이며, 부활할 때까지 이런 상태에서 있을 것입니다.

악하고 불경했던 자들이 이 생을 떠나면 악행과 반항의 태도를 계속 지속하게 됩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너희 육신을 다스린 그 영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너희 몸을 다스리리라.”(앨 34 : 34)

니파이는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니이 31 : 20) 그 말은 충실한 성도들과 끝까지 견디어 나가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확실히 보장받고 이 생을 떠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참되고 충실하게 이 생을 보낸 사람들은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이탈되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성약을 지키고 우리의 복되신 주님을 굳건히 믿는 참된 간증을 가지고 이 생을 떠난다면, 분명히 영생의 대열에 함께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 곧 이 생에서 참되고 충실한 자들이 다음 세상에 가서도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주 예수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상당한 정도로 완전해 이른 의로운 사람도 많이 있고, 신앙을 갖고 율법을 지켜 결국 영생에 거할 것을 확신하며 이 세상을 떠나는 믿음 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영광의 날에 아버지의 왕국을 기업으로 물려 받기 위해서는 무덤을 넘어서까지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위대한 왕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22 : 34)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의의 길을 따를 때, 주님의 사업의 진실성과 거룩함을 확실히 간증할 때, 그들이 계명을 지킬 때,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왕국의 것을 우선으로 하는 생활을 할 때,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한 다음 이 생을 떠난다면, 그들이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가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시116 : 15)라는 말씀이 이상할 것이 있습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 그들이 주와 같이 될 수 있게 진보하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주님과 승영을 누리게 됨을 스스로 확신하는 영을 더 얻게 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경이롭고 영화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전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이상한 것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계 14 : 14) 충실한 성도가 창조된 목적을 모두 이루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게 됨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내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음이 저들에게는 단 연고라”(교성42 : 46)고 하신 말씀이 이상한 것이 있습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인간이 준비되어 있으면,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26 페이지)고 하신 말씀에 이상

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 올 때 맞보았거나 이곳에서 예기되었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가르침, 295페이지)
“부활하여 천사가 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가르침, 312 페이지)

우리는 죽음이 위대한 창조주의 자비로운 계획의 일부가 되기는 하지만, 죽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을 즐기며, 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이웃에게 봉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충실한 성도는 사악한 세상에서 의의 발효제가 됩니다.

이 지상 생활은 짧은 순간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고 충실하다면, 결국 승영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잃고 고통받는 모든 것은 부활할때에 모두 보상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몸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육신이 되어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생활을 한다면, 해의 왕국의 영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천국의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가 말씀하신 대로, 가족과 함께 제국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똑같은 사귀임이 하늘에서도 있으리니, 다른 것은 다만 그 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향유하지 못하는 영원한 영광이 함께 따르는 것이니라”(교성 130 : 2)

우리는 삶을 즐깁니다. 우리는 죽음을 즐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늘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매의 훌륭한 사도가 죽음에 임박하여 한 말씀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 : 6-8)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내 생애 최고의 것

로버트 이 웰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인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오겠다는 요한의 요청은 구세주로 하여금 요한이 더 큰 일을 택했노라고 말씀하시게 하였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매우 극적인 순간을 택하여 선교 사업의 가치를 강조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사도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생을 속히 떠나 왕국에서 구세주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받던 요한은 뒤에 남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택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 왕국에서 구세주와 함께 하기를 택하였으나 구세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사랑하는 요한은 더 큰 일을 택하였도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성 7편 참조)

내 생애 최고의 것은 언제나 선교 사업이었으며, 이제 이 일을 맡는 칠십인 정원회의 한 사람이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내 생활에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이며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아내와 나와 내 아내를 잘 따라 준 사랑하

는 자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부모님과, 저 세상으로 가신 부친과, 예언과 약속의 백성으로, 내가 사반세기 동안 함께 생활하며 일할 특권을 지녔던 레이맨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언자가 함께 하신 이 거룩한 자리에서 나는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기도예 응답해 주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과 수없이 많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고통받고 돌아가셨으며,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음을 압니다. 말일에 요셉 스미스에 의하여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오늘날 교회는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여러 위대한 총관리 역원들과 같이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살아계신 예언자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헤어지며 찬송 하나 더 하세...”



다시는 그와같이 되지 못하리

제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
관리 감독단 제이 보좌

새로 관리 감독단에 부름받은 형제의 간증



여러 형제 자매님, 지금 이 시간과 지난 주일 동안 내 마음 속으로 느꼈던 감회는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속의 감회를 “내가 너무 흥분하고 있었는지 말할 수 없이 긴장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로 표현하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다시는 그와 같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에게서 부름을 받은 것과 십이사도 평의회 사도들의 손으로 안수 성임받은 것은 내 일생 동안 영원히 잊지 못할 훌륭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웰스 장로님을 비롯하여 내 생애에 끊임없는 영향을 주시어 이러한 위대한 부름을 받게 도와주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렉스버그에서 텔레비전을 지켜 보고 제실 구십대의 노부모님께서 그렇게 오래 사신 보람을 이 시간을 통하여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부름을 받게 되든지 나를 지지해준 나의 동반자인 아내에

게 감사를 표하며 나도 아내가 무슨 부름을 받든지 그의 부름을 지지해 왔읍니다.

킴볼 대관장님께서 명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나에게 집에 가서 이에 대하여 좀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것은 나의 아내와 내가 결혼 당시에 했던 결정이었기에, 바로 그 자리에서 분명히 대답해 드릴 수 있다고 기꺼이 말씀드렸읍니다.

나는 나의 가족에게 이것은, 우리가 받은 다른 부름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부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가족들은 유리로

만든 집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서로 책임이 있다는 것과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는 내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예언자임을 내 영혼에 증거해 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주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들을 불러 그의 영에 참여하게 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 곧 후세에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의와 기쁨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이때에 살게 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 외에도 이 시간에 평화롭게 거룩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친 많은 분들께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있는 의로운 소망을 성취하며 그가 바라는 대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버나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성도들



인간을 위한 사업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

교회 회원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힘껏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훌륭한 대회도 끝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요 아낌을 받는 태버나클 합창단이 풍부한 재능을 발휘하여 천국의 교향악을 들려 주어 우리는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합창단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도 역시, 우리의 모임을 영적으로 고조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우리와 주님께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공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관리 역원들이 약간 변경되었으나 이 모든 분들과 뜻을 같이 하여 그들을 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관리 역원들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주제를 다룬 것이었으며, 내용이 풍부하였고, 정말 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

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태너 부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유럽 지역 대회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동양과 남미와 멕시코, 그리고 남태평양에서도 같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롭니 부대관장님은 정직과 성실과 동반자를 주제로 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중간에 합창단의 합창이 있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서 간추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시험받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한 사도의 눈을 통해서 영원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형제의 관찰을 통해서 미독립 2백주년 기념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형제님들이 예로 든 다양한 인생 경험은 길을 가리켜 주며,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잡아 주고, 비유와 인용문과 권고를 통해서 위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형제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명대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다정한 말씀으로 교회의 표준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모와 감독되시는 분은 가장 훌륭하게 선교사 준비를 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구세주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과 빛 영원한 곳 하나님 계신 곳, 우리 인도 하시려고 길 예비하셨네”(찬송가, 203장) 꺼지지 아니하는 빛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깜박이는 촛불

을 얻고자 그다지 애써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총관리 역원들의 많은 간증은 긍정적이며, 똑같으며 고무적이고, 신앙을 강화해 주고 소망을 심어 주며, 합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와 같습니다.

그대가 황무지에

온갖 심혈과 땀을 쏟는다면

한 송이 백합을 피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하늘에 뜬 구름을

온통 저녁 노을 색깔로

물들일 수 있을까요?

아, 나약한 인간이여

그대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영혼으로부터 온갖 고뇌와 근심을

덜어 줄 수 있을까요?

그대 무력한 인간이여,

할 수 없을지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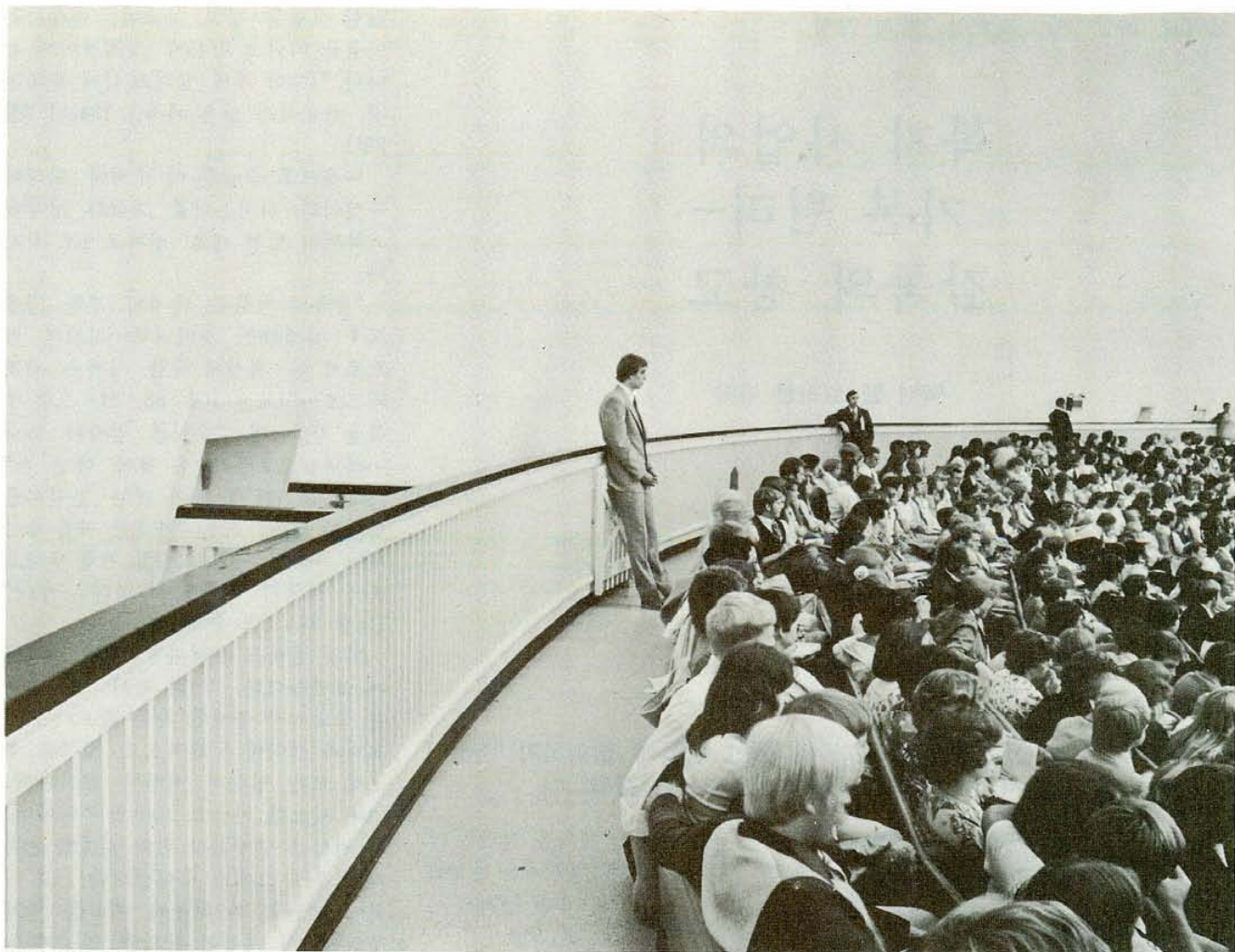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총관리 역원들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권고의 말씀을 왜 지키지 못하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실망하셨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주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고 말씀하신 까닭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다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46)” 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앞으로의 우리 생활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훌륭한 대회도 끝나가므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에게 주님이 명하신 일과 이 대회에서 분명히 밝혀진 것을 행하시기를 다시 권고합니다.

최근에 나의 외과 수술과 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어느 저명한 의사는 내가 교회 대관장이라는 큰 책임을 맡고 있음을 알고는 약간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이 아니



태버나클 옥상 발코니에 운집한 성도들

있으며, 따라서 그는 주님이 경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그의 영광을 위한 보다 큰 사업을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느끼게 되는 큰 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고 계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주님의 사업에 의문을 품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놀랍니다. 이 거룩한 사업에 확신과 간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길과 열정에 조금도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조금도 의심없이 알고 있으며, 의심을 품고 그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며, 그분은 인간과 인간에

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과 지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는 데 같이 참여하셨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속주였으며, 이 세상의 구세주이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요, 그가 주신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모든 인간을 승영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참된 교회를 조직하시어, 교회를 그의 이름을 따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부르신 것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구원을 위한 자비가 베풀어집니다.

주님은 그의 예언자들과 교통해 오시었으며,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베드로와 요셉의 시대나 세계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진리를 계시로써 알려 주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빛과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

른 경륜의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인간에게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 살게 된 이래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진실되고 바른 것을 열심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들으려 하지 않아, 들으려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던 때도 많이 있었읍니다. 인간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과 성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승영에 이르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복음에 완전히 일치하는 생활을 하기를 권하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세상의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복지 사업의 기본 원리- 감독의 창고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스테이크와 와드 신권 지도자가 복지 생산 사업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 복지 생산 사업은 감독의 창고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나는 교회 복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감독의 책임과 그 책임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창고의 기능에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나는 먼저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이 하신 뜻 깊고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인용하겠는데, 여기서 그는 복지 사업의 목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복지 계획은 개인에게 현세적인 필요 사항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도움을

베풀기 위한 영구한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영적인 복지에 관해서는 영구히 돌보아 줍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 1949년 4월 5일)

복지 사업을 본질상 현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실은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지 사업 조직은 인간의 조직에 불과할 것이며, 인간이 만든 조직의 약점을 그대로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영적인 본질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주님의 방식대로 행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의 영적인 특성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클라크 부대관장은 계속해서 감독이 현세적 면과 영적인 면에서 복지 사업에 책임을 져야 할 의무를 설명했습니다. “감독은 ‘장로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하여 주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찾아 그들을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현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창고에서 일용품을 내어와야 하지만,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는 그들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고,

상한 심령을 갖고 있으며, 애용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 출판되지 않은 기사, 1941년 7월 9일)

다음으로 주님은 이 주제에 관하여 무엇이든 하시는가를 교리와 성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감독의 직분은 속세에 관한 일을 모두 집행하는 것이니라...진리의 영으로써 이 세상에 속한 지식을 갖게 되므로...”(교성 107:68, 71) 그는 부름을 받을 때, “은사를 받았다 하나...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자”(교성 46:27)를 찾아 내는 분별력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가난한 자를 찾아 내며 부유한 자와 교만한 자를 낮춤으로써 저들의 부족량에 따라 나누어”(교성 84:112)주어야 합니다.

다시 클라크 부대관장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독에게는 주님께서 불쌍한 자를 돌보기 위해 교리와 성약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모든 권능과 책임이 주어지며, 그에 필요한 기금도 그에게 주어지며,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은사와 임무도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 이외에 누구도 이 의무와 책임을 맡지 못하며, 이 사업에 필요한 권능과 임무는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감독은 교회의 가난한 자를 돌볼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유일한 자이므로 실제로 범법하지 않은 이상, 누구도 그의 조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만 누구를, 언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또한 와드의 어느 회원에게 교회 기금으로 얼마를 도와주어야 하는지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맡기신 중대하고 성스러운 책임입니다. 감독은 이 의무를 기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 자신의 책임을 덜 수도 없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든지 그에게 모든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클라크, 출판되지 않은 기사)

이와 같이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독이 복지 사업 임무를 어떻게 이행하는가를 토론해 보기로 합니다.

우선, 감독과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는 반드시 와드 회원들에게 복지 사업의 원리를 가르쳐 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총관리 역원들은 이 연단에서 개인 및 가족 예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주님의 계획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몇몇 보고에 따르면 가정 비축을 전체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회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여섯 가지 원리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교육(문맹자가 없도록 함). 둘째로 직업 및 사회 진출 계획, 셋째로 재정 및 자원 관리, 넷째로 가정 생산 및 비축, 다섯째로 보건, 여섯째로 사교성 정서적인 힘입니다.

가정 생산 및 비축은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 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일한 요소가 아니며, 반드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비에 관한 주제를 세상이 끝날 때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여섯 가지 원리는 다같이 강조해야 하는 것으로, 말일성도는 더욱 훌륭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일을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재난이나 공황에 대비하려는 생각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은 겸약하는 생활의 방법이 되어야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단계는 회원들에게 일상 생활을 위해 훌륭하게 준비하여 자립하고 독립하도록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는 중에, 감독은 회원들의 상태와 부족한 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궁핍한 자를 찾아 내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대체로, 그러한 것은 가정 복음 교사와

와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가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필요 사항을 평가하고 확인하게 되면, 감독은 자기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지명하여 기존 교회 정책에 의거하여 도움을 베풀게 됩니다. 주님은 감독에게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해 주시어 그가 와드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도록 도와 주십니다.

이러한 것으로는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 상호부조회, 감독의 창고, 데저렛 산업, 복지 생산 사업 및 금식 기금 등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감독의 창고에 대한 몇 가지 점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독의 창고는 궁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넉넉한 자가 내 놓은 헌납된 물건을 비축해 놓는 거룩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감독의 출고증을 받은 궁핍한 사람은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잠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음식물이며 의복 및 기타 물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저렛 산업은 또한 비음식물류의 물품에 대한 창고의 구실을 맡고 있습니다.

생산 사업이 감독의 창고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는 현금으로 운영되는 창고가 설치됩니다. 이것은 여유있는 사람이 돈을 내면 감독이 궁핍한 사람의 부족한 것을 충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독의 창고의 물건으로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의 출고증은 감독이나 감독의 지시를 받는 상호부조회 회장에 의해서 작성됩니다.

필요 사항이 열거된 완성된 출고증에 대해서 감독은 승인하고 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근처에 있는 상인과 사전에 타협을 하여 가장 알맞은 가격으로 출고증에 기재하게 됩니다. “대신으로 지불되는 현금”으로 알려져 있는 교회 복지 기금은 상인에게 물건값을 치르는 데 사용됩니다. 금식 기금은 현금으로 운영되는 감독의 창고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감독은 창고와 금식 기금으로, 우리가 두 손으로 영적인 축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 손으로 회원들에게 축복을 주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감독은, 한 손으로는 창고의 물건을 다른 한 손으로

는 금식 기금을 이용하는 등, 양 손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형제님들은 창고의 물건을 잡은 손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일용품을 사용하면, 주님의 겸약과 자립심의 계획에 일치하는 것으로, 감독의 창고에 음식과 비음식류가 밀려들게 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금식 기금은 주거나 설비와 같이 현금이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감독의 창고는 생산 및 분배의 복지 사업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고리와 같은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와드가 감독의 창고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시초인 1831년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거듭 말하노니, 감독은 이 교회를 위하여 창고 하나를 지정하여 백성의 부족량을 충당하고 남은 것은 돈으로나 음식물로나 다 이곳에 보관시켜 감독의 손으로 이를 관리하게 할지어다...

“보라, 이것은 나의 종 에드워드 패트리지에게 예로 주는 것이니. 다른 곳에 있는 모든 지부에서도 이를 따를지어다”(교리와성약 51:13, 18)

이 계시를 받은 지 100년 후인, 1930년에 현재와 같은 복지 계획이 설립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관리 역원들은 “교회의 감독은 누구나 감독의 창고를 마련해야 한다”는 충고를 해 왔습니다. (본부 위원회 공보문, 1948년 10월, 복지 계획 지침서, 1952년, 45페이지)

현재와 같은 분배의 필요성과 생산 사업의 이용으로 인하여 각 스테이크에 창고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교성 78:14)되지 못하면, 주님의 왕국은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감독이 창고를 가지지 못하면 주님의 뜻대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보살피는 것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독의 창고 제도가 미국의 서부 지역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까지 파급되도록 우리는 전력을 다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있게 잘 계획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님들께, 현재와 미래의 창고의 필요성을 분석하여, 교회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시어 권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의 창고 설립 기준에 대해서 알려면 복지 사업 지침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창고 제도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함께 축복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아야 합니다. 창고는 받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것만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기술, 향상과 품위와 자부심을 갖게 해 줍니다. 창고로 해서 우리는 참된 기독교적 사랑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고도 교회 회원들이 희생과 헌납의 성약을 생활하도록 도와 주어 그들을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83 편에서 “이 창고는 교회 회원의 헌물로 유지되나니……”(교성 83: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날 복지 계획의 일환인 우리의 창고는 실제로 교회 즉 교회 회원의 헌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창고는 교회 회원들이 그 목적을 위해 만든 일용품과 물건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축물은 자신의 뜻에 따라 무료로 주어진 진정한 헌납물로, 무상으로 내놓은 것이든, 보상을 받고 준 것이든 헌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 1944년 10월 6일, 감독 모임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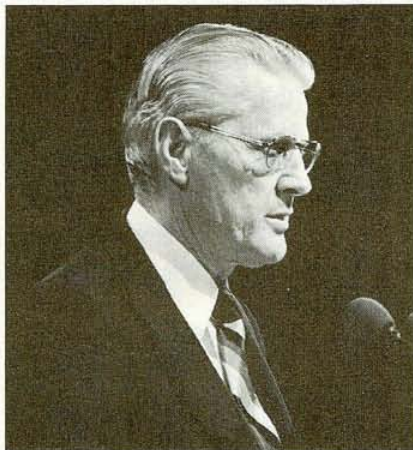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님들께서 교회가 더욱 완전하게 전진해 나아가게 하시려면, 각자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복지 생산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 감독의 창고가 설립될 것이고, 그 결과 완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어, 우리 회원들은 문자 그대로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할 수”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생산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함

에이치 버크 피터슨
관리 감독단 제1보좌

스테이크 및 와드 신권 지도자에게 주는 복지 생산 사업 계획을 위한 제언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복지 생산 사업에 관한 브라운 감독의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지 생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와드나 다른 와드가 생산 사업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왜 행해지고 있지 않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여러분의 감독의 창고에 필요한 물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감독의 창고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와드가 이미 와드 단위나 스테이크 단위로 이 생산 사업을 행하고 있다면 와드 회원이 충분히 이 일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그 사업이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단일 와드, 복수 와드 또는 스테

이크 단위로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의 열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그 직책을 맡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여러분이 이 일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음의 기본적인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여 여러분의 생산 사업을 올바르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나 고통받는 자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교리와 성약에서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녀는 장성할 때까지는 양친에게 양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장성한 후에 저들은 교회에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그 부모가 저들에게 상속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주의 창고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느니라.”(교성 83:4-5)

개인이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을 때 그의 가족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궁핍한 자들의 가족이 돈벌이를 하거나 생필품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을 때 감독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복지 사업 지침서에 따르면 각 와드의 감독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감독은 교회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볼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유일한 지도자이다... 그에게만 누구를 언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결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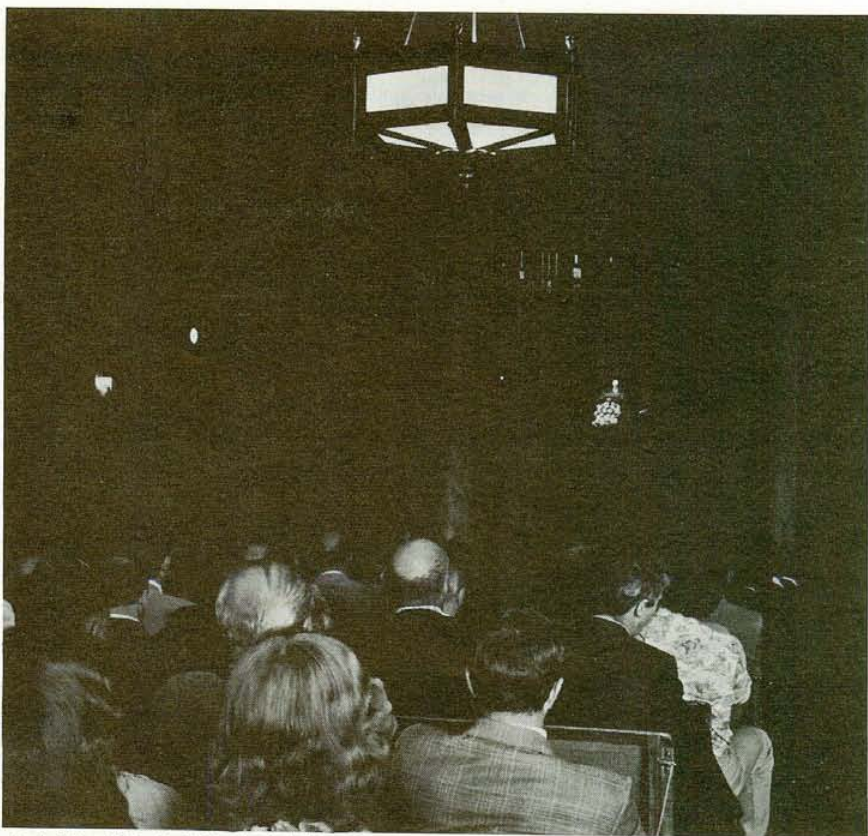
고, 또한 와드의 어느 회원에게 교회 기금[또는 일용품]으로 얼마만큼 도와 주어야 하는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주님이 맡기신 중대하고 성스러운 책임이다. 그가 이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든지 그에게 모든 책임이 맡겨져 있다.”(북지 사업 지침서, 1-4페이지 참조)

감독은 자신이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의 전반적인 북지 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할 신성한 의무를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소홀히 다루기 쉬운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있는 신권 지도자들은 이 근본되는 원리를 명심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이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한다면 그의 영혼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감독이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들의 생활을 복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금과 물자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현금은 금식 헌금에서, 물자는 감독의 창고에서 충당됩니다.

금식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최근의 일부 회원들이 그 헌금이 어떻게 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궁핍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교회에 헌금하는 방법은 금식 헌금을 내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김블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풍족할 때 우리는 더욱 관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겨우 두서너 끼를 금식해서 마련한 돈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합시다. 7 배가 많은 금액을 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합시다.”(필름 스트립, 북지 사업의 원리.....“내가 정한 방식대로”) 모든 충실한 회원들은 주님의 종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부름에 충실히 응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감독의 출고증에 따라 내어 주기 위한 충분한 물자를 어디서 얻어 창고에 둘까요? 북지 기금 및 생산 사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회원들은 교회의 감독의 창고에 쌓아 둔 식료품 또는 비식료품을 생산하도록 돕습니다. 창고는 감독이 출고증을 발



배버나를 동쪽 끝에서 본 연사의 모습

급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적인 문제로 보아서도 창고가 있는 지역에서는 감독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금식 헌금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일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산 기초는 충분히 유지되고 이용될 수 있으며, 소매상에서 일용품을 사기 위해 금식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 사업으로 만들어진 일용품을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교회의 기금이 덜 지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언제나 상업상의 불안정한 공급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산 사업의 기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식료품 및 비식료품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회원들로 하여금 금전이나 노동을 아낌없이 제공함으로써 불우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셋째로 책정된 일용품 생산 예산과 연간 운영비를 충당키 위하여 충분한 일용품이나 현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며, 넷째로 교회의 도움을 받은 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이며, 다섯째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도록 지역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며, 여섯째로 보류지와 훈련되고 경험있는 경영자와 일꾼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일 년간의 종자와 비료와 연료와 사료 등을 마련하여 앞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필요가 생기면 더 많은 일용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일곱째로 개인과 정원회에 형제애와 기초 식품의 생산 경험을 갖게 해 주기 위함이며, 여덟째로 사회에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범을 보여 사업이 성공적이 되고, 교회의 건설적인 면을 반영해 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와드나 스테이크는 어떻게 생산 사업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생산 사업의 참여의 필요성과 향상에 관해서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은 그의 한 보좌에게 생산 사업에 관해 충분히 연구하도록 책임을 주어야 합니다. 책임을 받은 보좌는 상호부조회 회장단을 대표하는 생산 담당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가와 같은 전문가는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업 제언을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사업가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제언은 앞에서 열거한 생산 사업 제언과 일치되는 것 이어야 하며 다음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이 지역에 알맞은 것인가?
2. 사업이 지역의 다른 사업과 조화되는 것인가? 지역에는 그와 같은 사업이 너무 많지 않은가? 사업은 전체 복지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3. 와드나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요구되는 재정적 시간적 부담은 어떠한가?

4. 승인, 기금 확보, 운영을 위한 날짜는?

5. 운영 계획의 개요에는 생산 예산, 생산가, 순이익, 복지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들의 참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사업이 배당받은 일용품 생산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6. 더구나 그 제언은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 가. 사업은 회원들이 행하기 쉬운 것인가? (예를 들면, 스테이크가 지역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때는 와드 사업은 스테이크나 지역 단위로 행하는 사업보다 더 효율적이다.)

- 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는 와드나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적합한 것인가?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회원들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

- 다. 일용품 생산이 성공적이었다는 전제가 있는가? (입증된 지역 농업 및 사업 방법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 르. 일용품이 지역의 자급 자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가? (어떤 지역은 일용품, 곡류, 육류, 달걀, 유지 및 식용 기름, 감귤류 또는 그 대용품, 사료 등이 생산될 때 그 지역은 식량면에서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된다. 그 품목이 생산되어야 할 기본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제언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하고 나서 담당 신권 지도자는 기도으로써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단위 조직에서 결정을 내리면 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당 복지 사업 위원회에서 토의해야 합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에서는 신권 조직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역 단위 조직에서 토의와 승인이 있는 후에는 교회의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생산 사업은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과 자료는 교회 본부에 편지를 보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사업을 결정하고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재정 문제에 관해서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복지 생산 사업을 지역 조직이 완전히(100 퍼센트) 소유하고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로부터 사업체 구입을 위해서나 운영비를 늘리고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구입을 위한 대부금과 사업체 구입비의 75 퍼센트까지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금 상환은 경우에 따라 결정되나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 구입비는 사업의 이익금으로 충당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회원들의 헌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헌금은 우리가 헌납의 성약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또한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에 발행한 약속 어음상의 여러분의 서명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도들이 그곳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겠다는 약속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신권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헌금이 끝나게 되는 시기와 사업의 부채가 완전히 상환되는 날을 말해줌으로써 가끔 시간 약속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를 예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러한 약속은 성취되기도 어렵습니다. 복지 사업에 공헌하는 것은 희생의 법의 일부이며, 헌납은 결코 끝없는 과정임을 신권 지도자들이 인식하는 것은 더욱 훌륭한 방법입니다. 교회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 사업을 확장하고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복지 프로그램에 공헌할 기회가 계속 주어지리라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지침서를 읽어야 하며, 거기에 있는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성도들이 이것과 이에 관련된 원리를 배운다면, 그들의 성약에 따라 성도들을 돌보고 도우는 구원의 힘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물자를 주님의 방법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기 위하여 나누어 줌으로써 받게 되는 힘을 느낄 것입니다. (교성 104 : 14—18)

이제 사업 경영에 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모든 사업에서 이익을 가져다 줄 경영 원리를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복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첫째 요소는 신권 지도자의 태도입니다. 열심히 지시를 따르는 지도자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와 열성적인 지도자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복지 사업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며, 생활 필수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 농장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증되지도 않고 시험을 거치지도 않은 방법으로 생산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기본 식량 생산으로부터 색다른 품종이나 입증되지 않은 작물을 재배하거나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방법으로 경작 방법을 전환시킬 때 그 사업은 종종 재정적인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입증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식량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킴벌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산 작업을 능률적으로 행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복지 농장을 가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합시다. 우리는 모든 생산물을 필요로 하며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엔사인, 1976년 5월, 125 페이지)

이외에 형제 여러분은 이 사업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관장님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복지 사업은 단순히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합시다. 신권 소유자들이 협동해서 일하는 것도 좋

지만 일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애를 나누시다. 그리고, 그 일을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행함시다.”(엔사인, 1976년 5월, 125—26 페이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일에 의거해서 5가지의 특별한 경영 기술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각 사업 단위마다 위원장 및 대표를 선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능한 경영자를 임명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교리에 관한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과 실무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경영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상임 조직이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매일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이사회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만일 경영자를 고용했다면 그는 식품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생산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2. **계획.** 1년간의 작업 계획과 예산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작업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언제,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상품을 생산하며, 판매하는지 상세히 계획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언제, 얼마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며, 이 자금을 차용했을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세심하고 철저하게 계획된다면 여러분의 계획은 경제적 전지에서나 운영면에서 볼 때 진실하게 짜여져 틀림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3. **운영.** 적시에 행해져야 하는 농업상의 사업의 성패는 바로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과 입증된 기술은 오늘날의 농업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농사 일에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현명한 계획과 근면과 계속적인 실천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역 농사 사업으로 입증된 것을 행하십시오.

4. **기록.** 정확한 기록을 하고 사업에 대한 독립된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유능한 재정 서기를 임명하십시오. 서기는 매달 교회 본부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할 뿐 아니라 위원회가 효율성, 운영비, 이익금 등을 알 수 있도록 생산 기록도 합니다. 시기에 알맞은 준비, 연구, 재정 보고서 활용은 사업

의 관리를 향상시키며, 여러분이 참으로 관리인의 직분을 성실히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 됩니다. 기록부 작성은 서기 뿐만 아니라 경영자와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판매.** 복지 사업에서 흔히 소홀히 다루기 쉬운 부문이 농장의 생산품의 판매입니다. 복지 생산 분배과에서는 품질 검사 프로그램을 제정하셨습니다. 통조림 공장과 창고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만을 받아들입니다. 창고에 넣어 둔 우수한 품질의 농산품은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난한 자에게 재정적인 능력을 갖게 해 주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6. **자발적인 봉사.** 복지 생산의 특별한 요소는 회원의 자발적인 봉사입니다. 자발적인 봉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자발적인 봉사는 많은 경우에 농업 지도원, 사업가, 유능한 농업 전문가 등 자발적인 지역 전문가들이 행하여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이나 신권 지도자가 자발적인 일군들을 훈련하고 관리한다면 경영자는 오직 중요한 운영면에만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의 6가지 원리에 따라 계속해서 실시한다면 사업은 성공을 거둘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계획에 따를 때 반드시 얻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따름으로써 지도자들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일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와드나 스테이크는 와드나 스테이크 단위로 생산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하거나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여기서 말씀한 것이 단지 미국이나 캐나다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원리가 전세계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참고삼아 우리는 이제 영국, 웨일즈, 사모아, 통가, 오스트레일리아, 한국에서 생산 사업을 시작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이 목표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해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의 왕국의 질서의 법

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해의 왕국의 율법의 하나는 우리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주님의 방법대로 돌보는 것입니다. 생산 사업은 우리의 감독의 창고를 통하여 분배될 물자를 생산함으로써 이 신성한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며 비상 사태에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이 생산 사업에는 많은 애로가 따릅니다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연장자는 연소자들에게 모범을 보여 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련과 희생과 순종을 배웁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함께 일합니다. 목수, 연판공, 교사, 법률가, 의사,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협동하며 일합니다. 여기에는 협동과, 사고와 선교 사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정원회와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유대가 강화됩니다. 여기에는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농부, 목장 경영자, 실업가에게 감사할 기회도 있습니다. 생산 사업은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모두 소비자이므로 생산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음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되며 생산과 관계되는 문제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수확의 법칙 즉 인간이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야만 거둘 수 있음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산 사업은 사람들에게 기도와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을 줍니다. 생산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잘 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각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며, 또한 훗날에 보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하여 일용품을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 생산 사업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교회의 모든 와드가 생산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가, 향상되고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복지의 원리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들이 직장을 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회원들이 직업을 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지도자들에게 주는 제언



오늘 아침 제가 두 분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이신 브라운 감독과 피터슨 감독의 바로 곁에서 걸었던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저는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제이 리처드 클라크 감독이 이 훌륭한 두 분을 위한 동반자로서 적격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브라운 감독으로부터 고용 책임에 대해 말씀 부탁을 받았습니다. 6개월 전에 피터슨 감독은 고용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는 프레디라는 그의 아들을 업고 수술을 받기 위해 말일성도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소년은 수술을 받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에 프레디의 어머니는 수간호원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을 떠나고자 합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30분마다 프레디를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원이 말하기를, “예. 우리가 그를 정기적으로 보살피겠지만 30분마다 그를 돌볼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30분마다 우리 아들을 보살펴 주시지 않겠다면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이곳에 머

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간호원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를 30분마다 돌보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병원을 떠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병원은 중앙에 본부가 있고 그 양 옆에 건물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프레디는 맨 끝방에 있었습니다. 그 간호원은 긴 복도를 지나 그 방으로 가서 머리를 문안으로 내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레디, 기분은 어때? 아무 일 없니?”

그는 “예 아무 일 없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시각은 8시 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와서 다시 프레디의 방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프레디, 아무 일 없니?”

그는 “예, 아무 일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본부 사무실까지 한참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8:30, 9:00, 9:30 그리고 10:00에 프레디의 방에 들렀습니다. 결국에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겠다. 프레디를 보살피는 방법을 바꾸어야겠다.” 그녀는 실내 통화 장치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단추를 누르고 말했습니다. “프레디, 팬찮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프레디, 아무 일 없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프레디, 아무 일 없니— 말해 봐”

그때 매우 놀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벽아, 왜 그래?”

피터슨 감독이 지난 번에 하신 실업에 대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드린다해서 우리는 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은 가장 훌륭한 교사입니다.

우리는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는 태

초부터 인간은 완전히 독립하여 자신과 가족을 돌보라고 배워 왔습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참된 원리입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회원들은 그와 같은 완전한 자립을 이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필요 사항을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정원회나 와드 지도자로서 이 원칙을 생각하고,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느낄 때 이러한 우리의 책임에서 벗어납시다. 실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이해하고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용에 관한 2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모든 개인은 자립해야 합니다.
2. 그렇다고 해서 정원회와 다른 와드 회원들이 한 개인에 대한 그들의 직접적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와드에 직장을 잃게 된 사람이 생길 때 직장을 구할 일차적인 책임은 그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을 때 그의 가족이 도와야 합니다. 정원회와 와드의 도움은 개인이 직장을 잃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직장을 잃고 다른 직장을 구할 때 까지의 기간이 길면 갈수록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1. 개인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2. 압박감—정신적, 육체적, 재정적인 압박감으로 마음은 혼란해지고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3. 날이 갈수록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가치관이 점점 허물어집니다.
4. 사회 단체나 고용주가 그들에게 적은 낙인은 “만약 그가 유능한 자라면 이미 직장을 얻었을 것인데, 그는 아마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다. 나는 그를 채용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 실업 상태의 기간이 길면 갈수록 비록 그에게 기회가 생겼다 할지라도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서 일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비 제이콥스는 “자유, 놀라운 위험”이란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 전에 읽은 일본 소설 가운데 그 주인공은 이상한 마을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한번은 모래를 파낸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에게 음식과 물은 공급되었지만 사닥다리는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결사적으로 밖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에게 물어 주기를 애원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흥정을 해 보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구결과 음모가 바로 그의 생활 방법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가 원하는 바가 승락되었습니다. 그가 뜻을 다하여 밤낮으로 갈구했던 것은 함정에서 나와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무런 보호도 없이 세상과 맞서 나갈 것을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그는 방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함정 속에서 그는 적어도 미지의 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란 보상이 아니라 무서운 위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코 실직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오랫동안의 실직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민이라든가 자신감의 상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플라토는 무슨 일이든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론, 1권, 1, 377 참조)

와드와 정원회는 회원들의 실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I.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은 스테이크와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에 실직 문제에 대해서 지시하되 특히 이번 대회의 복지 모임에서 말씀드린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II. 정원회 회장 및 감독은 실직당한 회원을 즉시 접촉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실직당한 회원들에게 아래 사항을 지키도록 권고하십시오. (아래의 제언 중에는 지역의 실정에 부적당한 것도 있을 것이나 그 원리는 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가능한 한 모든 개인적인 자원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결의를 갖도록 한다. 아침 7시에 기상하여 목욕하고, 청소한 후 기도하고 조반을 먹는다. 8시에 집을 나와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닌다. 매일 여러 시간 동안 일자리를 구한다.

나.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면서,

1. 이력서를 작성한다. 정원회와 와드의 전문가들은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가능하면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직종의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거나 고용주에게 직접 보낸다.

3. 여러분이 과거에 취업했던 회사를 조사하여 전화를 걸어 약속한다.

4. 신문의 “구인란”을 조사한다. 다른 곳에 가더라도 지장이 없다면 다른 지역의 신문도 살펴본다.

5. 직업 소개소를 조사한다.

6. 전화 번호부를 조사하여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분야의 회사의 명단을 작성한다.

7. 일자리를 알고 있을 듯한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한다.

8. 여러분의 직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도하고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30 분이상) 그러면 여러분은 영감과 지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9. 여러분의 신앙과 확신을 키워 줄 수 있는 서적 즉 경전, 저세술이 담긴 서적 등을 읽는다.

다. 다음날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정한다. 이때가 바로 한두 명의 전문가로부터 창의력 있는 의견을 듣고 대화를 통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 면접을 위해서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다녀야 한다. 단정한 옷차림은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훌륭한 첫 인상을 갖게 해 준다. 밀바닥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며 새로운 고용주에게 자신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마.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도 십일조를 낸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십일조를 내는 것은 이 축복을 확인하는 한 방법이다.

III. 청원회 회장과 감독은 직장을 잃은 개인과 접전을 갖습니다.

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되찾게 한다.

나. 앞에서 열거 한 대로 그를 가르친다.

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에게 필요한 특별한 축복을 준다.

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정원회와 와드의 자원을 마련한다.

IV. 처음에 직장을 구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들의 실패를 분석하여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까이 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V.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전문가를

부르십시오. 최대의 힘은 정원회의 모든 재능을 합치는 데서 나옵니다. 모든 정원회 회원은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회사를 찾도록 지명을 해야 합니다.

VI. 정원회 회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직업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실력을 다시 갖추도록” 도울 수도 있고, 정원회는 한 회원이 개업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정원회와 와드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한 개인이 좌절감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자기에게는 직장을 구하도록 도와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와드복지 사업 위원회는 개인의 필요 사항을 토론했어야 합니다. 각 정원회나 그룹 회장단은 각 회원이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신권 조직은 직장을 구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1937년 해롤드 비 리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직당한 회원이 자기가 속한 정원회와의 유대를 끊고 취하는 모든 조치는 자신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그만큼 지연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필요할 때는 모든 와드가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 100배나 노력이 증가되고, 따라서 성공율도 100배나 커지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토론 후의 결정에 따라 실제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는 보람있는 일을 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회와 와드 전체가 금식과 기도로써 하나가 되어 한 개인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사형수가 무장한 간수 두 명의 감시를 받으며 감방 사이의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수감자 중의 한 명이 그에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형받으러 전기 의자로 가네”라고 사형수는 답했습니다. 그때 다른 죄수는 “그대 힘을 내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와드와 정원회가 함께 뭉칠 때 위대한 힘을 얻습니다.

각 와드는 직업 알선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정원회, 와드, 스테이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포함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 직업 알선 센터가 있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 정원과 와드 활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권 소유자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방법대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정원에서부터 와드, 스테이크, 지역에 이르는 신권 계통 사이에서 어떤 일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원리가 그릇되어서가 아니라 신권 지도자가 그 지역에서 그들의 관리인의 직분을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업을 구하는 자와 사람을 고용하려는 자와의 연결이 늦어짐으로써 취업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원회 조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전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신권 정원회는 온 인류와 왕국의 형제들의 형제애를 위한 주님의 조직입니다. 정원회는 근본적으로는 정원회 회원들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조직입니다. 모든 정원회 회원의 현세적인 복리를 돕는 것도 정원회 회원의 책임입니다.

훌륭한 정원회에는 강철보다 강한 유대으로써 회원들을 결속시켜 주는 신성한 형제애가 있습니다. 정원회는 사랑의 조직 곧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결속된 조직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을 때 모든 일이 잘 행해지며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원회 회원들은 그들의 형제가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마치 그들 자신이 직장을 잃은 것과 같은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정원회 회장은 정원회의 협외와 활동을 지시합니다.

감독은 그의 보좌 중 한 명에게 개인 복지의 책임을 맡겨야 하며, 자신도 정원회 이외의 직업 앞선 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불우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기를 빕니다. 자비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3)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상호부조회 지도자에게 소단위 반을 가르침으로써 비축과 가정 생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주는 목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7월, 저의 사무실에는 6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들이 찾아 왔었는데 그들은 모두 티본 홍수로 피해를 입은 아이다호주에서 온 자매들이었습니다.

이 자매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수천 명의 신권 소유자들이 보여준 노고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 무서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빨래하고 절제질을 하고 청소하며 음식을 마련하고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는 일 등, 그밖의 많은 필요한 일을 했던 수많은 상호부조회 자매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의 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상호부조회 나부 기념상 중 잠언에 묘사되어 있는 여인과 같이 동정 어린 태도로 손을 펴고 있는 한 여인을 조각한 아름다운상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잠 31:20)

저는 자신이 홍수 지역을 방문했던 때를 회상해 봅니다. 저는 그곳의 어느 교회 활동실에 들렀는데, 거기에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표지가 붙어 있는 흰 천으로 덮은 식탁이 있었으며, 다른 방에는 질서 정연하게 여러 가지 식품 즉, 밀가루, 분유, 병에 저장한 과일과 그의 비식품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개인의 자발적인 자선심으로 아낌없이 기부된 것이었습니다.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지역의 회원들이 그들의 창고를 열고 홍수의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식품과 기타 생활 필수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사랑과 단합의 정신을 되새겼었습니다.

저는 그때 총관리 역원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 이재민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충분한 생활 필수품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전 교회 성도들은 가정 예비와 검소한 생활에 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상호부조회 지도자인 우리들은 교회의 모든 자매들이 관리 감독단이 세운 비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서 다가오는 6개월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봅시다.

첫째, 모든 자매들이 이 과제를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가족들이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그들은 이 목표를 절반 정도 달성했습니까? 이제 겨우 시작하신 자매도 제실 것입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자매도 제실 것입니다.

둘째, 비축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1. 기본 식품 비축. 오랫동안 두어도 부패하지 않는 기본 식품으로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식품을 일 년간 사용할 만큼 저장하십시오. 이러한 식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곡류(밀, 쌀, 옥수수, 기타 곡류); 분유, 전어 또는 콩과 같이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 신선한 과일이나 통조림되었거나, 말렸거나, 절인 과일 또는 채소; 설탕 또는 꿀과 같은 설탕 대용품; 유지; 소금; 식수. 식품을 저장하기 힘든 곳에서는 신선한 토란, 고구마를 저장할 수 있으며, 양돈, 양계, 양어 등을 저장 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밀기울이나 통보리 등 통째로 된 곡식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악한 곡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뇌성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기본이 되는 의류 및 연료 저장.

3. 비상비축. 여러분은 식수나 냉동이나 요리를 할 필요가 없는 인스턴트 식품, 온 가족에게 필요한 의약품, 의류, 응급 처치법이 적힌 소책자 및 용품, 도끼, 삽, 모포와 같은 것들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족들이 재난을 당하여 즉각 대피해야 할 경우 또는 집안의 대피소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의 중요한 문서나 서류도 즉각 집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4. 비축 확장. 각 가정은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식품과 생활 필수품을 포함한 기본 비축을 확장해 나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축을 할 경우에는 규정식과 생활 형편을 감안하여 종류와 개인적인 기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품목은 매일 사용되므로 자주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비축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비축이란 일 년 동안 사용할 기본 식품, 의류, 가능하면 연료까지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 후에 비상 비축

과 비축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모든 비축을 할 때에는 양질의 생산품, 알맞은 용기 및 비축 시설, 적당한 저장 온도, 정기적인 교체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교회 회원들이 겪은 몇 가지 재난에서 우리는 저장 장소 및 용기의 종류에 개선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모든 비축을 집안의 한 곳에만 한정해 두거나 모든 용기를 깡통이나 플라스틱 제품만을 사용하거나 모두 유리제품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1976년 4월 복지 사업 모임에서 상호 부조회 가사 소단위반을 위한 8가지 토론 주제를 제의했습니다. 복습을 위해 이것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시 가정 비축을 위해 체계적으로 비축하는 방법.

저장법, 저장 물품, 저장 장소, 씨앗 저장, 토양 준비 및 원예에 필요한 연장 구입.

채소 경작 방법.

식품 통조림법 및 식품 건조법.

가족의 건강을 위해 섭취해야 할 식품의 종류 및 섭취법.

재봉틀 기본 사용법, 손바느질, 의복 수선 및 개조.

구입이 가능한 재료와 가정에서 비축한 식품으로 영양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

저는 스테이크 및 지방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에게 일상 식사에서 기본 식품 비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소단위반을 갖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저는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에게 그 지역의 문화, 기후 및 지리적 조건에 알맞은 가정 비축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교회에서 승인한 자료를 구입하고 그 자료를 연구하여 그 지역 신권 지도자와 협의한 후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알맞은 신축성 있는 비축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비축 계획은 개인이나 가족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복지 사업과에서 발행한 소책자,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본질에 나와 있는 지침은 언제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자는 교회 번역 출판부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 대학 및 정부 기관에서도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교회 복지 사업에서 여성들이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도록 권고합니다. 대부분의 자매들은 실제 생산 사업과 통조림 제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자매들은 전화로 연락하고 계획하는 일을 맡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기를 돌보는 일은 젊은 어머니들을 생산 사업이나 통조림 제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몇 명의 젊은 어머니들은 서로서로 이 일을 맡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생산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그들간에 형제애와 자매애를 더욱 강하게 해 줄 것입니다. 자매들은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가정 활동 및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매들의 태도와 반응은 전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자매의 열성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매가 이와같은 일을 수행하는 일은 곧, 사랑과 봉사와 일과 자립심과 관리인의 직분 및 헌납의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각 자매가 상호부조회 나부 여인상에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복지 사업에 참여할 때에 보다 큰 축복이 임할 것이며 또한 영적으로도 축복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본받을 훌륭한 모범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그녀 자신이나 가족들은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나부의 자매들이 깨달았던 것과 같이 교회의 형제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특별한 축복임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함으로써 그들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된 동반자로서의 유대 관계를 다시 깨닫고 이러한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자매들이 가정 생산과 비축으로 준비를 갖추으로써 개인과 가족을 안정시켜 줄 필요가 있을 때 더 너그럽게 물자를 내어줄 수 있게 되어 우리가 “눈(역경)이 와도...집 사람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잠 31:21) 아니한 옛날의 현숙한 여인처럼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내가 정한 방식대로”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자립과 근면의 원리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원리와 같이 현세적 구원을 위한 주님의 계획의 기본되는 원리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복지 프로그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생각을 이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신앙과 기도로써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서 훌륭한 말씀을 해 주신 총관리 역원들과 스미스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페더스토운 형제님이 말한 벽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는 한 가지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의 경비원 2명이 밤에 신전 옥상에서 주위를 살피면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전 앞에서 2~3명의 술취한 자들이 정문을 붙잡고 신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오 모로나이여, 나에게 말해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경비원 중의 한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라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께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 마디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지난 30년간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골자만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의 제목을 “내

가 정한 방식대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대 사회가 로마를 멸망으로 이끈 길을 따르며, 또한 복지 국가와 사회주의의 기만과 유혹에 굴복한 다른 문명국을 멸망으로 이끈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지상의 자녀들을 위한 현세적 구원에 대한 계획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오늘날의 모순된 계획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내가 철해 둔 신문 잡지의 기사 한두 가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사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어느 히피 부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장발에 특유한 히피 복장을 하고 목걸이, 샌들신, 머리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저쪽으로 건너가 실업 수당을 찾고 대학에 들러서 나의 연방 보조금이 왜 보류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우리의 식량 배급표를 찾아오겠소. 당신은 그 동안 무료 진료소에 가서 진찰을 받고 시건 강 센터에 들러서 내 안경을 찾고 복지과에 가서 우리의 보조금 인상을 신청한 후

“5시에 연방 빌딩에서 다시 만나 부패된 기성 제도를 반대하는 데모에 가 답합시다.”

다음의 기사는 얼마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서 오려 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도시인 세인트 어거스틴에서는 수많은 갈매기떼들이 풍요 속에서 굶어 죽었다. 물고기떼들은 많은데 이 갈매기떼들은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몰랐다. 여러 세대 동안 그들은 새우잡이 배에서 버린 그물에 걸린 새우에 의존해 살아 왔다. 이제 그 배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 새우잡이 배는 갈매기떼들에게는 복지 국가나 다름이 없었다. 큰 새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고기잡는 법을 배우려 노력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의 새끼에게도 고기잡이를 결코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들은 새끼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대신 새끼들을 새우 그물로 데리고 갔다.

“이제 이 갈매기들은 그 자체가 자유를 상징할 만큼 자유스러운 새다.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은 것은 ‘불로소득’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짜 때문에 그들의 독립심을 희생시켰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역시 이 갈매기와 같다. 그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미국 정부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수당이나 보조비에 의존하여 생활하는데, 마치 ‘새우잡이 배’의 그물에 걸린 남은 것을 먹고 사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만일 정부에 물자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후세대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미련한 갈매기가 되지 말자. 우리는... 자급 자족을 할 수 있는 재능을 보존해야 하며 자신을 위해 무엇을 창조하는 재능을 살려야 하며 절약 정신과 참된 독립심을 길러야 한다.”(리더스 다이제스트, 1950년 10월, 32페이지)

이제 이와 대조되는 내용의 기사인 “아무도 그 개척자들을 도울 자가 없었던 것은 훌륭한 일이었다.”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삭막한 불모지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연맹 주택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러 나갔으며, 자신의 집을 지었다. 거기에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식량을 얻기 위하여 경작했다. 그들이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굶이 지냈다.

“거기에는 무상 교육 제도가 없었으므로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를 가르쳤다. 오락 시설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일에만 바빴다. 거기에는 질병 반대 데모가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을 의무로 삼고 있었다. 거기에는 사회 보장 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보상이 있었다.

불로 소득을 바라는 난폭자는 없었다. 그들의 어머니께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무지한 학생은 없었다. 노동자의 생산품으로 자신의 보수를 지불하는 사치스런 판로 주의자도 없었다.

개척자들에게는 단지 힘든 일과 많은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일이 우리들에게 보상을 가져다 주었는가?”

“우리의 생활 수준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크리스찬 이코노믹스, 1972년 11월, 25페이지)

그럼 이제 주님의 계획을 봅시다.

“나 주는 하늘을 펼치고 땅...을 만드었으니, 그 안에 있는 만물은 나의 것이니라.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만물이 나의 것이니라.

“그러나 이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니, 보라,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한 자는 낮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나 주가 나의 성도를 부양하기로 선포한 방법이니라.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참으로 내가 만물을 만들어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를 주어 자유의 지대로 행동하게 하였느니라.”(교성 104 : 14-17)

성도들의 현세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위의 성구에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창조주라고 선언하셨으며, 또한 자신을 최고의 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부양함이 그의 목적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성도들을 부양함이 그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한 자는 낮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나 주가 나의 성도를 부양하기로 선포한 방법이니라.”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질서 정연한 사회를 이루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 즉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교성 76 : 24)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복음의 모든

교리 속에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겨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다른 악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그러한 악을 퇴치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이 지상에서 나는 훌륭한 것들을 “가족 수와 형편과 부족량과 필요량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성 51 : 3)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은 평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부양하기 위하여 기꺼이 일하고 그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동기를 부여받아 그들이 가진 것을 “복음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후히 “나누어” 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성 104 : 18)

이 세상의 표준이 어떻게 변하든 개의치 않고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모든 말일성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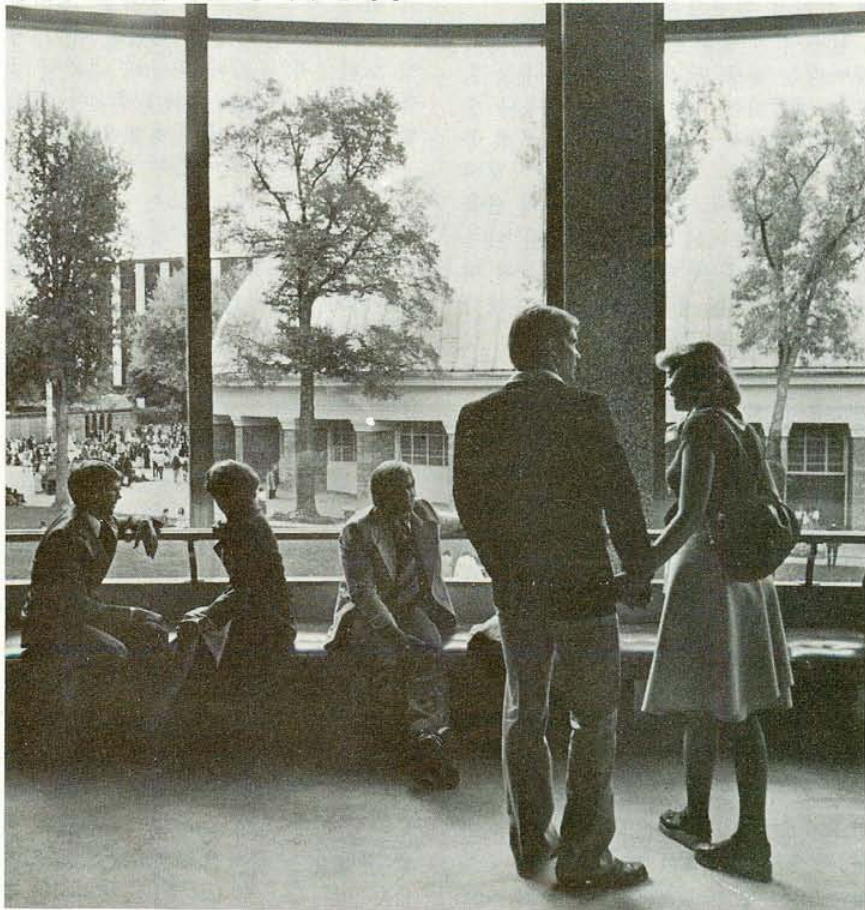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지지하고 이 원리에 충실히 따릅니다. 우리는 정부나 개인이 우리에게 생활 필수품을 줄 것을 기대하는 안일한 사회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불로 소득을 탐내는 풍조가 우리의 사회에 너무나 뿌리박혀 있으므로 큰 부자나 더 많은 부를 생산할 수단을 가진 자들도 정부가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결과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정부의 자금으로 무엇을 해 줄 것을 약속하느냐에 따라 자주 판가름이 납니다. 만약 이러한 관습이 어떤 사회에서 널리 인정되고 행해진다면 이는 그 시민을 노예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그것은 자존심과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고, 현세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서 자립을 하는 데 너무나 엄청난 회생을 요구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기 위

방문자 센터에서 동남쪽을 내다 본 광경



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자립하고 독립합니다. 구원이란 다른 원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현세적인 일은 물론 영적인 일에서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2:8-9)는 말씀은 오해되어 왔습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행위는 필요없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니이 25:23 참조) 거기에는 진주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정부의 실업 수당은 없을 것입니다. 남의 노력으로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자는 아무도 그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여기서 배우도록 합시다.

현세적 구원을 위한 주님의 계획의 첫째되는 행동 원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려고 할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모세서 4:23)

아담이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위해 땅이 저주를 받은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그 저주는 아담에게는 저주라기 보다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 저주로 결국 그와 그 후손들은 주께서 누리시는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땅을 저주하여 “가시덤불”과 “영경귀”를 내시어 그들이 이곳에서 나쁜 소산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들의 “선”과 “이익”과 “복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후부터 주께서는 종종 개인의 노력이 바로

주님의 경제 즉 영적인 면과 현세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원리라는 사실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성도들을 부양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은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한 자는 낮아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성 104:16)

가난한 자는 오직 그들이 자신의 노력과 절약으로 독립하고 자립할 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크고 들쭉되는 계명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는 말씀을 “복음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교성 104:18) 자기의 몫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 계명에 순종함을 증거할 때 “부한 자는 낮아지게”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써 우리의 독립과 자립을 유지하고 우리가 교회 복지 혜택을 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우리의 의무는 종종 소홀히하게 되고, 그들을 공경할 때 받는 보상은 너무나 크고,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받을 벌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1974년 10월에 있었던 복지 사업 모임에서 우리의 의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클라크 부대관장님이 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이 원리는 시내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씀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고 그 계명 가운데 하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는 계명임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 계명에 나타난 명령과 약속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며,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유대 민족은 이 계명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났기 때문에 주님은 기회를 틈타 그들에게 이 계명을 설명하고 이 계명의 참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은 유대인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전과 같이 구세주를 궁지에 몰아 넣기 위해 그에게 그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먹는지 묻고 그것은 조상들의 ‘유전’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를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많은 자들에게 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마태복음 15:3-6)

“위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나 마가복음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막 7:10-12)

이 성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의 설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그들의 부모를 돌보라고 하신 그들의 책임을 지키는 대신 그들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돌보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를 원할 때 부모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부모에 대한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제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고르만)로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과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부모를 공공 복지 기관에 떠맡기고 국가가 그들을 부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

제에 관해 클라크 부대관장님이 하신 말씀으로 되돌아갑시다.

“이 문제에 대해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신 후 주님은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다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은 부모를 돌볼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 하신 주님의 말씀]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 15 : 7-9)

“이제 내가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노니 그 명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살든지 이 명령과 약속은 그들에게 적용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 베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 20 : 12)

“우리에게 속한 이 땅은 요셉에게 주어진 선택된 땅입니다. 나는 그 약속이 이곳에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물론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 땅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을 때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최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선포하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며 최악이 가득찬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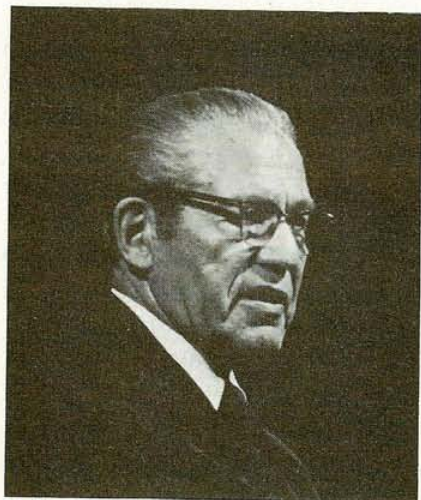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 1944년 10월 6일, 3-5페이지) 주님이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생활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가서 행하라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는 궁핍한 자의 생활을 복되게 할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다년간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맡은 주님의 일을 하려는 커다란 의욕과 훌륭한 느낌과 이 일을 행할 보다 나은 능력을 갖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신 것 중 두세 가지 사항이 특별히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물질적인 도움은 일시적인 것이나 영적인 도움은 영구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도울 때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서 말씀되기는 했으나 강조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스스로를 돕고 있으며, 복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도와야 합니다.

이 모임에서 내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충고는 가서 여러분이 지시받은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주님의 사업과 이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의 주님의 사업은 실토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이해력을 주시기를 빌며, 또한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이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나는 오늘 이 모임이 아주 훌륭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모임보다 더 훌륭한 모임에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감독이라면 오늘 이 모임에서 나의 책임과 그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므로 와드로 돌아가면 전에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대회 이후 얼마나 많은 감독이 부름을 받고 성임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 부름을 받은 감독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모임은 여러분이 의무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대회 이후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 부름받은 자매님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 그들은 중요한 분들입

서로 사랑하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늙은 부모를 돌보고 자녀들에게 일하는 습관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심



형 제 자매 여러분, 이 모임은 가장 바람직한 모임입니다. 나는 이 모임에 참석하여 시종일관 기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름을 즐기려고 이 곳에 온 것이 아니라 교훈을 얻기 위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주어진 여러 가지 지시를 여러분의 생활에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으로 이 모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형제님과 자매님이 이 사업이 어떻게 행하여졌으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내가 기억하건대 우리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아리조나주로 처음 이사했을 때 이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는 행해지고 있지 않았으나 비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스테이크 및 와드에서 이 사업은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리조나주로 갔을 때 그 당시 스테이크 부장은 크리스토퍼 레이튼 형제였다고 기억되는데, 그는 병이 나서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후임자로 나의 부친이 스테이크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단칸방에 살았는데 그 당시 우리 집 식구로는 9명이 있었으며, 얼마 동안 9명이 그 방 하나에 기거했다고 기억됩니다.

그후 우리는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벽돌집으로 이사했으며, 그 집에는 방이 3개 있었습니다. 지붕이 새어 우리는 자주 천막으로 자러 가야 했습니다. 그후 우리는 운하 지대에 있는 10에이커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 땅은 관목과 덤불과 다른 사막의 식물들로 덮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없애버리고 땅을 개간할 것인가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일은 몇 마일 떨어진 센추럴 와드에서 형제들이 곡괭이와 삽, 도끼 등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구입한 10에이커의 땅을 개간하는 데 도와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은 레이튼 와드에서 왔으며, 그후 피마 와드에서도 왔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왔습니다. 매우 훌륭한 일군이었던 나의 부친과 두 형이 이들을 도와 일하여 우리는 곧 경작할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지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동일한 지시를 받지 않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격려를 받지 않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복지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른 사람들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부친은 매우 자상한 분이

셨습니다. 부친께서는 레이튼 스테이크 부장이 연세가 많아 쇠약해져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큰 과수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친께서는 우리를 모두 불러 모아 물통과 남비를 가지고 오게 하시고는 레이튼 스테이크 부장의 허락을 얻어 그의 과수원에 가서 분담하여 과일을 따게 하셨습니다. 레이튼 스테이크 부장의 가족은 대가족이었으며, 우리도 대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수원에서 딴 것을 나누었으며 우리의 계획대로 일을 진전시켜 나갔습니다. 나의 모친께서는 빛지지 않고 살아 가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식료품 저장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저장실에는 언제나 병에 담아 간수해 둔 과일도 가득차 있었으며, 그 외에도 그 당시에 구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꽂 들어 있었습니다.

이외에 내가 언급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일은 일리노이주 나부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 줄 상호부조회 기념비 건립을 승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승인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스테이크 부장단과 선교부장단과 감독단이 이 일을 위하여 격려해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매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자발적으로 헌금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자매들을 격려하여 이 프로그램을 훌륭히 수행할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저녁 신권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우리의 부모들을 참여시키는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평의회 모임에서 형제들을 노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의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금전 투자에 매우 신중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많은 돈을 모으도록 내조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수십만 달러를 저축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이가 많아져서 다소 노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양로원으로 갔습니다. 그 돈은 자녀들의 예금통장에 넣어 두고 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온갖 고통을 충분히 맛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녀는 많

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루한 옷을 입고 보잘것 없는 대우를 받으며 아직 양로원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녀의 자녀들은 결코 그녀를 찾아 오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바쳤고, 수년 동안 그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그들을 위해 저축했던 한 어머니를 방문하기란 다소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녀가 사랑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위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이 그들의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감독 여러분은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와드에 돌아가셔서 회원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이 비록 기력이 약해지고 모시기가 어렵게 되었을 경우라도 그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

음을 상기시키십시오. 우리는 부모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으로 만드셨을 때 세우신 계획의 일부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은 수년 전 한 젊은이가 아내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리조나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친해지자 그는 청소년기에 고생을 많이 겪은 것에 관해서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침 5시 내지 6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그는 농장에서 일했으며, 가슴에 맺히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다음의 말로써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내 자식들은 결코 그렇게 시키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활동을 그만두었으며,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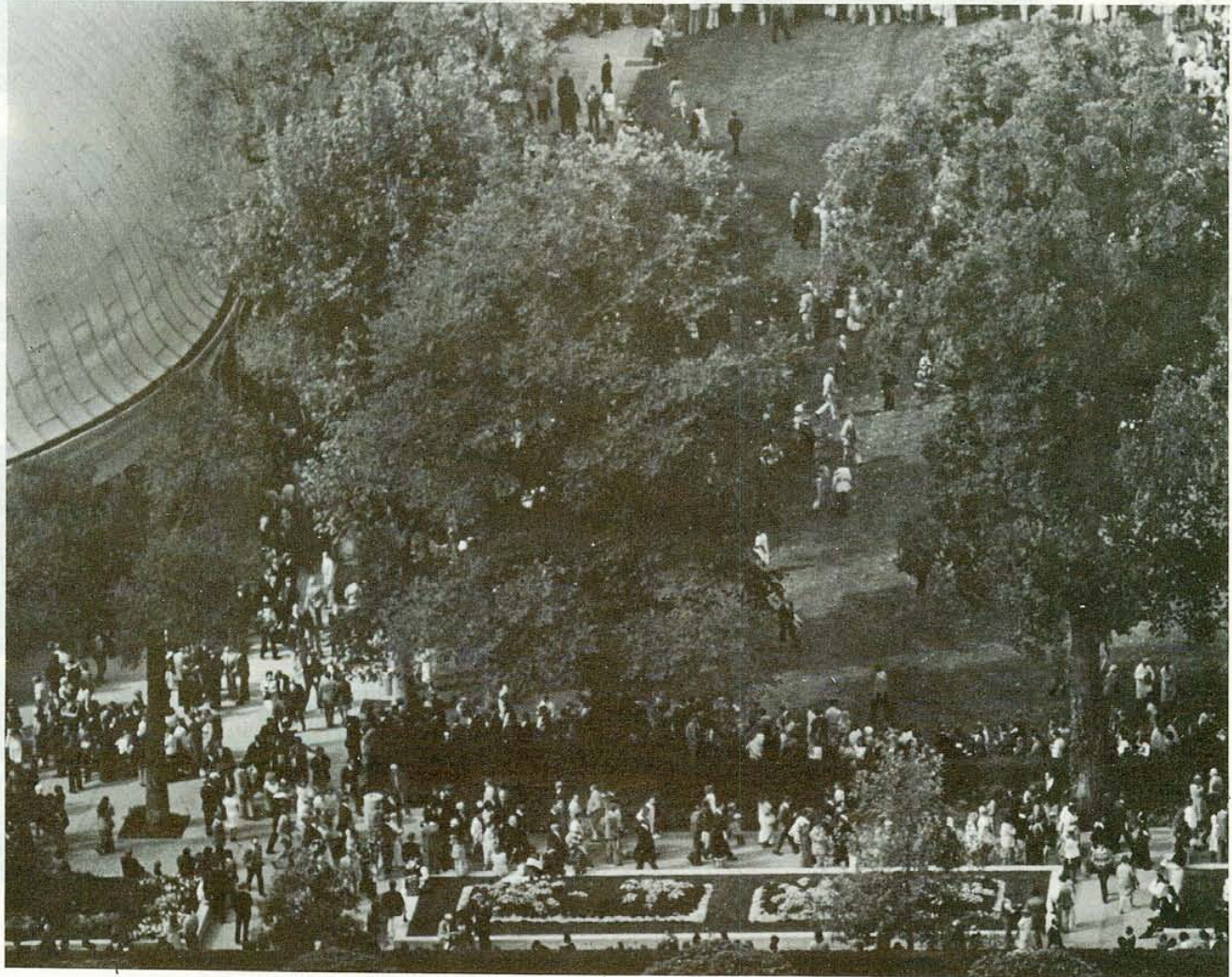
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교성 42:42)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만은 악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부해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 친절히 대하여 그들로부터 일할 기회와 봉사할 기회와 교육받고, 자신과 남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빼앗지 맙시다.

이 모임은 정말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빅터 엘 브라운 감독과 그의 두 보좌가 행한 놀라운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님과 그의 두 보좌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감독단과 스테이크 부장단에게 이 훌륭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보여 주신 지도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며 실천하는 우리를 축복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공중에서 본 태버니클과 방문자 센터 주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대관장단



웬 엘든 하더니 부대관장
제 1 보좌



스케서 더블류 김벌 대관장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제 2 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더프트 베슨



마크 이 피터슨



웬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드



하워드 더블류 윈터



고든 비 헨슬리



교회 축복사



엘드리드 지 스미스

철십인 제일 정원회 철인 회장 및 회원



프랭클린 디 리처즈



제임즈 이 파우스트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에이 디어도어 터블



넬 에이 맥스웬



매리온 디 행스



폴 에이치 더



헨리 디 테일러



앨빈 알 다이어



디어도어 웬 버든



버나드 피 프로क्टर



제임즈 에이 켈리모어



조셉 웬더슨



윌리엄 에이치 비넷



존 에이치 발레버그



로버트 엘 심슨



오 메슬리 스톤



머틀류 그랜트 뱁거터



로버트 디 헤일즈



에드너 와이 고마쥔



조셉 비 워스런



에스 덴워스 영



워트만 맥터 이세



로렌스 더



렉스 더 피베가



진 알 쿡



찰즈 에이 디베이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칼로스 이 애시



엠 터셀 벨라드 이세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이콥 디오거



본 제이 페르스토운



딘 엘 라슨



로이든 지 배락



로버트 이 웰즈

관리 감독단



에이치 버크 피터슨 제 1모좌



빅터 엘 브라운 관리 감독 제 2모좌



제이 리처드 클라크 제 2모좌

대회 말씀과 교회 교과 과정

대회 말씀 곧 현대의 예언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는 권고의 말씀은 1977-78년도 성인 및 청년을 위한 교과 과정에서 가르칠 개념을 보충, 강화, 설명해 주고 있다.

교육 자료 개발과에서 마련한 이 도표는 대회 말씀과 성인을 위

한 네 가지 학습 과정인 벨기세덱 신권, 복음 교리반, 상호부조회, 가정의 밤과의 관계를 명시해 주고 있다. 또한 이 말씀은 주일학교 16반, 17반과 청년반에서 가르칠 공과와도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1977-78년도 벨기세덱 신권

과	총관리 역원
1	본 제이 페더스토운
2	
3	폴 에이치 던
4	
5	
6	오 레슬리 스토운
7	헨리 더 테일러
8	조셉 비 위스린; 존 에이치 그로버그
9	
10	
11	
12	
13	
14	데이비드 비 헤이트; 칼로스 이 애시
15	스펜서 더블류 킴볼(금요일 오전); 하워드 더블류 헌터
16	리그랜드 리차즈; 조셉 앤더슨
17	
18	에이 디오도어 터틀; 에스 딜위스 영
19	로버트 엘 십슨
20	제임스 이 파우스트
21	마빈 제이 애쉬튼; 프랭클린 더 리차즈
22	토마스 에스 몬슨; 브르스 알 맥콩키
23	에즈라 테프트 벤슨; 엘 톰 페리
24	
25	매리온 지 롬니(복지)
26	엘 엘튼 태너(신권)
27	고든 비 힉클리; 로버트 더 헤일즈
28	
29	닐 에이 맥스웰; 윌리엄 에이치 베넷
30	매리온 지 롬니(신권); 매리온 더 행스

1977-78년도 가정의 밤

과	총관리 역원
1	데이비드 비 헤이트; 오 레슬리 스토운
2	헨리 더 테일러
3	
4	
5	프랭클린 더 리차즈
6	
7	
8	
9	본 제이 페더스토운
10	
11	조셉 비 위스린; 존 에이치 그로버그
12	고든 비 힉클리; 로버트 더 헤일즈
13	조셉 앤더슨; 로버트 엘 십슨
14	스펜서 더블류 킴볼(신권); 폴 에이치 던
15	
16	엠 러셀 벨라드 이세
17	
18	
19	스터얼링 더블류 실
20	마크 이 피터슨
21	마빈 제이 애쉬튼; 닐 에이 맥스웰
22	
23	스펜서 더블류 킴볼(금요일 아침); 매리온 지 롬니(일반 총회)
24	
25	
26	고든 비 힉클리
27	토마스 에스 몬슨; 브르스 알 맥콩키
28	
29	폴 에이치 던; 존 에이치 그로버그
30	
31	
32	고든 비 힉클리; 프랭클린 더 리차즈
33	매리온 더 행스
34	칼로스 이 애시; 제이콥 더 오거

1977—78년도 상호부조회

과	방문 교사 메시지	영적인 생활	가 사	어머니 교육	사회 관계	문화의 정수
1		헨리 더 테일러		스펜서 더블류 킴볼(금요일 오전) 오 레슬리 스토운	로버트 엘 심슨 본 제이 페더스토운	
2	매리온 더 행스	제임즈 이 파우스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매리온 더 행스	
3				엔 엘돈 태너 (신권회)		
4	스펜서 더블류 킴볼(금요일 오전)	엔 엘돈 태너(신권회) 로버트 더 헤일즈		브루스 알 맥콩키 스터얼링 더블류 실	마빈 제이 애쉬튼 닐 에이 맥스웰	
5		스펜서 더블류 킴볼(금요일 오전) 오 레슬리 스토운		에이 디오도어 터틀 앨 러셀 팔라드 제이콥 더 오거		
6	로버트 엘 심슨	브루스 알 맥콩키 존 에이치 그로버그			엔 엘돈 태너(신권회) 윌리엄 에이치 베넷	
7	스펜서 더블류 킴볼 (금요일 오전) 매리온 지 롬니 (신권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킵클리 로버트 더 헤일즈		
8	닐 에이 맥스웰	매리온 지 롬니 (신권회) 윌리엄 에이치 베넷		엔 엘돈 태너 (신권회) 토마스 에스 몬슨	본 제이 페더스토운	

1977—78년도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

과	총관리 역원
7	매리온 지 롬니(신권회)
9	스펜서 더블류 킴볼(신권회)
14	마크 이 피터슨
22	존 에이치 그로버그
23	매리온 지 롬니(복지); 에이 디오도어 터틀
24	로버트 더 헤일즈
29	매리온 더 행스
30	존 에이치 그로버그
31	스터얼링 더블류 실
32	조셉 앤더슨
34	조셉 비 위스런
36	에즈라 태프트 벤슨; 엘 톰 페리
37	마크 이 피터슨
38	매리온 지 롬니(신권회)
40	매리온 지 롬니(신권회)
41	칼로스 이 애시; 앨 러셀 팔라드
42	데이비드 비 헤이트

1977-78년도 청년회

아래 열거한 말씀은 여러분이 공과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보충 자료를 제공해
총관리 역원의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를 갖추 줄 것이다.

과	꿀벌반	장미반	월계반
	총관리 역원	총관리 역원	총관리 역원
1	마빈 제이 애쉬튼 매리온 디 행스	프랭클린 디 리차즈 오 레슬리 스톤	토마스 에스 몬슨 스티얼링 더블류 실
2		엔 엘돈 태너(일요일 오전)	
3	하트만 렉터 이세 칼로스 이 애시	고든 비 힝클리	마빈 제이 애쉬튼 닐 에이 맥스웰
4		로버트 엘 심슨	조셉 비 위스틴
5	오 레슬리 스톤 본 제이 페더스톤		스펜서 더블류 킴볼 (금요일 오전) 매리온 지 롬니 (토요일 오전)
6	제임즈 이 파우스트		
7			매리온 디 행스 로버트 디 헤일즈
8		제임즈 이 파우스트	마빈 제이 애쉬튼
9			
10			
11	매리온 디 행스		엠 러셀 벨라드 이세 제이콥 디오거
12		매리온 디 행스	엔 엘돈 태너 (일요일 오전)
13		매리온 디 행스 하트만 렉터 이세	
14		고든 비 힝클리	본 제이 페더스톤
15		오 레슬리 스톤 본 제이 페더스톤	
16	마빈 제이 애쉬튼		매리온 지 롬니(복지)
17	헨리 디 데일러 렉스 디 피베가	매리온 지 롬니(복지) 오 레슬리 스톤	
18		엔 엘돈 태너(일요일 오전) 로버트 디 헤일즈	마빈 제이 애쉬튼
19		마빈 제이 애쉬튼	
20			매리온 디 행스
21	마빈 제이 애쉬튼		스펜서 더블류 킴볼 (금요일 오전) 매리온 지 롬니(토요일 오전)
22	매리온 지 롬니(복지) 에즈라 테프트 벤슨		에스 딜워스 영
23			하트만 렉터 이세
24			
25			데이비드 비 헤이트 칼로스 이 애시
26			고든 비 힝클리

“귀를 기울이자”

최 욱 환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 제 2 보좌



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 자신의 타락을 변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나 그의 율법을 비난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 함으로써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은 경건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행위로, 레이먼인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가 그를 믿어 너희의 죄를 회개하면 저의 공의로 인하여 너희가 죄 사함을 얻으리라.” (히 14 : 13)

합리화하려는 태도는 인간의 높은 이상을 낮은 행동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것이며, 회개하려는 마음 자세는 인간의 행위를 높은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제 아무리 입으로 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양심의 비난을 피할 길은 없다. “나는 절대로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말할 수 없는 깊은 범법에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합리화란 무서운 함정인 것이다. 이같이 무서운 함정에 빠지기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크게 얻어진다. 부모는 자녀에게 주님과 그의 율법에 관하여 가르쳐야 한다. 의로운 가정에서 합당하게 교육받은 자녀라면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분명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이 여덟 살이 되면 자신의 행위와 생계에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셨다. 바로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어린 아이들은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며, 그 때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 약속된 인도와 위안

과 진리를 받을 문이 열리게 된다. 어린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의 양심이 밝아지고, 가정 복음 교육, 기타 교회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악에 대한 지식을 체득하게 된다. “양심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의 왕국의 불빛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엘마는 그의 아들 코리앤티에게 “진실로 회개한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엘 42 : 24)고 하였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면 퇴보하게 되고 인생은 정체된 상태로 머물고 만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진보가 있겠는가? 그러한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보다도 훨씬 크고, 훌륭하며, 바람직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장의 근본 요인을 잃고 있다. 자만심으로 가득찬 토양에서 참된 성장이라는 씨앗은 충분한 영양을 취하지 못한다.” 우리는 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으나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 때에 그들이 거꾸러 지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6 : 15)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 *

